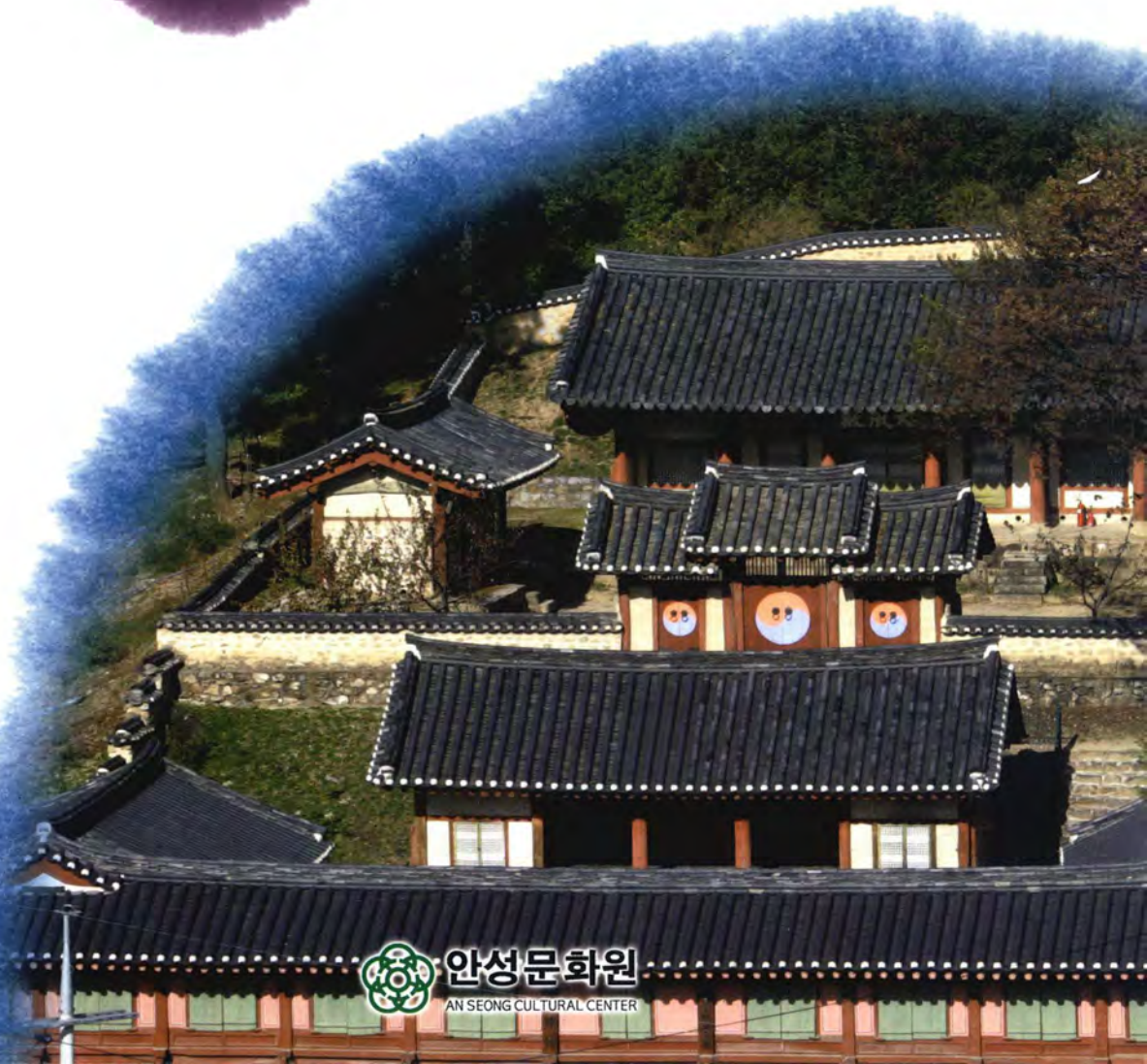




제 20 호



안성문화



안성문화원
AN SEONG CULTURAL CENTER



제 20 호

안성문화



안성문화원
AN SEONG CULTURAL CENTER

목 차

▶ 권두시(김추연)	6
▶ 원장님 인사말(1)	7
▶ 특집 : 간추린 안성 문화관련 글 모음	
☞ 안성의 역사 (조선시대)	8
☞ 안성군 「신증동국여지승람」	17
☞ 안성의 역사(근, 현대)	34
☞ 전근대 안성 지역의 교육기관	42
☞ 선비와 선비정신	58
☞ 안성장시에 대하여	69
☞ 안성 지역문화	96
☞ 죽주 향약과 자치정신	101
☞ 안성 방각본의 판본연구	116
☞ 세시풍속	131
☞ 칠장사를 찾아서	153
☞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묘비를 세운 내력	170
☞ 영창대군 제정 참배기	172
☞ 죽주 산성	176
☞ 안성 미륵과 석불신앙에 대한 고찰	185
▶ 문화원회원의 글	
☞ 전통예절	199
☞ 태국문화유적탐방	203
☞ 새해맞이 시민축제 자원봉사	205
▶ 사진으로 본 2007년 안성문화원 활동	207





▶ 안성시 문화재 현황 212

▶ 문화원 소개

- ☞ 임직원 소개216
- ☞ 향토사 연구위원 소개217
- ☞ 각 분과위원회 소개217

▶ 안내

- ☞ 안성문화원 회원모집218
- ☞ 안성문화 21호 원고모집219
- ☞ 편집후기220





해 맞 이

- 안성시 해맞이 축제에서 -

시 : 김 추 연

장미빛 손가락을 가진 여신
 에오스가 새해 새벽을 가리킨다
 관해봉(觀海峯) 정수리에 해가 솟는구나
 산성으로 비봉을 안아가며
 시민의 어머니 품이 된 안성의 진산 비봉산이여
 무자년 새해 아침해가 밝았구나
 안성땅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시원, 두둘기 청학이 노래하여
 봉황이 비상하는 안성천이 흐른다
 푸른 생명줄 같은 북대한수(北帶漢水)
 한천(漢川)이 떠를 두른다
 남대평야(南帶平野),
 사갑들은 황금으로 커갈 것이고
 금북정맥(錦北正脈), 동거고악(東據高岳)
 칠현산 관해봉에는
 넓은 서해가 한눈에 든다

호수마다 햇덩이가 불기둥으로 서고
 산천이 타오르는 내혜홀 새해 아침이여
 영원히 같이하는 하늘이 되길 바라오며
 보내는 것과 다가오는 것을 깨닫는다
 무자년 새해 안성이여
 시민의 가슴에 떠오르는 햇살은
 참 눈이 부시다
 밤낮으로 억겁을 익혀온 해야
 이제 당부하노니
 평안한 안성이 되기를
 생성하는 안성이 되기를
 희망의 안성이 되기를
 번영의 안성이 되기를
 기도하느니, 해야 높이 솟아라
 무자년 새해 안성을 위하여.

작가약력

※ 에오스 : 그리스로마신화의 새벽의 여신
 ※ 두둘기 :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강촌

- ▶ 국제 팬클럽 회원
- ▶ 한국문인협회 회원
- ▶ 한국시인협회 회원
- ▶ 안성문화원 이사



■ 권두언

주민과 더불어 전통예절의 역사마을 가꾸도록 ...



안성문화원장 김 태 원

戊子年 벽두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安城文化의 中心을 어떤 분야에 맞추어 전개해야 좋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성문화원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적극협력하시고 동참하시며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가족을 비롯한 안성시민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원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안성문화원은 문화학교 운영으로 역사반, 답사반, 서예반 등과 한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향토문화역사반을 운영하므로써 지대한 관심과 호응을 얻어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안성시 시지편찬사업을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안성의 역사문화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저서도 냈고 토론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금번 안성문화원이 주관하는 안성시 시지편찬사업에서 바로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성의 전통문화를 가꾸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이 완성되면 안성인의 호국정신, 선비정신, 장인정신, 예인정신의 4대 정신 중에 선비정신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참되고 다운 사람을 교육에 참여시켜 안성 덕봉선비 마을이 최소한의 우리 예절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주민과 더불어 전통예절의 역사마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문화에 많은 관심과 주민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리며 금번 문화지는 이미 발간했던 기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참고할 역사들을 간략히 요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안성군과 양성현은 태종 13년에 충청도에서 경기좌도로 이속되어 당시 수원 도호부 관할에 속했다. 죽산이 충청도 청주목 관할에서 경기도에 이속된 것은 세종 16년이었다. 한편 태종 13년에는 고려시대의 죽주(竹州)가 죽산으로 지명이 바뀌었다.³⁾ 죽주가 죽산으로 바뀐 것은 지방제도의 격(格)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군(郡)과 현(縣)의 이름에 주(州)자가 들어가는 것은 부(府)나 목(牧)과 격(格)이 맞지 않으므로 산(山)이나 천(川)으로 바꾸어 구별하려고 한 것이다. 선조 말년 죽주산성의 축조와 관련하여⁴⁾ 안성을 죽산에 합속하여 죽산 부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안성백성의 반발이 매우 컸다. 결국 백성들의 반발로 광해군 즉위년 8월에 안성을 분리 독립시켰지만 죽산에 부(府)의 지위를 그대로 두었다.

군(郡)이나 현(縣)같은 일반 행정구역 외에도 역(驛)이나 원(院) 또는 진(津)이나 도(渡)같은 교통 통신과 관련된 특수한 행정구역도 있었다. 안성지역에는 역과 원이 여러 개가 설치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1454년:단종2년) 기록된 역원(驛院)을 보면 안성지역에는 강부(康富)역, 양성에 가천(加川)역과 죽산에 분행(分行)역과 좌찬(佐贊)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⁵⁾

2. 사회적 제 양상

죽산과 양성은 교통상의 요지로 종종 왕의 거가가 머물기도 했다. 세조는 양성에 이르러 주연을 베풀고, 시를 지은 일도 있다.(세조11년)

양성에는 괴태길곶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목장이 하나 있어 수초가 풍부하고 양질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일찍이 세종 13년 경부터 말(馬)을 방목할 만한 곳 중의 하나로 주목받았는데, 세종 21년부터 종묘제를 비롯한 국가의 제수에 사용하는 소(牛)중의 일부를 이곳에서 골라 쓰기도 하였다.⁶⁾

3)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성군, 죽산현, 양성현 조

4) 죽산은 교통상의 요지였던 만큼 죽주산성을 수축하지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선조 28년 유성룡이 무한성과 죽산의 취봉을 수축하지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죽산 취봉은 한 장정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의 군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협고한 곳이라고 하였다. 또 선조 36년에는 비변사에서 수축을 건의한다. 결국 임진왜란의 여파로 죽주산성은 수축되게 되는 것이고 이 공사의 여파로 안성의 사민이 직업을 잃고 떠도는 자가 많이 생겨, 죽주산성이 완공된 후 원래대로 복원한 것이다.

5) 『조선왕조실록 안성관계기사집성1』 안성문화원, 1998, p298-301

6) 지금은 행정구역상 평택관할이다.



안성, 죽산, 양성 일대에는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지진, 우박 등 여러차례 재해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구휼정책이 베풀어졌다.

조선시대의 안성은 한성에서 삼남으로 통하는 길목에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부수하여 조선후기에는 전국적 규모의 시장이 발달하여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집산되었다. 하지만 도둑이 성행하게 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살인강도나 강간죄를 범하는 인물들도 없지 않아서 때로 읍호가 강등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전란과 역모사건 등에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세종 18년에는 양성에서 두박신을 모시는 사교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중한 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의 강도, 강간, 살인 등에 관한 자료는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 64-66에 자세하다.

도둑과 관련하여서는 임격정과 장길산이 안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임격정이나 장길산 모두 정사의 기록에 의해서는 안성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없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임격정과 장길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통해 이들의 안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⁷⁾

3. 유교와 불교

칠장사와 관련하여서는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가 폐서인되었다가 인조 반정으로 대비로 복호된 후 칠장사를 영창대군의 원당으로 삼고 크게 중창하였다고 한다.⁸⁾

석남사는 태종 7년 12월에 의정부의 계문에 따라 資福寺에 선정되었고,⁹⁾ 청룡사에는 한때 공양왕의 어진이 모셔지기도 했었고¹⁰⁾ 인평대군(1622-1658, 인

7) 홍명희『임격정』, 황석영『장길산』참고, 특히 안성의 칠장사에는 임격정이 그 스승 병해대사를 위해 만들었다는 목불이 전해지고 있다. 참고로 홍명희 선생의 고향은 충북 괴산인데, 사건으로는 병해대사와 임격정의 7형제는 해소국사와 7인의 도둑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또한 황석영의『장길산』은 남사당과 관련해 주목된다.

8) 칠장사에는 이때 인목대비가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친필축자가 남아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老牛用力已多年, 額破皮穿只愛眼, 犁耙巴巴休春兩足, 主人何苦又加鞭>
 이 축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실린 <칠장사를 찾아서> 참고

9) 안성문화원 『조선왕조 실록 안성관계기사집성1』, 1998, p55-56, 『태종실록』권 14 7년 12월

10) 안성문화원, 1998 앞의 책 p217, 『세종실록』권 78 19년 7월17일 을사

조의 셋째아들이 원당으로 삼기도 했다.¹¹⁾ 한편 서운산은 국가에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었다.¹²⁾

현재 안성에서 유교와 관련된 유적을 든다면 안성·양성·죽산의 향교, 안성의 객사, 그리고 덕봉서원과 안성공원의 역대 안성지방 수령의 공덕비 등이 대표적이다

안성객사는¹³⁾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이 쓰인 기와는 조선 숙종 21년(1695)에 고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원래 읍내의 관아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08년에 안성군 도서관으로 개축되고, 다시 1932년 명륜여자중학교의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졌다가 1995년에 해체·복원되어 안성문화원 앞 부지에 새로 세워졌다. 업무를 보던 정청은 앞면 3칸·옆면 3칸에 지붕 옆면에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하고 있는 맞배지붕이며, 양 옆에는 동·서 익헌이 붙어있는데 앞면 2칸·옆면 2칸에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 붙어있는 형식이다. 정청은 기둥머리 위에만 지붕의 처마를 받치는 공포를 얹은 주심포계 양식이다. 기둥 높이에 비해 기둥 사이의 거리가 좁고 가운데가 가늘게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가운데를 약간 굽게 하는 배흘림기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해체·수리 때 조사한 결과 일제시대에 옮겨지면서 기둥 아랫부분이 잘려나가고 기둥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어서 생긴 현상이다. 당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동 익헌의 규모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또한 창호와 벽체, 그리고 내부의 가구구조는 완전히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이 객사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고려 주심포계 양식의 건물로 건축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안성향교[安城鄉校]¹⁴⁾는 1530년 이전에 창건되었으며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안성향교에서 주목할 만한 구조물은 풍화루인데 풍화루는 정면 11칸, 측면 1칸의 2층 누각인데 수평성이 매우 강조되어 외관이 장엄하다. 하층에는 통로가 나 있고 상층에는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누마루(다락같은 한 층 높게 만든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연대가 오래 되지 않았

11)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청룡사 사적비 참고, 1999, p248

12) 『증중실록』 권 59, 22년 5월; 『증중실록』 권 70, 26년 5월, 안성문화원 『조선왕조 실록 안성관계기사집성4』, 2001, p102 ; p124

13) 안성객사에 대해서는 『안성객사 해체, 증건 공사 보고서』(2000, 안성시)를 참고

14) 이하 향교에 대해서는 『안성의 4대 정신』(1998, 안성문화원)을 참고



으나, 독특한 건축 형식과 짜임새 있는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양성향교[陽城鄉校]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1530년 이전에 창건되어 1774년(영종 50)에 중창, 1898년과 1917년에 중수되었다. 최근에는 1985년에 중수되었다.

죽산향교[竹山鄉校]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 배치형식으로, 태종 13년(1413)에 창건된 것으로 임란이후 지금의 자리로 이전 건축되었고 1972년에 담장을 신축, 1989년에 외삼문을 복원했다.

덕봉서원(德峰書院)¹⁵⁾은 1695년(숙종 21) 지방유림들의 발의로 오두인(吳斗寅)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에 '德峰(덕봉)' 이라고 사액되어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94년(정조 18) 강당을 중수하였다.

이 서원은 흥성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전국의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며, 선현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그 뒤 1979년 사우(祠宇)를 중건하고 1984년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⁶⁾

도기동에 있었던 도기서원(道基書院)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 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68년(현종 9년)에 창립된 것으로 1669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지금은 그 자리만이 알려져 있다.

비봉산 남쪽 기슭에 있던 남파서원(南坡書院)은 일명 봉양서원(鳳陽書院)이라고도 하였고 1692년(숙종 18년) 남파 홍우원(洪宇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던 서원이다.

이 밖에 서원으로 사액되지 못했지만 서원의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동안강당(東安講堂)이 있었다. 동안강당은 당초 유언집(俞彦鏞)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해서 1786년(정조 10년: 추정)경에 세운 것으로 유언집의 아우인 유언호(俞彦鎬)사후에는 그를 추모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15)이하 서원과 동안강당에 대해서도 『안성의 4대 정신』(1998, 안성문화원)을 참고

16)덕봉서원에서는 최근에도(2002년) 서원지를 간행한 바 있다.



4. 임진왜란과 안성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은 교통의 요지이다. 삼국시대부터 영남대로 삼남대로의 요충에 위치한 안성지역도 임진왜란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비변사의 보고에 의하면 경기지역에서는 안성군의 토민이 제일먼저 창의해 향병을 결집하여 지역을 보전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은 가토오와 고니시가 이끄는 왜군의 북상로에 위치하여 분탕을 겪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주둔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실록에는 왜란 초기 이덕형이 북상하는 왜군에게 화의를 요청하러 충주를 향해 남하하던 중 용인에 이르렀을 때 왜군은 벌써 죽산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592년 11월 말에는 용인 금령역에서 패한 왜구 4,500명이 죽주성에 머무르며 기회를 보았다는 기록도 있다.¹⁷⁾ 왜군이 군사적 요지인 죽주산성을 장악하자 이를 빼앗으려는 관군과 의병들의 싸움도 더욱 치열해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라도 초모사(招募使) 변이중의 죽주산성 탈환작전이다. 변이중은 1593년 1월 30일 경기도 조방장 홍계남의 지원을 받아 소 200마리를 앞세우는 ‘우차지계(牛車之計)’를 써서 적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고,¹⁸⁾ 의병활동으로 익산 군수를 제수 받은 전라도 의병장 출신의 황진은 1593년 2월 30일 재차 공격을 시도하여 결국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의 승리로 왜군은 음죽을 거쳐 충주, 상주까지 퇴각하였다.¹⁹⁾

왜란이 시작된 후 안성지역에서도 전공을 세운 인물들이 여러 명 배출되었다. 오정방, 홍자수, 홍계남, 이덕남, 김충수는²⁰⁾ 그 가운데 대표적이다. 오정방은 양성 덕봉(퇴)리 출신으로 무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왜란 중에는 도사(都事) 벼슬에 있으면서 함경도 영흥에서 의병 수 천을 모집하여 큰 전공을 세웠다. 이 전공으로 부령부사로 특진하였으며, 명나라 원군의 보급을 잘 담당하여 경상병사 겸 진주목사가 되었다. 홍계남은 부친 홍자수의 뒤를 이어 고종사촌 이덕남과 함께 안성에서 기병하여 의병 3천 여 명을 규합한 뒤 여러 전투에서 큰 전과

17)

17) 『선조실록』 권 36

18) 이때 활용한 무기가 <북개전차대>인데 그 전투 모형도가 안성맞춤 박물관에 그려져 있다.

19) 『안성군지편찬위원회』, 1990

20) 홍계남과 이덕남은 외사촌 지간이었다. 즉 홍계남의 아버지 홍자수가 이덕남의 외삼촌이었다. 홍계남은 선조 23년에는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고, 이덕남 장군이 전사하자 의병장 광재우는 그 제문에서 이덕남 장군의 지략을 제갈공명에 비유했다. 이들이 활약한 곳은 서운산성을 비롯한 서운면, 미양면 일대이다.



를 올렸다. 전공으로 경기도 조방장 등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다.

5. 이인좌의 난과 안성

영조 4년(1728)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은²¹⁾ 조선의 정치구도 및 지방지배정책을 크게 바꿔 놓은 사건이었으며, 많은 지방 사족집단들이 명멸하여 향촌사회를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경종 때 신임사회로 노론 4대신을 죽인 소론(小論)이 경종 사후 노론(老論)의 추대로 영조가 즉위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소론(小論) 강경파와 갑술환국 이후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남인의 일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²²⁾ 사건은 윤희의 손자사위였고 남인파도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인좌를 중심으로 태인현감 박필현, 전라도에 유배되었던 박필몽, 정온의 4대 손으로 경상도지역의 명문가였던 정희량 등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하지만 1727년(영조 3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온건파(완소)가 등용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은 소론 내부의 위기의식을 가중시켜 김중만, 최규서 등의 고변으로 이어졌다. 결국 사태가 위급하게 전개되자 이인좌 권서봉 등은 양성(현 평택시 소사동)까지 올라와서 군대를 모집하여 한양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자 청주성을 함락시켰으며, 군대를 끌고 영남대로를 따라 진천을 거쳐 안성으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반란군은 전라도와 영남의 동조세력과 합류하지 못하면서 전력의 분산되어 같은 소론계열의 오명항, 박문수 등이 이끄는 토벌군에 의해 서운산성, 죽산전투에서 잇달아 패하였고,²³⁾ 영남의 반란군도 지방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사건은 18세기 조선의 정치 뿐 아니라 안성지역의 사회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먼저 이 사건으로 소론(小論)계열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노론(老

21) 일어난 해의 간지를 따서 무신란(戊申亂)이라고도 한다. 소론은 경종 연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노론과의 대립에서 일단 승리하였으나,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하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박필현(朴弼顯) 등 소론의 과격파들은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며 경종의 죽음에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밀풍군 탄(密豐君 坦)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남인들도 일부 가담하였다. 이인좌는 1728년(영조 4) 3월 15일 청주성을 함락하고 경종의 원수를 갚는다는 점을 널리 선전하면서 서울로 북상하였으나 24일에 안성과 죽산에서 관군에 격파되었다.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인좌를 잡은 것은 村民 신길만을 비롯한 24인의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공으로 신길만은 정2품 벼슬을 하사받게 된다. 최근 안성문화원에서는 죽산면 칠장사 인근에서 이 신길만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을 발견하였다.

論)에 의한 일당전제화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영조는 탕평책(蕩平策)의 명분을 얻어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지방정치에 있어서는 지방사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수령권을 강화시켜 지방관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소론(小論)계열이 많았던 안성지역은 반란세력으로 권서봉·권서린·목함경·정세윤·윤취상·서문석 등이 가담하였다.²⁴⁾ 반면 토포군으로 활약한 인물로는 원곡면 지문리 등에 근거를 두고 있던 봉조하와 최규서, 양성의 김중만과 덕봉리 해주 오씨와 같은 집안인 오명항, 옥천현 병천이 고향인 박문수 등이 있다.²⁵⁾ 결과적으로 반란세력에 가담한 집안은 몰락하고 토포세력도 점차 중앙에서의 권력을 상실하면서 지방 세력화하였다. 이와 함께 안성지역의 여러 사족들이 반란에 가담하고, 양성·죽산 등이 반란군의 주요 진격로로 이용되면서 안성지역의 수령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반란이 일어났던 영조 4년(1728) 3월 경 양성현의 현감이었던 한일운은 적이 올라온다고 하자 지레 겁을 먹고 야반도주하여 파직당했으며, 뒤 이어 부임한 김태수도 관아를 지키지 않고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다가 파직 후 먼 지역으로 유배당했다. 또한 죽산부사 최필번은 반란군이 죽산으로 밀려들자 36계 출행랑을 쳤다가 잡혀 국문을 당하고 죄가를 받았다.

6. 장시의 발달과 안성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역에서 시작된 장시는 16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안성시장은²⁶⁾ 전국의 재화가 많이 집중되는 곳으로 알려졌던 바²⁷⁾ 전국 15대시장²⁸⁾ 혹은 전국 3대시장의 하나로 꼽혔고, 박지원이 지은²⁹⁾ 허생전에서 주인공의 활동지로 묘사되기도 할 정도였다. 이러한 안성시장의 발달은 결국 조선말에 남사당과 바우덕이라는³⁰⁾ 전설 같은 사실을 만들어 내는 배경

24) 안성시·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5) 관련 문화재로 <김중만 장군 영정>과 <오명항 장군 토적 송공비>가 있다.

26) 안성장시에 대한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에 있는 허영란의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 유통구조의 재편」 참고

27) 정조 14년경에 좌의정 체재공은 수원의 새고을에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방안으로 새로운 시장조성을 제시하면서 전주나 안성 못지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안성의 시장규모가 대단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조실록』권 29, 14년 2월)

28) 서영보, 『萬機要覽』(1808)

29) 박지원이 허생전의 배경으로 안성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싶다. 대덕면 건지리에 묘가 있는 안성출신의 실학자 “유언호” 선생과 연암의 교분은 막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언호 선생에 대해서는 최근 2004년과 2005년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30) 최근 소설가 이재운이 『바우덕이』명의 소설을 발간하였고, 시인 김윤배가 장시 『사당 바우덕이』를 낸바 있다.



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기, 한지, 꽃신, 갓수선 등 각종 수공업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여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또한 장시의 발달은 조선후기에 발달한 방각본 출판물이 현재의 보개면 기좌리를 중심으로 출판되었다. 안성의 방각본은 경판, 완판과 더불어 전국 3대 방각본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방각본의³¹⁾ 성행은 결국 안성시장을 배경으로 그 수요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7. 그 밖의 인물

태종 원년에 송의 제도인 등문고(登聞鼓 - 일명 신문고)를 처음으로 설치하였을 때 이를 건의한 인물은 안성학장 윤조(尹槩)였다.³²⁾ 세종 때의 최만리는 한글창제를 반대한 것으로 유명하며,³³⁾ 세종 때의 학자인 이순지도 안성출신이었다. 세조 때의 공신 이숙번은 안성군의 작호를 받았으며,³⁴⁾ 도기서원에 배향되었던 사계 김장생은 안성군수를 지낸 예학의 대가이다.

효자, 효부에 대한 자료는 안성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³⁵⁾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안성지역출신의 수령 명단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47-64에 자세하다.

31)안성 방각본에 대해서는 『안성판 방각본』(2002, 안성문화원)을 참고

32)『태종실록』권2, 원년 7월 18일

33)최만리는 한글창제에 반대한 것만 알려졌지 그 학자적 풍모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4)이숙번은 '안성군'의 봉호를 받았지만 그 밖에 안성과의 연관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35)『내 고장 효자 효부 사료』, 1996, 안성문화원



안성군(安城郡)

동쪽은 죽산현(竹山縣) 경계까지 16리 이고, 남쪽은 충청도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25리 이며, 서쪽으로는 양성현(陽城縣) 경계까지 89리 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백52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내혜홀(奈兮忽)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백성군(白城郡)이라 고쳤다. 고려 초기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현(縣)으로 만들었고, 현종(顯宗) 9년에 수주(水州)에 예속(隸屬) 시켰다. 뒤에 천안부(天安府)에 이속(移屬)하였고, 명종(明宗) 2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공민왕(恭愍王) 10년에 홍건적(紅巾賊)이 송도(松都)에 침입하였으므로 임금이 남쪽으로 가는데,



적이 선봉(先鋒)을 보내어 항복하라고 부르니, 양주(楊州), 광주(廣州) 일대 주군(州郡)이 가는 곳마다 그 칼날을 꺾는 자가 없었다. 오직 안성 고을 사람이 항복하는 체 하고, 연회를 베풀어서 적군을 호궤하다가, 취한 틈을 타서 괴수 6명을 베어 죽였다. 이 때문에 적이 감히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다. 11년에 그 공으로 군(郡)으로 승격(昇格)되었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태종 13년에 충청도에서 본도에 예속 시켰다.

공민왕이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수주(水州)의 양량(陽良)·감미탄(甘彌吞)·마전(馬田)·신곡(薪谷)등의 네 부곡(部曲)을 떼어 주었는데, 뒤에 김용(金鏞)이 뇌물을 받고 마전, 신곡을 수주로 돌려 주게 하였다. 본조 공정왕 원년에 또 양량을 쪼개어서 양지현(陽智縣)을 설치하였다.

〈관원〉 군수·훈도(訓導) : 각 1명이다.

〈군명〉 내혜홀(奈兮忽)·백성(白城)

〈성씨〉 본군 : 이·김·조(趙)·설(薛)·장(張)·경(敬) 감미탄(甘彌吞) : 유(柳)

〈형승〉 천흥산(天興山)과 청룡산(靑龍山)이 병풍처럼 웅위하고 고리처럼 둘러있다 : 권근(權近)이 지은 극적루(克敵樓) 기문(記文)에 있다.

〈산천〉 서운산(瑞雲山) : 군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 서쪽 봉우리에 단(壇)이 있고, 단 밑에 우물 셋이 있다. 가뭄을 만나서 우물을 수리하고 비를 빌면 문득 영험이 있다.

백운산(白雲山) : 군 동쪽 14리 지점에 있다.

보 산(寶 山) : 군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

구포산(九苞山) : 군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비봉산(飛鳳山) : 군 북쪽 2리 지점에 있으며, 진산(鎭山)인데 옛 성터가 있다.

남 천(南 川) : 군 남쪽 2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둘인데, 한 가닥은 백운산 북쪽으로 나오고, 한 가닥은 남쪽으로 나온다. 이것이 합류하여 양성현, 홍경천(弘慶川)으로 들어간다.

목동지(木洞池) : 군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토산〉 실·삼·자기(磁器)·안식향(安息香)·지황(地黃)

〈누정〉 극적루(克敵樓) :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권근이 지은 기문(記文)에 “나의 벗 정군(鄭君) 수홍(守弘)이 성의 낭관(省郎官)으로 안성 수령이 되어 나왔다. 정사를 잘하니 백성이 의지하여 편하여졌다. 〈이에〉 그 공관을 수리하고 고을 학장(學長) 정한(鄭翰)을 서울로 가게하여 양촌(陽村)의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루(樓)는 본래, 거창(居昌), 신군(愼君), 인도(仁道)가 이 고을 원이었을 때 설치한 것이다. 지정〔至正 : 원(元)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신축년에 홍건적에게 송도가 함락되고 승여(乘輿)는 파천(播遷)하였을 때 이 고을에서 북쪽으로 30여 주는 풍문(風聞)만 듣고 항복하였다. 심지어 공복(公服)을 갖추고 나가서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늘까지 뒤덮을 듯한 기세가 남으로 넘치니, 장차 온 나라가 같이 망해도 막을 수 없었는데 오직 이 고을이 남보다 의기를 분발(奮發)하여 항복하는 체 하며 잔치를 벌여 적군을 호궤하였다. 적이 취한 다음 섬멸하니, 적은 이 때문에 다시 남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흥복(興復)하는 공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 고을의 의기와 공렬(功烈)을 포창하여 지관(地官)으로 승격시켰다.

다음 해 계묘년에 신군(愼君)이 원으로 와서 이 누를 지었다. 그런즉, 이 누는 적을 대항한 공과 지관으로 승격된 영광을 표한 것이니, 중한 뜻을 가졌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신군이 이 누를 짓기는 하였으나 누 이름은 짓지 못하였고, 또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지도 못하였다. 지금 벌써 3기(紀)라는 오랜 세월을 지나서 늙은 사람은 죽었고, 장성했던 사람은 늙었다. 또 오랜 시일을 지나게 되면, 이 고을이 국가에 공이 있었고 이 누가 고을에 중한 뜻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은 장차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옛 규모대로 수리하여서 찢은 부분은 바꾸어서 견고하게 하고, ‘극적루(克敵樓)’라 명명(命名)하였는바, 자네 글을 받아서 후일 증거로 삼고, 고을 사람에게 전인(前人)의 공렬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 누의 경치를 말하자면, 가깝게는 산이 동북쪽에 진좌(鎮坐)하여 푸른솔과 높은 나무가 울창하고 그윽하며 남쪽에는 큰 냇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그 안쪽에 10여 채 소민(小民)의 집이 띄엄띄엄 있고, 바깥쪽에는 편평한 밭 수십 이랑이 펼쳐져 있다. 뽕나무·삼이발 경계에 잇닿았고 벼농사가 논배미에 가득하다. 봄에 갈아서 여름에 김매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 무릇 고을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일이 있는 자는 모두



고개만 숙이면 볼 수 있다. 멀리로는 천흥, 청룡의 여러 봉우리가 머리를 던지시 내밀면서, 조회(朝會)하는 듯, 읍(揖)하는 듯, 병풍처럼 웅위하고 고리처럼 벌여서, 시계(視界)가 끝이 없다. 옛날에 한문공(韓文公)이 등왕각에 올라보지 못했으나, 기문(記門)하였으니,¹⁾ ‘자네도 이 누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써 사퇴(辭退)하지 말았으면 다행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기를 왕씨(王氏)가 고려를 건국(建國)한지 5백 년 동안에 도둑의 침해를 매우 받은 것이 충렬왕(忠烈王) 경인년에 있는 합단(哈丹)의 침입과, 공민왕 신축년(辛丑年)에 있는 홍건적의 변(變)이었다. 철령(鐵嶺)을 지켜내지 못하니, 합단이 마구 들어와서 빈 고을에 나아가듯 하였다. 원주(原州)에 들어오자 충갑(沖甲, 원충갑)이 필부(匹夫)로서 팔을 뻗내며 호통쳐서 도둑을 죽이니 지금까지 아름답게 여긴다. 송동(宋東)이 함락되니 홍건적이 더욱 성해져서, 군사를 갈라 남쪽으로 향할 적에 가는 곳마다 바람에 쓸리 듯 하였고, 강물을 터놓은 듯한 도도한 기세를 막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고을 사람이 충의를 다해 적군을 섬멸하였다. 우뚝한 제방이 되어 옆으로 뻗치는 적군의 기세를 막았으니, 그들의 거룩한 공은 충갑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다. 그 사실을 특별히 적어서 만세에 충의를 권장하는 표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충의는 인도(人道)의 큰 대목이며, 왕교(王教)의 근본이다. 정군(鄭君)은 일찍부터 충효한 자질로써 인의(仁義)를 강명(講明)하였다. 고상한 뜻 가짐과 확고한 절조는 진실로 우뚝하여 짝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 고을 정사에 임하게 되어서는, 첫째로 이 사실을 높이 들어 이 누에 이름 하여서 후인에게 무궁하도록 장려하였으니, 이 점도 또한 적을 만하다. 후일, 이 누에 오르는 자가 전인의 공렬을 추상(追想)하고 정군의 뜻을 생각하여 타고난 덕을 좋아하는 양심의 감발(感發)하는 바 있으면 충의와 절개 있는 선비가 성하게 나올 것이다. 그 왕화(王化)에 도움됨이 어떠하겠나. 어떤 사람은 ‘적을 이기는 공은 반드시 위란(危亂)을 겪은 다음이라야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오랜 세대에 드물게 있는 것이다. 절의(節義)있는 사람이 비록 감발할 바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느 곳에 그 뜻을 나타내겠는가’ 하여, 나는 말하기를 ‘일에 크고 작음은 있으나 그 이치는 같다. 무릇 물욕이 내 마음의 의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다 적이다. 탐심(貪心)은 염치를 해하고, 모진 것은 인(仁)을 해하며, 아부(阿附)는 공(公)을 해하고, 편곡(編曲)은 정의를 해하는데, 모두 사람이 적으로 돌려서 극복(克服)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극복하는 마음을 유(類)에 따라서 커지

게 하고 사물에 추급(推及)하면, 일상생활에 무릇 스스로 그 사심(私心)을 이겨서 천리(天理)를 회복하면, 어디를 가나 적을 극복하는 공이 아님이 없으며, 의(義)를 두루 다 쓸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공자(孔子)가 안연(顔淵)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사심을 극복하여 천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인(仁)이다' 하였다. '이 누에 오르는 자가 이것으로써 일삼는다면, 정군의 뜻은 거의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하였다.

〈학교〉 향교 : 군(郡)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역원〉 강부역(康富驛) : 군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광실원(光實院) : 군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대비원(大悲院) : 군 서쪽 5리 지점에 있다.

〈불우〉 청룡사·석남사(石南寺) : 모두 서운산에 있다. 금강사(金剛寺) : 백운산에 있다. 봉안사(鳳安寺) : 구포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社稷壇) : 군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 : 향교에 있다. 성황사(城隍寺) : 군 북쪽3리 지점에 있다. 여단 : 군 북쪽에 있다.

〈고적〉 감미탄 부곡, 마진 부곡 : 모두 군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명환〉〈본조〉 정수홍(鄭守弘) · 김겸(金謙)

〈인물〉〈고려〉 이영(李永) : 자는 대년(大年)이다. 서리(胥吏)가 되어서 서류를 정조 주사(政曹主事)에게 올리면서 음하지 않았다. 주사가 노하여 꾸짖으니, 영은 곧 그 서류를 찢으면서, "나도 과거 보아서 조정에 벼슬할 것인즉, 너희들에게 무슨 음을 하리요" 하였다. 숙종조(肅宗朝)에 을과(乙科)에 뽑혔고, 인종(仁宗) 초년에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되었다. 이자겸(李資謙)이 한안인(韓安仁)을 죽였는데, 영은 한의 매부(妹夫)로서, 연좌(緣坐)되어 진도(珍島)에 유배(流配)되었다. 그의 어머니와 자식도 적몰(籍沒)당해, 장차 노비(奴婢)로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평소 일을 반성하여도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므로 죽음을 견디고 기다린 것인데, 만약 늙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천한 노예가 된다면, 내 구차하게 살아서 무었하랴"하고, 이내 말술을 마시고 분하게 여기다가 죽었다. 자겸이 술사(術士)를 보내어 길섶에 묻었더니, 마소가 그 무덤을 밟지 않았다. 자겸이 폐망하자 첨서추밀원사(僉書樞密院事)로 추증(追贈)되었다. 김유성(金有成) : 15



세 때 과거에 올라, 덕원부서기(德源府書記)로 조용(調用) 되었고, 태복윤(太僕尹)까지 하였다.

〈본도〉 이숙번(李叔蕃) : 우리 태종조(太宗朝) 정사공신(定社功臣)이다. 벼슬은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고, 안성군(安城君)으로 봉함을 받았다.

〈신증〉〈호자〉〈본조〉 이윤종(李閔宗) : 서리(書吏)이다. 아버지가 오랜 병중(病中)이었는데,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여서 병이 나았다. 지금 임금 10 년에 정려(旌閔)하였다.

〈제영〉 이락우청홍행화(籬落雨晴紅杏花) : 허식(許湜)의 시에, “방탕한 객(客)은 본래 조롱(鳥籠) 밖 새와 같은 것, 세상사람 어느 누구 우물안 개구리를 부러워하리. 산 고을에 오가면서 봄 경치 찾으니, 울타리에 비개었는데 살구꽃이 붉다” 하였다. 지탁서남옥야평(地拓西南沃野平) : 최부(崔府)의 시에, “산은 동북쪽을 막아서 저절로 성이 되었고, 지역은 서남으로 트이었는데, 기름진 들판이 질편하다” 하였다. 십실풍연사무성(十室風烟似武城) : 함부림(咸傅霖)의 시에, “열 집 풍경은²⁾ 무성과 같은데, 남쪽 들은 기름지고, 사망 산 편평하다. 사군(使君)이 현가(弦歌)로써 다스리는데, 고을에는 멸명(滅明)³⁾ 같은 사람 몇이나 있을까” 하였다.

(비고)

〈연혁〉 태종 13년 충청도로부터 경기도에 예속시켰다.《文獻備考》

〈성시〉 서운고성(瑞雲古城) : 둘레가 3리 이다. 금강고성(金剛古城) : 동남쪽으로 15리 인데 둘레가 5리 이다. 비봉고성(飛鳳古城) : 둘레가 2리 이다. 토성(土城) : 남쪽으로 15리 이며, 의병 홍계남(洪季男)이 성을 쌓아 싸운 곳인데, 지금은 진터(陣基)라 부른다.

〈주〉 1) 한문공(韓文公)은 한퇴지이다. 그는 원주 자사(袁州刺史)로 있을 때에 등왕각(騰王閣)의 기문을 지었는데, 보지 못하여 기문 짓노라고 말하였다.
 2) 공자가 열 집(十室) 못 되는 동네라도 충성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한 말이 있으므로, 이 안성은 조그만 고을이지만, 옛날 공자의 제자인 자유(子有)라는 사람이 원노릇하던 무성(武城)과 같이 충성되고 신용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그 무성에서 자유가 현가(絃歌), 곧 음악을 이용하여 백성을 교화시켰다 한다.
 3) 남대 멸명(滄臺滅明)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무성 사람으로 자유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누정**〉 경설정(鏡雪亭) : 읍내에 있다. 비각(碑閣) : 남쪽으로 3리에 있는데, 영종(英宗) 무신년 오명항(吳命恒)의 승첩비(勝捷碑)이다.

〈**방면**〉 군내(郡內) : 끝이 10리 이다. 가사(加土) : 동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0리 이다. 가지곡(加之谷) :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북좌촌(北佐村) :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덕곡(德谷) : 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 이다. 목촌(木村) :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송죽촌(松竹村) :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5리 이다. 진두(辰頭) :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우지곡(于只谷) : 서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 이다. 대문리(大門里) : 처음이 10리, 끝이 30리 이다. 죽촌(竹村) : 서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5리 이다. 말토리(末土里) :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15리 이다. 거호곡(居乎谷) : 동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15리 이다. 잉산곡(荇山谷) : 남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0리 이다.

〈**사원**〉 도기서원(道基書院) : 현종 계묘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김장생(金長生) : 경도(京都) 문묘 편에 있다.

죽산현(竹山縣)

동쪽은 음죽현(陰竹縣) 경계까지 22리 이고, 남쪽으로 충청도(忠淸道) 진천현(鎭川縣) 경계까지 26리 이며, 서쪽으로는 안성군(安城郡) 경계까지 23리 이며, 북쪽으로 양지현(陽智縣) 경계까지 49리 이며 서울까지 1백 70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개차산군(皆次山郡)인데, 신라에서 고쳐 개산(介山)으로 일컬었다. 고려 초년에 죽주(竹州)로 고치었고, 성종(成宗)때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때 폐하고, 현종(顯宗) 9년에 광주(廣州)에 붙이였으며,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현감(縣監)으로 만들었다(무릇 군(郡)과 현(縣)의 이름이 주(州) 자(字)를 가진 것은 도호부 이하는 모두 산(山)과 천(川)의 글자로 대신



하여 부(府)·목(牧)과 구별하였다. 뒤의 것은 이것과 같다. 세종(世宗) 16년에 충청도로부터 옮겨 경기(京畿)에 예속시켰다.

〈관원〉 현감(縣監)·훈도(訓導) : 각 1명이다.

〈군명〉 개차산(皆次山), 개산(介山), 음평(陰平), 연창(延昌), 죽주(竹州)

〈성씨〉 본현(本縣) 최(崔), 안(安), 양(梁), 이(李), 유(庾), 민(閔), 김(金), 박(朴), 음(陰)

〈산천〉 건지산(巾之山) : 현 북쪽 40리 지점에 있다. 정배산(鼎陪山) : 현 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돌을 이고 있는데, 그 돌 구멍에 흰 뱀이 있어 매년 큰 물이 질 때를 타서, 천민천(天民川)에 내려와 사람과 가축의 우환이 되었다. 칠현산(七賢山) : 현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구봉산(九峰山) : 현 서쪽 22리 지점에 있다. 비봉산(飛鳳山) : 현 북쪽 4리 되는 곳에 있다. 생현(柱峴) : 현 동쪽 15리 지점이며, 이천부(利川府) 경계에 있다. 천민천(天民川) : 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근원이 건지(巾之)·정배(鼎陪) 두 산에서 나와, 여주(驪州) 여강(驪江)으로 흘러들어간다. 대사천(大寺川) : 현 남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근원이 칠현(七賢)·구봉(九峯) 두 산에서 나와 천민천(天民川)과 합한다. 월라정지(月羅井池) : 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토산〉 자기(磁器)·도기(陶器)

〈봉수〉 건지산 봉수(巾之山烽燧) : 동쪽으로 충청도 충주(忠州) 망이산(望夷山)에 응하고, 서쪽은 용인현(龍仁縣) 보개산(寶蓋山)에 응한다.

〈누정〉 봉서루(鳳棲樓) : 각사 동쪽에 있다.

〈학교〉 향교(鄕校) : 현 서쪽 3리 지점에 있다.

〈역원〉 분행역(分行驛) : 현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고려(高麗) 김황원(金黃元)이 대간(大諫)이 되어서 여러번 일을 말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러 성산(星山)원으로 나가는데, 길이 이 역말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이재(李載)가 남방으로부터 돌아오자, 이에 시를 지어 주기를 “나뉘어 행하는 길 위에서인들 어찌 시가 없을 손가. 머물러 사신에게 주어서 생각하는 것을 부치노라. 갈대 잎은 소소(簫簫)하니 가을 물 나라요, 강산(江山)은 아득하고 머니 석양 때로다. 옛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이

제 부질없이 탄식한다. 지난 일을 쫓기가 어려우니 다만 스스로 슬퍼 하노라 참으로 그렇구나. 죄를 당하여 장사(長沙)로 귀양가는 손이,⁴⁾ 관직은 낮고 나이는 늙어 귀밀털이 세었도다” 하였다.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누른 진흙 벽(壁) 뒤에 옛날의 시(詩)를 남겼더니, 몽그러져 자취가 없어서 기억할 수 없다. 수양버들은 아직도 일찍이 가던 길에 늘어져 있고, 강산은 오히려 옛날 놀던 때와 같구나. 젊은 미인은 어디 있는고, 부질없이 추억만 한다. 흰 머리로 두 번 오니 가만히 슬프기만 하구나, 부절(符節)을 가지고 다른 해에 비록 이른다 하더라도, 누(樓)에 오를 만한 근력이 먼저 쇠할까 두렵다” 하였다.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청사로 가려 놓은 한 수(首) 시를 읽어 파하고, 인간 만사를 시험삼아 곰곰히 생각한다. 만일 후진(後進)이 선진(先進)을 따르는 것을 잇는다면, 모름지기 지금 때를 가지고 옛 때를 배우라. 관직이 승진되지 못하는 것을 어찌 족히 탄식하라. 귀밀털이 쓸쓸한 것도 슬퍼할 것이 없다. 평생에 다만 하늘이 장차 무너뜨릴까⁵⁾ 두려워하여, 초(楚)나라 손이 미친 듯이 봉(鳳)의 턱이 쇠한 것을 노래한다”⁶⁾ 하였다. 고려 정지상(鄭知常)의 시에, “저물녘에 영곡봉(靈鵠峯) 앞길을 지나서, 아침에는 분행루(分行樓) 위에 이르러 읊조린다. 꽃은 별의 수염을 접하여 붉은 것을 반쯤 토하고, 버들은 꾀꼬리 노래를 감추어 푸른 것이 처음으로 깊도다. 한 뒷마루의 봄빛은 무궁한 흥이요, 천리의 사신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로다. 머리를 중원(中原)으로 돌이키매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흰 구름은 땅에 나직하고 나무는 짹 짹하도다” 하였다.

좌찬역(佐贊驛) : 현 북쪽 50리 지점에 있다.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성을 나온 것을 아쾌라 몇 날이고, 길에 오르니 서늘한 하늘이 기쁘도다. 곤곤(袞袞)하게 세월이 빠르고 소소(簫簫)하게 풍우가 연하였도다. 공명(功名)은 말 등 위에서 수고로 왔고, 돌아갈 뜻은 갈매기 옆에 떨어진다. 이미 부귀도 구할 수 없으니, 억지로 채찍을 잡는 것 말하지 말라”⁷⁾ 하였다.

대평원(大平院) : 현 동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보현원(普賢院) : 현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통리원(通梨院) : 현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



장항원(獐項院): 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 이원(梨院) : 현 서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불우〉 칠장사(七長寺) : 칠현산(七賢山)에 있다.

신우 9년에 왜적이 함부로 내지(內地)에 들어오므로, 충주 개천사(開天寺)에 감추어 둔 사적(史籍)을 여기다가 옮기었다.

권근(權近)이 수찬(修撰) 배원중(裵仲員)을 보내어 사적을 포쇄하는 서(序)에, “본조(本朝)가 바다 동쪽을 차지한 지 수백 년에, 처음에는 국사(國史)를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에 감추었는데, 대개 후세에 난리를 만나서 잃어버릴까 염려함이다. 가야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멀고 험하며, 해인사가 가야산에 있어서는 가장 궁벽하고 깊이 막혔기 때문에, 국가에 비록 변이 있어도 난이 일찌기 미치지 않았으니, 조종(祖宗)의 염려한 것이 심원(深遠) 하였다. 근래에는 왜적을 제어함에 기율(紀律)을 잃어서, 깊이 들어와 주와 현을 도둑질함으로 가야가 거의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홍무(洪武) 기미년 가을에 그 사적을 선산(善山)의 득익사(得益寺)로 옮겼고, 신유년 가을에 조령(鳥嶺)을 넘어 북쪽으로 와서, 충주의 개천사(開天寺)에 수운하였으며, 지금의 계해년 여름에 왜적이 또 충주의 옆 고을에 침입하자, 7월에 또 개천사로부터 죽주(竹州)의 칠장사(七長寺)로 옮기었으니, 땅의 험하고 먼 것도 믿을 수 없고, 적이 감히 깊이 들어오는 것이 이와 같으니, 슬프다. 이것으로 세상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였다.

비족사(飛足寺) : 구봉산(九峯山)에 있다. 장광사(長光寺)·지통사(智通寺) : 모두 비봉산(飛鳳山)에 있다. 응석사(凝石寺) : 생현(生峴) 서쪽에 있다. 고려 명종(明宗)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소향사(燒香寺)로 이 절에 이르렀다. 절 중의 꿈에 태조(太祖)가 명종(明宗)에게 아홉(芽笏) 하나를 주고, 아울러 시를 주기를, “네게 한 아홉을 주노니, 법사(法師)가 모시어 떠나지 않으리라, 거년(居年)은 구구구(九九九)요, 향위(享位)는 칠칠이(七七二)이다” 하였는데, 명종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에 왕위에 올라 재위(在位)한지 28년에 최충헌(崔忠獻)이 폐하게 되었으니, 그 응험(應驗)이 틀리지 않았다.

〈사묘〉 사직단(社稷壇) : 현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 : 향교에 있다. 성황사

(城隍祠) : 현 북쪽 3리 지점에 있다. 여단 : 현 북쪽에 있다.

〈총묘〉 박원형(朴元亨)의 묘 : 현 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안규(安珪)의 묘 : 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고적〉 죽주고성(竹州古城) : 현 동쪽 5리 되는 태평원(太平院) 북쪽에 있다. 둘로 쌓았고 둘레가 3천8백74척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고려 고종 13년 송문주(宋文胄)가 죽주방호별감(竹州防護別監)이 되었는데, 몽고(蒙古)가 죽주성에 이르러 항복을 권유하므로, 성중의 사졸이 나가 쳐서 쫓았다. 몽고가 다시 포(砲)로 성의 사변을 공격하자 성문은 곧 무너졌다. 성중에서도 또한 포를 가지고 마주 공격하자, 몽고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몽고는 또 사람의 기름을 준비하여 짚에 부어 불을 놓아 공격하므로, 성중의 사졸이 일시에 문을 열고 돌격하니, 몽고군의 죽은자가 이루 셀 수가 없었다. 몽고는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마침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문주(文胄)가 구주에 있을 때에는, 몽고의 성에 공격하는 술책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문득 군사들에게 고하기를, “오늘은 적이 반드시 아무 기계를 쓸 것이니, 우리는 마땅 아무 기계를 준비하여 응해야 한다” 하였다. 과연 그 말과 같으니 성중에서 모두 귀산이라고 일렀다.

만선사(萬善寺) :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절은 푸른 풀에 쌓이고 침침하고, 길은 푸른 덩굴 속에 들어가 깊숙하다. 새벽바람에 목탁소리 잦고, 저녁달은 못 가운데 잠겼도다. 푸른 산아 잘 있거라, 벼슬을 그만두어 다시 찾아오련다” 하였다.

연창관(延昌館) : 함부림(咸傅霖)의 시에, “내가 편평하니 들이 넓은 것을 알겠고, 꽃이 떨어지니 봄이 깊은 것을 깨닫도다. 손이 길 연창관에 소나무 바람이 내 꿈을 맑혀 준다” 하였다. 봉업사(奉業寺) : 비봉

〈주〉 5)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장차 시문(斯文)을 망치려면 뒤에 죽는 사람이 시문에 참여할 수 없지마는, 하늘이 시문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광인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6) 초나라 광객(狂客) 집어(接輿)가 공자에게로 지나가며 노래하기를, “봉(鳳)이여, 봉이여, 덕이 어찌 그리 쇠하였는가” 하였다.

7) 공자가 말하기를, “부귀를 구할 수 있다면 말구종꾼 노릇이라도 하겠지만, 구할 수 없다면 나 좋은 대로 하겠다.” 하였다.

8) 춘추시대에 제(齊) 나라와 노(魯) 나라가 문(汶)이라는 내(川)를 격하여 국경을 이루었는데, 제나라에서 항상 침략하여 문천(汶川)의 북쪽 토지를 많이 빼앗아 갔다. 그것을 제관공(濟桓公)이 노나라로 돌려주었다.



산(飛鳳山) 아래에 있다. 고려(高麗) 때에 태조(太祖)의 진영(眞影)을 봉안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12년 2월에 거가(車駕)가 청주(淸州)를 떠나서, 이 절에 들러 진전(眞殿)에 참알(參謁)하였다. 지금은 석탑만 남아있다.

〈명환〉〈고려〉 서원(徐遠) : 정치한 공적이 있어 지금까지 칭송하고 사모한다.

송문주(宋文胄) : 고성(古城)의 주(註)를 보라

〈인물〉〈고려〉 박인량(朴寅亮) : 문종(文宗)때에 과거에 올랐다. 요(遼) 나라가 일찍이 압록강(鴨綠江)을 지나 경계를 범하려 하자, 문종이 사신을 보내어 중지하기를 청하는데, 인량이 진정표(陳情表)를 짓기를, “넓은 하늘 밑이 임금의 땅 임금의 신하 아님이 없는데, 한 자 남짓한 땅을 무얼 반드시 내 영토니 내 다스림이니 하랴”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문양(紋陽)의 옛 밭을⁸ 돌려주었으니, 피폐(疲弊)한 고을을 어루만져 편안히 한 것이요, 장사(長沙)의 졸(拙)한 소매를 돌리어서 융성한 때에 뛰고 춤추었다” 하였다. 요 나라 임금이 이 글을 보고 그 일을 중지하였다. 숙종(肅宗) 때에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고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박경인(朴景仁) : 인량(寅亮)의 아들이다. 젊어서는 힘써 배워서 과거에 올랐고, 여러번 옮겨 좌습유(左拾遺)가 되었는데, 언론이 강하고 곧아서 이럴까 저럴까하는 것이 없으니, 당시의 의논이 중하게 여기었다. 벼슬이 좌복야(左僕射)에 이르고 시호는 장간(章簡)이다.

박경백(朴景伯) : 경인(景仁)의 아우이다. 선종(宣宗)때의 장원으로 과거에 뽑히어, 벼슬이 상서(尙書)에 이르렀다.

박경산(朴景山) : 경백(景伯)의 아우이다. 예종(睿宗) 때에 과거 제이명(第二名)으로 뽑히어 벼슬이 대경(大卿)에 이르렀다.

박서(朴犀) : 고종(高宗) 때 사람인데 구주성을 지켜 공이 있었다. 벼슬은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구성편에 자세하다.

박효수(朴孝修) : 본래 맑은 절조(節操)가 있었다. 여러번 벼슬을 옮겨 대언(大言)에 이르렀다. 윤신걸을 대신하여 선비를 뽑으므로, 임금이 그 청백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어, 은병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제10 28 2023. 12. 28. 14:52:11



(銀瓶) 50개와 쌀 백 석을 하사하고, 학사연(學士宴)을 베풀게 하니 효수(孝修)의 맑은 절조가 더욱 나타났다. 뒤에 연창군(延昌君)에 봉하였다.

박전지(朴全之) : 나이 20살이 못 되어 과거에 올랐다. 원(元)나라 조정에 들어가 명사들과 교류하여 고금·산천·풍토를 상론(商論)하기를 손바닥을 가르치는 것 같이 하였다. 원나라에서 정동성도사(征東省都事)를 제수하였는데, 돌아온 뒤에 충선왕(忠宣王)이 항상 좌우를 물리치고 전지와 더불어 정사를 꾀하고 의논하였다. 여러 벼슬을 거치어 정승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박원(朴遠) : 전지(全之)의 아들이다. 숙종(肅宗)때에 과거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쳐, 우부대언(右副代言)과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다.

박정유(朴挺蓁) : 성품이 너그럽고 넓었다. 숙종(肅宗)때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이르고 시호는 충질(忠質)이다.

안전(安戩) : 젊어서 과거에 올라 벼슬이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이르고 경상(慶尙), 충청(忠淸), 서북(西北) 삼도(三道)의 도지휘사(都指揮使)를 지냈다. 안한평(安漢平) : 벼슬이 문하찬성사 연흥부원군(門下贊成事延興府院君)에 이르고 시호는 양량(襄良)이다. 안극민(安克仁) : 한평(漢平)의 손자이다. 과거에 올라 벼슬이 중대광 우문관 대제학(重大匡右文館大提學)에 이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공민왕(恭愍王) 정비(定妃)의 아버지이다.

〈본조〉 안숙로(安淑老) : 극인(克仁)의 아들이다. 벼슬이 서북면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使)에 이르렀다. 안등(安騰) : 극인(克仁)의 손자이다. 벼슬이 도승지(都承旨)와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으며, 시호는 정경(貞景)이다. 안망지(安望之) : 숙로(淑老)의 아들이다. 벼슬이 함길도 관찰사(咸吉道 觀察使)에 이르렀다. 안맹담(安孟聃) : 망지(望之)의 아들인데, 세종(世宗)의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에게 장가들어 연창위(延昌尉)로 봉하였으며, 시호는 양효(良孝)이다.

박원형(朴元亨) : 과거에 오르고 좌익 익대(左翼翊戴) 공신에 참여하



고, 벼슬은 의정부 영의정 연성부원군(議政府領議政延城府院君)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고, 예종(睿宗)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안초(安超) : 과거에 올라 벼슬이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이르렀다. 일찍이 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가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었으므로 마음껏 진휼하고 공급하여 한 지방이 그 덕으로 온전히 살아났다.

〈**신증**〉 박안성(朴安性) : 원형(元亨)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벼슬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정안(靖安)이다.

〈**제명**〉 상마세월심(桑麻歲月深) : 홍여방(洪汝方)의 시에, “산과 물은 구름과 연기가 늙었고, 뽕나무와 삼은 세월이 깊도다. 봄노래와 나무하는 피리 모두가 태평한 마음이로다”하였다. 계류안안심(溪流岸岸深) : 최사로(崔士老)의 시에, “단 비는 촌마다 족하고, 시내 흐름은 언덕마다 깊도다. 나는 것, 잠겨있는 것, 움직이는 것, 심어져 있는 것, 모두가 한결같이 봄 마음이네”하였다.

〈비고〉

〈**연혁**〉 고종 32년에 군(郡)으로 고쳤다.《文獻備考》

〈**연혁**〉 중종(中宗) 38년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고, 선조(宣祖) 17년에 현(縣)으로 내렸다가 29년에 다시 승격시켰다.

〈**음호**〉 음평(陰平) : 고려 성종(成宗) 때에 정했다. 연창(延昌)

〈**관원**〉 도호부사(都護府使) : 여주진관병마 동첨절제사(驪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 수어후영장(守禦後營將) · 토포사(討捕使)를 겸한다.

〈**영어**〉 수어후영(守禦後營) : 인조(仁祖) 조에 후영(後營)을 여주(驪州)에 세웠다가 후에 이 곳으로 옮겼다. 후에는 영장(營將)이 본부사(本府使)를 겸하였다. 군병(軍兵) 속읍(屬邑)은 죽산(竹山) · 여주(驪州) · 음죽(陰竹) · 안성(安城) · 양성(陽城) · 양지(陽智)이다.

〈**방면**〉 부내일(府內一) : 끝이 5리 이다. 부내이(府內二) : 끝이 10리 이다. 서일도(西一道) : 처음이 10리, 끝이 15리 이다. 서이도(西二道) : 처음이 15리, 끝이 20리 이다. 서삼도(西三道) : 처음이 20리, 끝이 30리 이다. 원일도(遠一道) : 북쪽으로 처음이 40리, 끝이 40리 이다.

근일도(近一道) :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근삼도(近三道) :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40리 이다. 천남일도(川南一道) :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천남이도(川南二道) : 남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0리 이다. 천북일도(川北一道) :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 이다. 천북이도(川北二道) :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 이다. 산둥(山東) : 동쪽으로 22리 이다. 산서 : 서쪽으로 25리 이다. 산내(山內) : 남쪽으로 20리 이다. 산외 : 서쪽으로 20리 이다.

양성현(陽城縣)

동쪽으로 안성군 경계까지 3리 이고, 남쪽으로 충청도(忠淸道) 직산(稷山)현 경계까지 27리이며, 서쪽으로는 진위현 경계까지 19리이며, 북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15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백 12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 인데, 신라 경덕왕이 적성(赤城)이라 고쳐서 백성군(白城郡)의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기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는 수주(水州)에 예속시켰다. 명종이 감무를 두었는데, 본조 태종 13년에 예대로 현감으로 만들고 충청도에서 본도(本道)로 이속시켰다.

〈관원〉 현감·훈도 : 각 한 사람씩

〈군명〉 사복홀·적성·사파을(沙巴乙)

〈성씨〉 본현 하(河)·유(柳)·이(李)·임(任)갈(葛)와 송(宋) 는 다른곳에서 들어온 성이다.

〈산천〉 천덕산(天德山) : 현 서쪽 2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진위현 조에도 적었다. 백운산(白雲山) : 현 남쪽 12리 지점에 있다. 바다 : 괴태길곶 서쪽 1백리 지점에 있다. 괴태길곶(槐台吉串) : 현 서쪽 1백리 지점에 있다. 줄같은 한 가닥 길이 진위현의 송장, 수원 양간(楊干)을 지나서 바다에 불쑥 들어갔는데, 무릇 75리이다. 목장(牧場)이 있다. 홍경천(弘慶川) : 현 남쪽 35리 지점에 있다. 선원천(禪院川)과 안성군



남천 물이 합쳐지고, 서쪽으로 흘러 직산현 흥경원 북쪽에 와서 이 냇물이 된후 수원부 오을미곶(吾乙未串)에 들어간다. 선원천 : 고을 동쪽 1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죽산현 좌찬역(佐贊驛) 서쪽 골에서 나와, 고양지(古陽智)를 지나고, 현 선원(禪院) 앞에 와서 이 냇물이 된다.

〈토산〉 용어 · 지향

〈봉수〉 괴태길곶 봉수(槐台吉串烽燧) : 남쪽으로 충청도 면천군 창택산(沔川郡 倉宅山)에 응하고 또 직산현 망해산(望海山)에 응하며, 북쪽으로 수원부 흥천산(興天山)과 응한다.

〈학교〉 향교 : 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역원〉 가천역(加川驛) :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선원(禪院) : 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소초원(所草院) :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불우〉 청원사(靑原寺) : 천덕산에 있다. 수정사 · 덕적사 : 아울러 백운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 현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여단 : 현 북쪽에 있다.

〈고적〉 무한성(無限城) : 현 남쪽 12리 지점에 있는데, 석축이다. 둘레는 1천 3백 5척이며, 성난에 못 하나가 있다.

〈인물〉〈고려〉 이천 : 벼슬이 첨의 평리 개성윤(僉議評理開城尹)에 이르렀다.

〈본조〉 이옥(李沃) : 친의 증손이다. 무과(武科)에 뽑혀서 벼슬이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 이추(李推) : 벼슬이 황해도 도관찰 출척사(黃海道道觀察黜陟使)에 이르렀다.

이순지(李純之) : 과거에 올라 벼슬이 판중추(判中樞)에 이르렀다. 이예(李芮) : 과거에 두 번이나 올라서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질(文質)이다. 글 잘한다는 명망이 있었다.

이승소(李承召) : 세종조 정묘년 과거에 장원하였고, 또 중시(重試)에 뽑혔다. 성종조(成宗朝)에 좌리 공신(佐理功臣)에 참여하여 양성군(陽城君)으로 봉함을 받았고,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문장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신증〉 이세영(李世英) : 과거에 올라, 벼슬이 참찬에 이르렀고, 청간(淸簡)하다는 것으로써 일컬었다.

〈제명〉 읍호요동간의명(邑號聊同諫議名) : 고려 강호문(康好文)의 시에, “용



성(龍城) 깊은 지역에 외로운 성 있는데, 고을 이름은 간의의 명자와 같다. 옛 시를 뒤쫓아 화답하며 오래 앉았으니, 숲의 주막에 낮담이 운다” 하였다. 노수참천요적성(老樹參天繞赤城) : 유정현(柳廷顯)의 시에, “노목이 하늘을 찌를 듯 적성(赤城 적현과 같은것)을 둘러는데, 문앞 작은 길이 우정(郵亭)에 잇달았다. 송사를 다루는 뜰에 해 길고, 일은 없어 한가로이 피꼬리 우는 소리 듣네” 하였다.

〈비고〉

〈연혁〉 고종 32년 군(郡)으로 고쳤다.《文獻備考》

〈성지〉 백운산고성(白雲山古城) : 무한성(無限城)을 말하며, 둘레가 1천3백5척이고 못(池)이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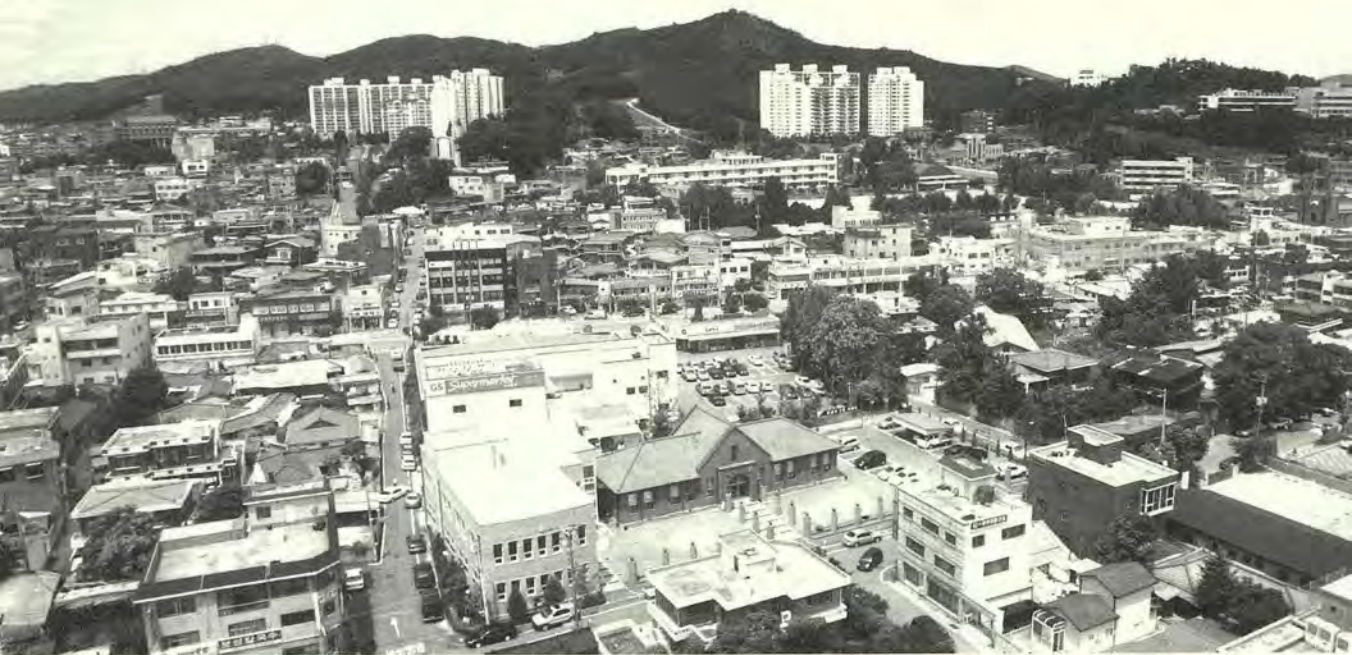
〈봉수〉 괴태곶(槐台串) : 서쪽 1백리에 있음.

〈방면〉 지질동(紙叱洞) : 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18리. 송오리(松五里) : 동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60리. 구천(九千) : 남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30리. 공제(孔梯) : 남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30리, 반곡(盤谷) : 서쪽으로 처음은 25리, 끝은 30리. 원당(元當) : 서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30리. 승량(升良) : 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영통(令通) : 서남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40리. 금질동(金叱洞) : 동북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0리. 덕산(德山) : 남쪽으로 처음과 끝이 10리. 구룡동(九龍洞) : 남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0리. 소고니(所古尼) : 서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0리, 도일(道一) : 남쪽으로 끝이 35리. 울북(栗北) : 서쪽으로 처음이 40리, 끝은 45리. 서신리(西新里) : 서쪽으로 처음은 50리, 끝은 55리. 감미동(甘味洞) : 서쪽으로 처음은 65리, 끝은 65리. 이상 세 면은 수원(水原) 남쪽경계를 넘어 옹포의 옆에 있다. 외양동(外良洞) : 서쪽으로 처음은 90리, 끝은 1백 15리인데, 서쪽은 바다에 닿았다.

〈사원〉 덕봉서원(德峰書院) : 숙종 을해년에 세웠고, 경진년에 사액하였다. 오두인(吳斗寅) : 파주(坡州)에 보임

〈고루〉 소사천(素沙川) 남북쪽에 네 군데가 있다.

(구)민족문화추진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발행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안성의 역사 근·현대 *

1. 동학과 안성

지방관과 향리, 토호들의 탐학과 토색에 의한 삼정의 문란 등 수취제도의 모순으로 기인한 민란이 속출하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이 대두되던 19세기 말 안성지역에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이 전래되었다.

1892년 12월 興海에서 接을 조직하고 接主를 임명한 바 있는데, 이때 경기지역에도 接所가 설치되는 한편 金周瑞가 접주로 임명되었다. 당시 경기지역의

이 글은 지난 2006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9호에서 발췌·수정한 것임
동학·의병 관련 글은 안성문화 19호에서도 밝힌 바, 2006년 실시한 안성문화학교 역사반
성주헌 부천대 교수님의 글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접소는 경기 남부의 중심인 안성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은 조선시대 부터 도로교통이 발달하여 삼남의 물산이 모이고 장시가 발달하여 상공업이 융성하였다. 이는 안성이 새로운 문물이나 사상을 빠르게 전래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였다. 즉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동학역시 일찍이 전래가 가능하였고, 1893년에는 보은에서 전개한 척왜양창의 운동에 안성에서 300여 명, 죽산에서 400여 명 참가할 정도로 교세 또한 크게 확장되었다.

나아가 안성지역 동학 조직은 동학혁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894년 3월 20일 고창군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혁명은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을 거쳐 안성 지역까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 순사 宋本市·鯨島彌入·食川信行의 보고에 의하면 ‘竹山 기타 각군에서 동학군의 행패가 심해져서 무기를 탈취하려는 꾀세가 보인다’ 라든가 ‘벌써부터 이 지방에 동학당이 다시 발동하여 극심하게 휘젓고 돌아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한 것을 볼때 안성지역의 동학군 활동이 있다. 이와 같은 경기남부지역의 동학군 활동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비도들이 경기도 내의 죽산과 안성 양읍으로까지 침범한다’ 고 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국기무처에서도 ‘근일 동학도들이 창궐하여 경기지방까지 침범하였다. 이때에 지방관이 게으르면 걱정이다. (중략) 죽산과 안성은 동학 중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다. 잠시라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수령을 교체하되 능력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병력을 이끌고 가서 포착하는데 힘써야 한다’ 고 할 정도로 동학군의 활동이 관아를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죽산지역 동학군은 활동이 과격하여 관군조차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시 일본군측이 파악한 죽산지역 동학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竹山附近에 있는 東匪들은 지금도 그 出沒이 無常하며, 그 곳에 있는 貴國 兵丁들은 府內 에서만 지키고 있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 剿討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本使(필자 : 井上馨)가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貴政府가 처음 兵隊를 派遣한 것은 본래 匪徒들을 剿滅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 府使는 6백여 명이나 되는 大兵을 갖고도 剿討에 나서지 않고 그 匪徒들을 멋대로 날뛰게 하여 暴力을 마음대로 퍼게 하고 있느니,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말을 바꿔서 한다면 이번에 우리 兵隊를 파견하여 剿討하면 彼此가 한 마음으로 協力하여 기어이 戰功을 올



리게 됨을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즉 죽산지역 동학군은 매우 과격하여 관군 6백명으로도 진압하지 못하여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들은 죽산관아를 점거하였으며, 이어 용인을 거쳐 서울로 향할 예정이었다. 안성지역 동학군도 동헌을 점령하고 군수와 이서들을 결박한 다음 병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죽산 부사를 장위영 영관 이두황, 안성군수를 경리청 영관 성하영으로 각각 교체하였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정부는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하여 동학군을 초멸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白木 중위와 宮本 소위가 지휘하는 부대를 파견하였으며, 관군은 신정희 순무사를 통해 각 부대장과 지방관에게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동학군을 진압토록 하였다. 이두황 죽산부사는 약 3백명, 일본군은 용산수비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안성과 죽산에 각각 파견 동학군을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유구서, 김학여, 박병익, 이태우, 박성익, 민영훈, 임상옥, 신덕보 등 수 많은 동학군이 포살되었다. 이밖에도 우금치전투 이후 후퇴하던 동학군이 안성으로 피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죽 능곡리에서 일본군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2. 의병운동과 안성

안성지역 의병운동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 일련의 식민지화 획책을 꾀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역적 반일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개된 안성지역의 의병운동은 경기지역에서 최초였다. 죽산과 용인 등지에서 활동한 李寅應은 “갑오 이후로 外海가 날로 심해져 愚忠所激에 臣民의 義를 펴고자” 활빈당 출신의 朴錫汝가 이끄는 의병부대 280여 명을 거느리는 비교적 대부대를 형성하였으며 ‘補國家 求萬生’의 내용을 담은 격문을 띄워 반일항전을 촉구하였다. 그 외에도 양성 등지에서는 李凡五가 이끄는 의병부대가 활동하였다.

1907년 들어 고종의 강제 양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확대된 의병운동은 죽산과 안성을 연결하는 경기 동남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鄭鳳俊은 1907년 8월 14일 장호원을 습격하자 겁에 질린 일본인 8명이 안성으로 주도하

기도 하였다. 鄭周源은 1907년 8월 서용범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투신한 후 용인에서 30여 명의 의병을 모으고 다시 양성 등지에서 150명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의병대장이 되었다. 그는 죽산에서 林玉汝 부대와 연합 9백명으로 확대하고 수원, 양지, 죽산, 안성 등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당진, 면천, 서산 등 충청 지역까지 활동무대를 넓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全秉鉉 의병부대는 죽산과 음성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하여 활동하였고, 가평에서 활동하던 朴來秉 의병부대와 경성 출신 金秉圭 의병부대, 姜漢祚 의병부대도 죽산을 본거지로 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성에서도 의병투쟁이 격렬하였다. 1907년 9월 3일 의병 30여 명이 현내면으로 들어와 일진회원 2명을 살해한 바 있으며, 14일에는 의병 2백여 명과 板本 경무 및 순사 8명 등 일본군이 두 차례 교전을 하였으며, 또한 이날 의병들은 파출소와 일본인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9월 21일 의병 30여 명이 읍내에 들어와 군자금을 징발하는 한편,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안서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수원에서 파견된 中原 소대를 공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성환수비대와 교전한 후 죽산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안성에서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뒤 일왕에게 사죄하러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姜奉榮·林根洙·金明起 등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일진회를 습격하였으며, 의병과 군중을 이끌고 평택역으로 나아가 연좌시위를 하며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1904년부터 전개되었던 의병운동은 1909년 9월 전후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의병활동이 퇴조되고 있지만, 안성지역의 의병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안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장은 崔敬先, 鄭基仁, 安春景, 任許玉, 孟達變, 洪祐錫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병들의 끈질긴 저항에 대해 일제는 1909년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벌여 전국의병을 학살하였다. 안성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의병들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최경선과 정인기는 1909년 11월, 안경춘과 임허옥은 12월에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맹달영은 1910년 3월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후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하였다.



3.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래

안성천주교의 기원은 1840년 이전으로 볼 수 있는데 1866년 병인박해 때에 안성, 미리내, 용인, 진천, 내포 등지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죽산, 진천 등지의 깊은 산골로 숨어 들어가 옹기도 만들고 숲도 구우며 숨어 살다가 붙잡혀 순교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24명이 죽산의 치명터(죽산성지)에서 순교하였고, 다른 곳에 가서 순교당한 교우도 18명이나 된다.

그 후 박해가 그치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까지 안성지방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이곳까지 드나들며 전도하였다. 즉 남신부가 충남 서산에서 안성까지 드나들며 전교하였고, 진신부는 천안 목천에서, 주신부는 예산에서, 성신부는 아산 공세지에서 안성까지 관할하였다.

그 후 공안국신부가 1900년 10월 19일 안성에 도착한 첫 기각지가 현재 성당터에 자리잡고 있던 백통진 집이었다(통진군수를 지낸 백씨의 집을 일컬음). 공신부는 처음에는 언어의 불통과 한국 음식을 지어 먹을 줄 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 당시에 천주교 신자라고는 읍내에 사는 오요셉 한 사람뿐이었다.

이 후 안성본당을 창설한지 몇 해 가지 않아서 많은 공소(公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산 공세지에서 분리된 안성 천주교회에서 관할하는 공소가 20여개에 달했다.

안성은 1882년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선교가 정식으로 인정된 20년 뒤인 1902년 12월 미국 북장로 선교회 선교사 밀러(민노아, 1866~1937) 목사에 의하여 경기도 남부지방을 순회 전도하던 중 임진오, 김완연 두 사람의 신자를 얻어 안성을 서리(현 석정동)에 안성읍교회(현 안성제일 장로교회)를 설립하였고, 이로부터 안성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3.1운동과 관련하여 안성에서 첫 기독교인이 된 임진오가 결사대 사건으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처형을 받게되니 첫 순교자가 된다.

당시 안성제일교회 목사로 취임한 박용희 목사는 민족자주독립에 기여하고자 신간회를 조직하여 민족의 자각운동에 이바지 하였고,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당시 안성지역 유지인 이근태의 회사금을 받아 1923년에 안성유치원을 개원하였다.

한편으로 1917년 10월에 정빈전도사에 의해 안성을 동리에 '동리에배당' (현 안성성결교회)이 두 번째 교회로 설립되었다.

성결교회는 신대균 목사 시무 당시에 신사참배, 천황송배, 동방요배 등을 이행치 않는다고 부분적인 예배를 제지당하다가 교회가 폐쇄되는 수난을 당하였다.

4. 일제 강점기의 안성

안성은 192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주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수난속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안성과 양성, 죽산이 통합되어 안성군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독립을 향한 열망은 3.1 만세운동같은 대대적인 시위로 나타났다. 안성전역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은 특히 원곡면과 양성면에서 24명이 순국하고 127명이 투옥되는 3.1 운동사상 최대의 탄압을 받은 기념비적 운동이었다.

3.1 운동이후 안성에서는 1920년 안성청년회가 만들어졌으며 1925년 이후 안성청년회에서 무산아동 교육기관인 〈安靑學院〉을 설립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활동과 정치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11월에는 신간회 안성지회가 설립되었고 이때 초대 회장은 안성장로교회의 박용희 목사였다.

한편에서는 경부선 철도 부설로 침체하고 있던 안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京南鐵道 부설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1925년 11월 1일 천안-안성간 철도가 개통하게 된다. 이 철도는 1927년 9월 장호원까지 연장 개통되어 京畿線이라는 이름으로 운행하게 된다.

1939년 안성지방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안성농업학교를 건립할 때는 당대의 篤志家인 朴弼乘(1885~1949)은 당시 돈으로 100,000원의 거액을 회사하여 학교설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俞一濬(1888~1932) 박사는 금광면 출생이다.

당시 20년간 동아일보 안성지국장을 하면서 안성 교육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



기신 金台榮 선생은 1925년 <安城記略>을 編纂하여 후세에 중요한 사료를 남기셨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했고 신간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金英基 선생은 해방 후 제헌의원을 지내셨다. 한편에서는 안성최초의 사립학교인 안법학교는 孔安國신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유지경영되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朴星禹(1901~1974)선생의 주도하에 <정악구락부>가 조직되어 잊혀져 가는 우리의 가락과 멋을 되살려 항일의식을 일깨웠다.

5. 해방정국 좌우 대립

해방을 전후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갈등은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탁과 반탁으로 가열되어 좌우익의 대립은 치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안성에서는 1947년 5월 이죽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남로당원들이 이죽지서를 비롯하여 우익인사 18명의 집을 습격, 방화한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안성지방의 좌익계의 폭동은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어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

6. 한국전쟁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은 전국토를 폐허화 시켰으며 수많은 전쟁고아를 낳게 하는 등 인적, 물적 손실을 지대하였다. 당시의 피해상황은 전쟁의 와중에 작성된 1951년 9월 1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679명, 납치 및 행방불명자가 164명, 부상자가 39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1955년 당시 낙원공원에 건립된 충령탑에 1차로 봉안된 후 1973년에 집계된 한국 전쟁 관련 애국영령의 숫자는 1,153명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숫자도 당시 인민군의 피해는 제외된 것이어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안성인의 피해는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7. 4.19와 안성

안성에도 4월 22일 2백 여명의 민주당원이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가 해산 된



후 시내 요소요소에 무장경찰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취했다.

이후 안법중고등학생과 군민 2천 여명이 7월 23일 반혁명세력 규탄 도보행진을 벌여 25일 서울 내무부 청사 앞에서 안법중고교 학생 100여명이 비를 맞으며 연좌시위를 감행했다.



전근대 안성지역의 교육기관*

1. 조선시대의 교육제도

유학(儒學)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정교(政敎)의 근본이념으로써 채택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나 교육제도 역시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과거 응시자격은 양반계급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유학 역시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유일한 도구로서 그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양반의 자제들은 대개 어릴 때에 서당(書堂)에서 유학의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고 15·16세 이전에 서울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鄕校)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몇 년 뒤에 과거의 소과(小科)에 응시하고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다.

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사학은 중앙정부에 직속되고 향교는 각 군(郡)·현(縣)

*이 글은 지난 1997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5호에서 발췌·수정한 것임

에서 관할하던 관학(官學)으로서, 상호간에 상하의 연락체통이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생원(生員)·진사(進士)였지만 생원·진사가 꼭 사학이나 향교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며, 또 성균관의 유생(儒生)에게는 대과(大科)인 문과(文科)에 응시하여 자격과 기타 여러가지 특전을 주었으나 반드시 성균관을 거쳐야만 문과의 응시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다. 이들 관학 가운데 성균관만은 조선 말기까지 줄곧 최고 학부(學府)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학과 향교는 후세에 점점 쇠퇴하여져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다만 그 대신 사숙(私塾)으로서 서당 이외에 서원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유학의 진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초기 태종은 성균관에 가서 선성(先聖)을 제사하고 세자를 입학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의 알성례(謁聖禮)와 세자의 입학례(入學禮)는 상례(常例)가 되었다. 또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많은 전토(田土)와 노비(奴婢)·어장(漁場) 등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과계통의 교육기관은 비교적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과(武科)계통의 교육 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는 조선사회가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경시한 결과가 생긴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특수분야인 잡과(雜科) 계통의 교육기관으로서 태종대에 이학(吏學)·역학(譯學)·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의학(醫學)·자학(字學)·율학(律學)·산학(算學)·약학(藥學) 등의 교육기관을 두었으나 이는 특수한 신분계층이 세습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그리 많지 못하였다. 또 이러한 교육과목과 담당 교육기관은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한학(漢學：中國語)·몽학(蒙學：蒙古語)·여진학(女眞學)·왜학(倭學：日本語)은 사역원(司譯院)과 특정한 지방에서, 의학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陰陽·吉凶·占卜에 관한 학문)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주학(籌學：數學)은 호조(戶曹)에서, 율학(律學：法律學)은 형조(刑曹)와 각 지방 고을에서, 화학(畵學)은 도화서(圖畵署)에서, 도학(道學：여기서는 道教)은 소격서(昭格署)에서 각각 일정한 수의 학생을 가르쳤다. 이 중 외국어·의학·천문



학·율학 등은 특수기술로 취급되어 대개 중인(中人) 계급에 의해 세습되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고종때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육영공원(育英公院)·배재학당(培材學堂)·이화학당(梨花學堂) 등이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 향교

향교는 조선시대 각 지방에 세워졌던 문묘(文廟)와 그에 딸린 옛날식 학교의 명칭으로 일명 교궁(校宮) 또는 재궁(齋宮)이라 불렀으며 고려시대에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의 관학 교육기관이다.

1392년(태조1년) 태조는 전국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에게 명하여 향교의 흥폐(興廢)로써 지방관의 고과(考課)의 기준을 삼는다고 하고, 크게 교학의 진흥을 꾀하였다. 이후 점차 부(府)·목(牧)·군(郡)·현(縣)의 행정단위에 각각 1개의 향교를 세워 웅만한 지방고을에는 향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향교에는 문묘·명륜당(明倫堂) 및 중국·우리나라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향하는 동서양무(東西兩廡)·동서양재(東西兩齋)가 있다. 동서양재는 강당인 명륜당이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고, 보통내·외 양사(兩舍)로 갈라진다. 내사(內舍)에 있는 자는 내사생(內舍生)이라 하고 외사(外舍)에는 내사생(內舍生)을 뽑기 위한 증광생(增廣生)을 두었다. 유생의 수는 부·목에 90인, 도호부(都護府)에 70인, 군에 50인 현에는 30인으로 정하였다.

직원으로는 교수(教授)·훈도(訓導) 각 1인 씩을 두는데 작은 고을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향교 소속의 노비인 교예(校隸)가 있었다. 또한 독서와 일과(日課)를 매일 수령이 관찰사에 보고하였고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戶役)을 줄여 주었다. 향교에는 그 공수(公需)를 위하여 나라에서 학전(學田) 7~5결(結)을 지급하고 그 수입으로써 비용에 충당케 하였으나 때로는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또는 매수하여 많은 전지(田地)를 소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향교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같으며 여기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시험에 합격된 자는 생원·진사의 칭호를 받고 다시 성균관에 가게 되며 다시 문과

에 응시하여 관직에 취임하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조선 중기 이후의 향교는 과거의 준비 장소로 되고 서원이 발흥하게 되자 향교는 점차 쇠퇴해졌으며 1894년(고종 31년)에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이 남아 문묘에 향사(享師)하는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그 후 근대 교육제도의 확립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도 정비되었으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문묘직원(文廟職員)을 명예직으로 하여 부윤 혹은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며 서무에 종사케 하였다. 학전(學田)과 지방유림의 구림(鳩林) 등 향교 재산은 구한국 정부 학부(學部)의 소관으로 1900년(광무 4년) 4월에 향교 재산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였으며 그 수입은 부·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로 쓰거나 또는 문묘의 수리·향사에 드는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1918년 조사에 의하면 향교의 총수 335개소에 소관토지는 모두 48만 평이었다. 뒤에 재산 관리규정은 폐기되어 공립학교의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만 충당케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안성에는 3개의 향교가 남아 있다.

1) 안성향교

안성향교(安城鄉校)는 1530년(중종 25년) 이전에 건립되었고 지금의 안성시 명륜동에 소재하며 건물은 지방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대성전(大成殿) 12.5칸, 명륜당(明倫堂) 10칸, 동·서무(東西廡) 각각 3칸, 전사청(典祀廳) 6칸, 서재(西齋) 6칸, 동문(棟門) 3칸, 풍화루(風化樓) 상·하 각각 11칸 등 모두 총 65칸이며 건물 면적은 136여 평에 달한다. 문묘에 배향된 성현(聖賢)은, 5성위(聖位 :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와 공자의 문인(門人) 중 10철(哲)의 위패 및 우리나라 대현(大賢) 18위(位)의 위패 등,





총 33위로 되어 있다.

현재 문묘의 향사는 매년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종래의 교육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만 향교 재단으로 설립된 명륜중학교가 있어 현대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 죽산향교

죽산향교(竹山鄉校)는 1413년(태종13년)에 설립되었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소재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제 32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은 대성전, 동·서재·명륜당·내삼문(內三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명륜당은 겹처마

에 팔작지붕의 전통적인 양식되어 있다.

3) 양성향교

양성향교(陽城鄉校)는 서기 1530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지금의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소재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제 34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대성전·명륜당·내삼문·홍살문(紅箭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대성전은 특히 익공계(翼工系) 양식의 단청(丹靑) 맞배 지붕으로 조선후기 건축 양식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서원

서원(書院)은 조선 중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대표적 민간사학기관(民間私學機關)으로 그 명칭은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 때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집현



전서원(集賢殿書院) 등의 설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한다. 중국의 이 서원은 원래 내·외의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청소년을 모아 인재를 기르던 사설기관이었는데, 선현을 제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가 합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중심정책을 써서 고려시대 사원을 대신하여 서재(書齋)·서당·정사(精舍)·선현사(先賢祠)·향현사(鄉賢祠) 등을 장려하였다. 특히 세종은 이를 장려하여 상을 내린 일까지 있는데 이 때의 서원은 사와 재의 기능을 겸한 서원의 형태를 갖춘 것이 못되었다.

그 후 1542년(중종37년) 풍기군수(豐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순흥에서 고려의 학자 안향(安珦 : 安裕)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서원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년(명종 5년) 이퇴계(李退溪)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 : 간판)을 하사하고, 책과 노비·전결(田結) 등을 주어 장려하였다.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으며 때마침 퇴색되어가는 향교를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처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이전에 설치된 서원만도 29개, 선조 때에는 124개, 숙종 때에는 한 도(道)에 8~90 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한편 서원에 부속된 토지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전을 주어 조세가 줄어들게 되었고 또 양민이 원노(院奴)가 되어 군역을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유생들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학문을 공부하는 것에 긍지를 갖고 선호하는 대신에 자연히 당시 성행하던 붕당(朋黨)에 가담하여 당쟁에 골몰하여 당색을 가르고 부질없이 사변적 논쟁만을 일삼는가 하면,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하여 양민을 토색질하는 폐단도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원이 지나치게 많이 세워지자 조정에서는 1644년(인조 22년)에는 서원 설치를 허가제로 하였고 1657년(효종 8년)에는 동일한 선현을 중복해서 제향하는 서원을 설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그 후 영조·정조·철종 때에도 서원 정비에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정조 때의 경우만 해도 서원의 수는 650개가 남아 있었다. 그 중 유명한 것으로는 도산서원(陶山書院)·송악서원(松嶽書院)·화양서원(華陽書院)·만동묘(萬東廟) 등이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섭정하게 된 직후인 1864년(고종 1년)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이듬해인 1865년 5월에는 각종 폐단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던 만동묘(萬東廟)를 폐쇄하였다. 이러한 대원군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부분의 서원은 정비되고 급기야 1871년 서원철폐령을 내려 세상에 사표(師表)가 될 47개 서원만을 남겨 놓았는데, 이 때 47개의 서원중에 안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기서원(道基書院)과 남파서원(南坡書院)은 훼손(毀撤)되었다.

이밖에 정식서원은 아니나 학문 연구 또는 학자들의 교유 장소로, 대재(大齋) 유언집(俞彦鏞)·유언호(俞彦鎬)를 추모해 유생들의 학문 연구 장소로 세워졌던 동안강당(東安講堂)과 남파(南坡) 홍우원(洪宇遠)이 수학하던 장소였던 계고당(稽古堂)이 있었다.

1) 도기서원

도기서원(道基書院)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68년(현종 9년) 한여기(韓如琦) 등 지방유림의 공의로 창건된 것으로, 안성시 도기동(道基洞)에 있었던 서원이다. 1669년 ‘도기(道基)’라는 사액을 받았고 1712년(숙종 38년)에 복액(復額) 되었다가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이 서원에 봉안되었던 사계 김장생의 위패는 땅에 묻었다.

사계 김장생은 일찍이 송익필(宋翼弼)의 문하에서 예학을 전수받고 이율곡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특히 예학(禮學)을 깊이 연구하여 아들 김집(金集)에게 계승시켰고 조선시대 예학의 태두로서 이른바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의 문하에서는 송시열·송준길 등의 대 유학자를 배출하고 서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畿湖學派)를 이룩하여 조선 유학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영남학파(嶺南學派)와 쌍벽을 이루었다. 참고로 그의 출신과 연보(年譜)를 소개한다.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대사헌 계휘(繼輝)의 아들로 지금의 충남 논산출신이다. 1578년(선조 11년)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6품 관직에 오르고, 창릉참봉(昌陵參奉)·순릉참봉(順陵參奉) 등을 거쳐 동몽교관(童蒙敎官)·정산현감(定山縣監)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자 호조정랑(戶曹正郎)으로 명군(明軍)의 군량 조달에 공을 세워 군사감첨정(軍資監僉正)이 되었고 1597년 남양부사(南陽府使) 등을 역임, 이듬해인 1598년 안성군수로 있다가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가 되었다.

1602년 청백리(清白吏)에 뽑혔고 3년 후 익산군수(益山郡守)가 되었다. 1609년(광해군 1년) 회양(淮陽)·철원(鐵原)의 부사를 역임하였고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심문을 받았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 뒤 관직을 사퇴하고 연산에 은퇴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장령(掌令)에 임명되었고 사업(司業)과 상의원정(尙衣院正)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사헌부집의를 거쳐 병조참의·부호군을 역임한 후, 관직을 다시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625년 특명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다음해 행호군에 보직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면서 청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했다. 이듬해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와 향리에서 교육에 전심하였다. 저서로는 《경서변의(經書辨疑)》·《가례집람(家禮輯覽)》·《상례비고(喪禮備考)》 등의 다수가 있으며 문집으로 《사계집(沙溪集)》이 있다.

김장생은 원래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서 1688년(숙종 14년)에는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이 도기서원 이외에 연산(連山)의 돈암서원(遯巖書院) 등 전국 10여 개의 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다. 따라서 서원을 정비할 때 한 사람의 위패를 여러 군데 겹치기로 봉안하는, 이른바 누설(累設)된 서원을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그의 고향인 연산의 돈암서원만 남겨두고 도기서원은 훼손되었다.

당초 김장생을 추모해서 안성에 도기서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임진왜란이 진행중이던 1598년(선조 31년) 안성군수로 한 때 재직하고 있을 때 선정을 베풀었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당시 안성에는 그의 학맥을 이은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도기서원 창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시 사계의 학맥을 이어 정계에서 크게 활약했던 사람으로는 양성의 오두인(吳斗寅 : 1624~1689)이 있으며, 오두인의 인맥과 통하는 학자들이 안성에 많았던 것 같다. 이재(李紱)는 용인사람이나 오두인의 사위가 되며, 유언집·유언호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재는 연대가 약간 떨어져 도기서원 창건에 직접 관여



한 사람은 아니다. 도기서원 창건에 힘썼던 한여기는 일찍이 김집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한 사람이다.

참고문헌 : 韓國儒學史 · 海東名臣錄 · 沙溪行狀(宋時烈撰) · 安城郡誌

2) 남파서원

남파서원(南坡書院)은 지금의 안성시 봉남동 비봉산 남쪽기슭에 있던 서원으로 일명 봉양서원(鳳陽書院)이라고도 하였다. 1692년(숙종 18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우원(洪宇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다. 1871년(고종8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서원 유지(遺址)에 ‘봉양단(鳳陽壇)’이란 제단을 마련하여 향사를 지내오다가 6.25 이후 중단되었다.

홍우원은 대유학자로 인조에서 숙종에 이르는 4대를 봉사하면서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지방관 시절 빈민구제와 조세의 적정한 조정, 관리의 부정부패 방지 등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숙종때에는 경연관(經筵官)의 중책을 맡아 시강할 때에는 ‘군신지도 수치지본 복구지도 재애민(君臣之道修治之本保國之道在愛民)’이라는 애민사상을 강조하여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허목(許穆) · 권대운(權大運) 등과 교류하면서 영남학파의 남인계열인 청남계(淸南系)를 이끌었다. 참고로 그의 출신과 연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는 군징(君徵), 호는 남파(南坡),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서윤(庶尹) 영(榮)의 아들로 안성에서 태어났다. 1645년(인조 23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주서(注書) · 정자(正字)를 거쳐 1654년(효종 5년)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이때 앞서 유배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세 아들을 풀어주고 소현세자의 빈(嬪)인 강빈(姜嬪)의 옥사(獄事) 사건도 날조된 것이니 이를 신원(伸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귀국했으나 2개월 만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急死 : 이에는 그 아버지 인조와의 불화로 독살 당했다는 설이 있음)했고, 이어 1646년(인조 24년) 강빈의 옥사도 일어났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당시 조야에서는 의론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홍우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조야의 여론은 차츰 강빈의 신원을 찬동하게 되었으나 황해도 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의 반대직언으로 그 동안 강빈의 원사(冤死)에 동정하던 효종의 태도가 표변하여 강빈의 신원을 주장하던 일파를 모조리 잡아들일

때 홍우원도 체포되어 삭직(削職) 당했다.

그 뒤 다시 기용되어 수찬(修撰)으로 복직되었으나 1660년(현종 1년) 제1차 예송(禮訟) 때 서인 송시열이 주장하는 기년제(基年制)가 잘못된 것이라고 논박했다가 파직 당했다. 1674년 제2차 예송 때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그 이듬해 고성군수(高城郡守)에 복직하였다. 이어 동부승지·부제학 겸 대사성·공조참판·예문관제학 등을 거쳐 1676년(숙종 2년) 예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이조판서를 거쳐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이어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파직당하고, 명천(明天)에 유배, 다시 문천(文川)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남파서원은 그의 위패를 봉안한 서원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 남파집(南坡集)이 있는데,

참고문헌 : 孝宗·顯宗·肅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安城郡誌.

3) 덕봉서원

덕봉서원(德峰書院)은 지금의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 있는 서원으로 1695년(숙종 21년) 지방 유림의 공의(公議)로 오두인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숙종 23년) '덕봉(德峰)'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1794년(정조 18년) 강당을 중수하였다.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며,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1890년 1974년에 중수하였고 광복 후 1979년 사우(祠宇)를 중건하였으며, 1984년 동재와 서재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내의 건물로는 6칸의 사우, 10칸의 정의당(正義堂), 동재와 서재의 건물이 있고 그 밖에 외삼문, 내삼문, 홍살문 등이 있으며 사우에는 오두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인 정의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院內)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의 강론 장소로 사용된다.

매년 2월 중정(中正)과 8월의 중정에 향사를 지내며 제품(祭品)은 6변(邊) 6두(豆)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장된 유물로는 1681년 김창협(金昌協)이 그린 오두인의 화상(畫像) 1점과 오두인의 문집이 있다. 재산으로는 전답 5천여평과 대지 3천여평이 있다. 한편 이 곳에 배향된 오두인의 출신과 연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 본관은 해주(海州)로,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정방(定邦)의 증손이며,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 상(翔)의 아들로 안성에서 태어났고 경상도관찰사 숙(瀟)에게 입양되었다. 1648년(인조 26년)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그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典籍)에 임명되었다. 그 후 병조·예조의 낭청(郎廳)이 되었다가 1650년(효종 1년) 사헌부의 지평(持平)이 되고 이듬해 경상도사(慶尙都事)로 나갔다. 이어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으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임하여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656년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고 1661년(현종 2년) 사간원 헌납(憲納)을 거쳐 그 이듬해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65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1667년 부교리(副校理)·사간(司諫)등을 역임했다. 1679년(숙종 5년) 공조참판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호조참판이 되었다. 1682년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다음해에는 공조판서에 올랐다. 같은 해 아들 태주(泰周)가 현종의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 1689년 형조판서로 재직 중 기사환국으로 서인들이 실각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 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삭직 당했다. 그 해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가 폐위하자 이세화(李世華), 박태보(朴泰輔)와 함께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국문을 받고 의주로 유배되는 도중, 파주에서 죽었다. 1694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뒤에 양성의 덕봉서원, 북청(北靑)의 노덕서원(老德書院), 파주 풍계사(豐溪祠), 광주(光州) 의열사(義烈祠), 의성 구현사(九賢祠)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묘소는 양성면 덕봉리의 선영에 있다. 《양곡집(陽谷集)》이 있다.

4) 동안강당

동안강당(東安講堂)은 당초 대재(大齋) 유언집(俞彦鍊 : 1714~1783)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해서, 그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은 1786년(정조 10년)경에 문인들과 유씨문중(俞氏門中)에서 협력하여 세운 것이다. 원래 이 동안강당(東安講堂)은 서원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세웠던 것이나 서원의 남설(濫設)을 억제하

던 당시 조정으로부터 정식 서원의 명칭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다만 강당이란 명칭을 세워 유생들의 학문 연구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의 아우인 유언호(俞彦鎬 : 1730~1796)의 사후에는 그를 추모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1878년(고종 15년)경 대구모로 중수(重修)하여 한때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근대화의 물결로 쇠락하였고 옛터의 일부는 배나무 밭으로 변하였다. 현재 삼덕포도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옛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언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사호(士鎬), 호는 대재(大齋), 본관은 기계(杞溪)이며 한성부좌윤 직기(直基)의 아들로 지금의 안성시 송인동에서 출생 성장하였는데 유언호는 아우이다. 일찍이 이재(李穡)로부터 수학하여 권상하(權尙夏)·송시열로 소급되는 기호학파의 정통학맥을 이었다.

그는 유일(遺逸)로 1762년(영조 48년)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과 1765년 동궁세마(東宮洗馬)에 각각 임명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후 사헌부 지평(持平)과 장령(掌令)으로 출사(出仕)하여 이듬해 집의(執義)로 승진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했으며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을 지냈다. 1783년(정조 7년) 통정대부로 이조·호조·형조의 참의를 역임한 후 돈녕부 도정에 승진되어 원자(元子)를 보도(輔導)하다가 이조참의로 치사(致仕)하였다. 그가 죽자 정조가 어제(御製) 제문(祭文)을 내려 조문하였다. 묘소는 안성시 보개면 동안리에 있다.

그는 일찍부터 향리인 송능골에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문하에 이재(李采) 등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김양행(金亮行), 송덕상(宋德相) 등과도 학문적으로 친교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스승 이재를 도와 《울곡전서(栗谷全書)》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저서로 《오복예의(五服禮儀)》 3권과 《대재문집(大齋文集)》 10권 등을 남겼다.

5) 계고당

계고당(稽古堂)은 남파 홍우원(南坡 洪宇遠)이 수학하던 별당 건물로 건립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생존연대로 보아 그가 태어난 1605년(선조 38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래 홍우원의 영정이 있었으나 분실되고 영정보관함만 보존되고 있다 한다.

그의 친필인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1冊)》의 갈피에서 발견되었다. 그 내



용은, ‘孝廟甲午三月十五日 內陽世子師 侍講院應教 藝文館 弘文館副提學 洪宇遠御製自省編一冊 令徐謝思(?思) 嘉善大夫 臣 洪宇遠 南坡 洪宇遠’으로 되어 있다. 또 이곳에는 많은 고서(古書)와 전적(典籍)이 있었는데 모두 산일(散逸)되고 일부를 지금의 안성, 한경대학교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한 ‘계고당’(稽古堂)이란 홍선대원군의 친필액판이 있는데, 현재 대덕면 소현리에 있는 그의 후손집에 보관되어 있다. 홍우원의 연보는 위 남파서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

4. 서당

서당(書堂)은 옛날 향촌사회에서 소위 ‘글방’이라고 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주로 초급단계에 속하는 학생들을 모아 한문경전을 중심으로 인성과 도덕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문지식을 교육하던 곳이다. 향교나 서원이 양반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서 중등 정도 이상의 기본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서당은 반상(班常)의 구별없이 초입학자를 모집하여 독서·습자(習字)·작문 등을 교육시켰다.

서당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첫째로 개인 집에서 독선생(獨先生)을 초빙하여 자기집 아동 및 동네 아이들을 교육·훈도 하는 형태이고, 둘째로 유생 자신이 서재(書齋)를 차려놓은 동네의 아동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형태이며, 셋째로 각 동네에서 공동으로 서재를 차려놓고 동네 전체 아동들을 교육하는 형태이다.

서당의 인적 구성은 우선 글방선생인 훈장(訓長)이 있고, 그 밑에 오늘날의 조교적인 접장(接長)이 있으며, 그 나머지 배우는 학도(學徒)들이 있다. 접장의 “접(接)”이란 원래 “무리”라는 뜻을 지녔지만 서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동급의 학도를 지칭한다. 같은 학도끼리는 동접(同接)이라 하고 학도의 수가 많아서 훈장 한 사람으로는 많은 학도를 일일이 가르칠 수 없을 경우에 학도 가운데서 나이와 지식이 많은 자를 뽑아 접장을 두었다. 이 접장은 훈육을 책임지고 풍기단속의 임무도 띠고 있었다.

· **서당의 교육방법** : 서당의 교수방법은 강(講)이 주된 것이다. ‘강’이란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의 응답하는 전통적인 교수방법이다. ‘강’은 대개 열흘마다 하는 순강(旬講), 보름마다 하는 망강(望講), 한달마다 하는 월

강(月講)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초급단계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대개는 매일 하는 일강(日講)이 위주였다.

또 ‘강’을 하는 방법에 따라 배강(背講)과 면강(面講)이 있었다. 배강이란 등을 돌려서 책을 보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암송 낭독하는 것이고 면강이란 책을 보면서 읽은 임문강독(臨文講讀)하는 것이다. 강을 하고 난 뒤에 전개되는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기계적인 기억에 빠지기 쉬운 함정, 즉 너무 암기위주로 읽어서 글 뜻을 전혀 판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건져 주는 것이었으며 스승과 제자가 일 대 일로 마주보고 하는 학습이었기 때문에 능력별 수업이 가능하고 선생과 제자와의 인격적 교류가 가능하였다. 서당교육은 공부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과 함께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진퇴(進退)에 있어서 정중한 배례(拜禮)와 동접 간에 음례(揖禮)는 필수적이었다.

‘강’은 날마다 학동의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그날의 학습내용을 숙독 암기하기 위하여 서산(書算 : 보통 서산대라고 함)을 옆에 놓고 횡수를 세어가며 읽는다. 글을 읽는 횡수는 보통 100독(百讀)을 기본으로 하였다. 전날에 배운 것은 그 이튿날 책을 보지 않고 배송(背誦)해서 다 외워야만 그 다음의 학습으로 나아갔으며, 만약 외우지 못하면 외울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완전학습의 형태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나아가는 진도가 빨랐다. 또한 야독(夜讀)을 장려하여 자정이 넘도록 등불 아래서 글을 읽은 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다.

학습교재의 순서는 대개 《천자문(千字文)》이나 《유합(類合)》과 같은 책으로 기초 한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동몽선습(童蒙先習)》이나 《계몽편(啓蒙篇)》 등으로 글자를 붙여서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글의 뜻을 깨치는 방법으로 우선 다독(多讀)을 권장하였던 것인데 대개 글을 읽는 데는 일정한 가락이 있어서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잘 읽을 때는 어떤 감흥을 일으키게도 한다.

한문경전은 원래 중국 고대어에 속하는 문어체의 글로 되어 있고 현대적 의미의 문법체계가 확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많이 읽어서 문리(文理)를 깨치는 도리밖에 별 다른 방법이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맹자(孟子)》 3천독을 해야 문리가 난다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서당교육에 있어서는 계절학습에 관한 것이 특생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겨울에는 경전과 같은 어려운 학과를 하게하고 여름에는 시율(詩律)과 같은 흥미본위의 학습을 하게 하였으며 봄가을에는 《통감(通鑑)》이나 《고문진보(古文眞寶)》와 같은 글을 읽게 하여 계절에 따라 학습의 능률을 높였다. 한편 이러한 여러 과목의 복합적인 학습은 전인 교육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책을 한 권 다 떼면 ‘책시세’ 또는 ‘책걸이’라 하여, 떡이나 별식을 해서 간단한 잔치를 베풀게 마련이었다. 이는 훈장에 대한 공궤(供饋)의 이미도 있으려니와 동접 간의 경쟁의식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

· **서당교육의 쇠퇴** : 조선시대에 조정에서는 서당에 관한 여러 가지 진흥책을 폈으나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당시 학풍의 쇠퇴를 야기시킨 사회·경제적 모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매관매직을 통한 입신영달의 풍조는 교육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였고 서당은 단지 문자해독교육의 구실 외에는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당교육의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선각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부단히 검토되었다. 유형원(柳馨遠)·정약용(丁若鏞)·이승희(李承熙) 등이 주장한 교육체제 일원화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서당과 서원을 사실상 관학체제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시의 학제를 계열화하자는 논의였다. 그것은 당시로서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 조선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세기 말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의 서당은 옛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재래식 서당과 새로운 시대조류에 적응하려고 한 개량서당으로 나뉘었는데 개량서당은 재래식 서당과는 달리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하여 설정하고 교원 또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였으며 민중교육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일제통치자들은 서당교육이 민족교육 내지 민족의식 양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상으로 보아 갖은 탄압을 실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18년에 공포된 이른바 <서당규칙>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서당은 그들의 동화교육정책에 대항하는 장소였으며 근대 학교로의 발전이 가능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으

면서도 외세의 침탈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민중의 마지막 교육기관이었다. 일제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11년 3월 말 현재 서당수는 1만 6,540개소이며, 학동수는 141,604명이었다. 그런데 총독부가 <서당규칙>을 공포한 1918년 현재 서당수는 24,294개소, 학동수는 264,835명이었으며, 1921년에는 서당수가 25,482개소, 학동수가 298,067 명으로 증가 되었다. 그러나 1922년을 기점으로 서당규칙을 강력히 시행하고 서당억제책을 시행함으로써 서당과 학생은 해마다 감소해, 1930년에는 서당수 10,036개소에 학동수는 158,920명, 1940년에는 서당수 4,105개소에 학동수 158,3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참고로 1925년 안성에 남아 있던 서당수와 학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으며 당시의 서당 중에는 일부 개량서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광복 후에는 <교육법> 제정에 따라 학제가 정비되면서 서당은 점차 소멸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방학 등을 이용하여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한문강좌 등을 개설하는 간이강습소와 같은 형태를 이따금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별표] 1925년 당시 안성의 서당현황

면(面)이름	서당수	선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합계
안성읍(安城邑)	5	5	40		40
보개면(寶蓋面)	7	7	67		67
금광면(金光面)	6	6	40		40
서운면(瑞雲面)	5	8	86	14	100
미양면(薇陽面)	5	7	114	17	131
대덕면(大德面)	9	9	76		76
양성면(陽城面)					
공도면(孔道面)	7	7	60		60
원곡면(元谷面)	5	5	47		47
일죽면(一竹面)	6	6	34		34
이죽면(二竹面)	3	3	12		12
삼죽면(三竹面)	9	9	69		69
합 계(合計)	67	73	645	31	676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經國大典·朝鮮教育史(李萬珪, 乙酉文化社, 1947)·韓國近代教育史(孫仁鍊, 延大出版社, 1971)·日帝下民衆教育運動史(盧榮澤, 探求堂, 1979)



선비와 선비 정신(精神)*

1. 선비의 정의(定議)

(1) 선비란 학식(學識)과 인품(人品)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특히 유학 이념(儒學理念)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 계층을 가리킨다.

(2) 어원적(語源的)으로 보면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로써 ① “어질고 지식(知識)이 있는 사람” 선배라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② 한자어에서 선비는 사(士)와 같은 뜻을 지니며, 사(士)는 벼슬한다는 뜻인 사(仕)와 관련되어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어떤 직분(職分)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정약용·신흠·최한기 선생 등). ③ 유(儒)는 사람의 도리(道理)를 익혀 자기 몸에 젖게 한 뒤, 부

※이 글은 지난 2004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7호에서 성낙구의 글을 발췌·수정한 것임

드러온 모습으로 남을 가르쳐서 마치 하얀 종이 위에 물이 스며들 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르침이 젖어들게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문무(文武)를 함께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뜻한다(정약용·박지원 선생 등). 또한 중국에서는 관직명칭 또한 계급 속의 한 신분인 것처럼 상고시대부터 ‘어질고 지식(知識)이 있는 사람’을 지칭했던 의미는 조선시대에 전칭(傳稱)으로 변형되었다.

(3) 공자(孔子)는 자공(子貢)에게 “자신의 행동에 염치(廉恥)가 있으며,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4) 선비의 위치와 인격적 조건(人格的 條件) :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등 여러 성인들도 각기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결국 선비정신은 인의(仁義)와 관련된 지조(志操)·의리(義理)·강인성(強韌性) 등의 뜻을 내포하고, 사(士)는 학문을 연마(研磨)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바로 상위 계급인 대부(大夫)와 결합하여 사대부(士大夫)라 일컬어지며, 사(士), 농(農), 공(工), 상(商) 등 사민(四民)의 첫 머리에 위치한다.

공자(孔子)는 논어 학이편(學而篇)에서 “제자가 집에 들어가서는 효(孝)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恭遜)하며, 행실(行實)을 삼가고, 말을 성실(誠實)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이(賢者)를 친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여유가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선비는 한평생 학문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학문의 목적은 지식의 양적 축적에 둔 것이 아니라, 도리(道理)의 실천에 두었기 때문이다.

(5) 선비 정신(精神)이란 인격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學問)과 덕성(德性)을 키우며, 대의(大義)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비는 학문(學問)과 덕(德)을 겸비한 인간이요,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는 일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절개(節介)를 지킬 줄 아는 지조(志操)가 굳은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선비를 일반적으로 유교적 교양에 의해 형성된 신분적 개념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생활양식과 활동(活動)

공자(孔子)는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이 살기 위하여 어진 덕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진 덕을 이룬다”고 하여 유교적 사랑인 “어진 마음(仁)”을 강조하였고, 맹자(孟子)는 “일정한 생업이 없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조(志操)와 의리(義理)를 선비의 덕목으로 말하였다.

공자(孔子)는 “향원(鄉原)은 덕의 적(敵)이다”라고 하여,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짓된 위선자(僞善者)를 싫어하였는데, 향원이라 사이비 위선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가 찾아오는 것까지도 싫어하였다.

선비는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학문과 덕행을 갖춘 인격체 등으로 조선시대의 양반이나 지식층의 사람들, 벼슬을 하지 않고 재야에 있는 상위 신분층을 일컫기도 한다.

선비는 철저한 윤리교육을 거쳐 실천철학을 익혀야 하며, 유학경전에도 밝아야 했고, 비록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났더라도 선비의 학문을 터득하지 못하면 선비의 행세를 할 수 없었으며 반면 농사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선비의 학문을 익혀서 선비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떳떳한 선비로 행세할 수 있었다. 선비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덕행을 고루 갖춘 하나의 인격체로 규정한 것이다.

선비의 가치 기준은 재(才)보다 덕(德)에 두었다. 송나라의 사마광(司馬光) 선생은 “대저 총명하여 사물에 밝고 강건하고 굳센 것을 재(才)라하고, 정직하고 한쪽으로 편벽되지 않은 것을 덕(德)이라 하며, 재(才)는 덕의 자(資)요, 덕은 재에 앞선다. 그러므로 재와 덕을 함께 갖추면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며, 재와 덕을 함께 잃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덕이 재를 앞지르면 군자(君子)라 하고, 재가 덕을 앞지르면 소인(小人)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선비의 덕을 옥에 비긴 것은 그만큼 덕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유교가 성행한 조선시대 재보다 덕을 수선(首線)한 것은 덕치주의의 실현을 최상의 정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며, 개인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재보다 덕을 우위에 두었음을 당연하다 하겠다.

실학자 유수항(柳壽恒) 선생은 “선비는 학문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구차한 이득을 바래서는 안되며, 정(精)을 다하고, 실(實)을 다하여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못쓰고, 의(義)롭지 못한 일을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사리에 어긋나는 이득을 집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선비가 취할 행동이라고 하

였다.

선비는 학덕을 겸비한 인격자요, 단아한 문사이며, 수양된 능력있는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예술인으로 직업 여하를 막론하고, 멋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선비 된 자는 효(孝)와 교(教)와 사(仕)에 관하여 지켜야 할 수신계(修身戒)가 있다. 첫째로 불효(不孝)해서는 안되며, 첩을 본처로 삼지 말고, 제후가 인정한 후계자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현자(賢者)를 존중하고 재능을 길러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로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국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비 된 자는 학식과 덕행을 갖추어야 하며,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도 선비에 대하여 세 가지 뜻으로 말하였으니, 첫째로 선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염치(廉恥)를 알아야 하며, 둘째로 절조(節操)를 지켜 나라에 보답하는 충의(忠義) 정신이 있어야 하고, 효자라는 칭찬을 듣고 이웃을 교화(教化)하는 계기를 주면서 자신에게는 언어에 신의(信義)가 있고, 행동에 과단성이 있게 된다면 의지(意志)가 굳세어서 스스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비 된 자의 인성과 행위를 논하였다. 그 실천적 학문 영역으로는 소학(小學), 대학(大學), 중용(中庸)의 덕목을 생활화하는 정신적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맹자 양혜왕장구편(孟子 讓惠王章句篇)에 무릇 선비는 젊어서 독서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하여, 장년이 되면 조정에 나아가 행도(行道)한다는 일정한 과정에 뜻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세에 따라 벼슬에 나아가든지, 향리에서 교학(敎學)에만 힘을 쓰든지 간에 도학을 숭상하는 학자적 자세(學者的 姿勢)를 견지하는 것이 참 선비의 정신세계이다.

이덕무(李德懋) 선생은 “선비의 말은 비록 적어도 실행(實行)하는 것은 의당 여유(餘裕)가 있어야 한다. 만일 말만으로 그친다면 말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하여 마치 모란(牡丹)꽃은 좋으나 열매가 없는 것과 같으니, 식견(識見)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한 것과 같이 말수는 적더라도 반드시 실행(實行)에 옮기는 때에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건창(李建昌) 선생은 “선비가 성현(聖賢)의 글을 읽고 몸을 닦아 행법(行法 : 行道)하는 것은 천하의 공의(公誼)이다”라 하였으며, 홍대용(洪大容) 선생은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때를 만나면 벼슬하여 안부존영(安富尊榮)을 누리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몸을 지키면서 자제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선비의



직분임을 천명하였다.

이덕무(李德懋) 선생은 “선비의 본분은 가정에는 부모에게 효도(孝道)하고, 밖에 나아가서는 어른에게 공경(恭敬)하며, 낮에는 밭갈이를 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 것”이라 하였고, 또 일을 살피되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느냐하면 분함을 참고, 욕심을 막고, 음식을 절제(節制)하고, 말을 삼가는 네 가지가 온갖 복잡한 일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중환(李重煥) 선생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선비가 살기 좋은 곳을 제시했는데, “대저 살 곳을 처음에 지리(地利)를 살펴보고, 다음에 생리(生利)를 보며, 다음은 인심(人心)이고, 또 산수(山水)를 살펴본다.

이 넷 가운데서 하나라도 빠지면 낙토(樂土)라고 할 수 없다. 지리(地利)가 아름다우나 생리가 좋지 못하면 오래 살 곳이 못되며, 생리(生利)는 좋으나 지리가 나쁘면 역시 오래 살 수 없고,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人心)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없으면 맑은 정서(情緒)를 기를 수 없다” 하였다.

김장생(金長生) 선생은 “선비의 출처(出處)는 사람의 대절(大節)이라”하고, 조식(曹植) 선생도 “사군자(士君子)의 대절은 오직 출처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라 하여 선비가 벼슬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意志)에 수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3. 선비의 정신세계(精神世界)

(1) 입지(立志)

선비정신의 근저는 입지에 있다. 선비가 뜻을 세우지 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공자(孔子)는 선비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이황(李滉) 선생은 입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선비가 병폐를 일으키는 것은 뜻을 세우지 못한 때문이다. 진실로 뜻이 정성(精誠)스럽고 돈독하면 어찌 배움에 이르지 않고, 도(道)가 들어 나기 어렵다고 근심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선비가 세운 뜻이 확고하면 정의(正義)를 위하여 두려울 것이 없고 공론(公論)을 그르칠 염려가 없다.

(2) 정의수호(正義守護)

선비는 국난을 당하면 목숨도 바치며, 득(得)을 보면 취하기 전에 먼저 의(義)를 생각한다. 자기를 알아주면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정신,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음을 당할지언정 구차하게 살기 위해 욕되게 하지 않았다. 선비는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까지 부귀를 탐내지 않는다.

허목(許穆) 선생은 원천석(元天錫) 선생의 묘명(墓銘)에서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은거하되 남기지 않는다. 선생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은 것은 아니며, 도를 지켜 변하지 않으며, 그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하여 고려에 대한 절의(節義)를 지킨 것에 존경을 표현하였다.

김천일(金千鑑) 선생은 성혼(成渾)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의(起義)의 동기를 “의(義)는 나라를 위해 마땅히 죽는 것이며, 평생 배운 것은 단지 이 의(義)를 익히고 닦는 데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감히 의(義)로써 권면(勸勉)할 뿐입니다”라 하여 평생 배운 의를 실천하기 위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라 하였다.

(3) 예의(禮義)와 염치(廉恥) 준수(遵守)

선비는 빈궁한 생활을 하더라도 도덕(道德)을 숭상하고 실천했으며, 반드시 예의와 염치를 지켜 자신의 책무(責務)를 다하였다. 선비는 예(禮)·의(義)·염(廉)·치(恥)·사유(四維)를 숭상하며, 사유 중 예·의 보다도 염·치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이언적(李彦迪) 선생은 말하기를 “선비의 습속(習俗)이 바르지 못하면 풍속도 따라서 훼손(毀傷)되고, 삼강오륜(三綱五倫)도 땅에 떨어져서 인륜(人倫)에 이변이 일어난다 하고, 이러한 것은 그 원인이 교화(教化)가 밝지 못한 데 있으며, 교화를 밝히는 것이야 말로 선비의 습속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조광조(趙光祖) 선생은 말하기를 “너무 급박(急迫)하게 조속히 변화를 구하려는 것은 병을 고치려다 독약을 음복하여 몸이 많이 상하는 것과 같고, 또한 너무 느긋하게 하면 유유자적(悠悠自適)하여 필경 떨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때에 따라 잘 살피서 지속(遲速)을 맞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 하여 다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지지부진해서도 안되며, 때에 따라 중정(中正)의 조화(調和)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선비의 습속을 밝게 하는 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선비정신은 뜻을 세워, 경건한 마음으로 학문과 덕을 쌓아, 올바른



길로 지조(志操)를 지켜 살아가려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4) 예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는 동몽(童蒙)의 초학서(初學書)로서 소학(小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래된 것이 없고, 송나라 때 주희(朱熹) 선생이 편집한 것이 우리나라에 전수되어 이언적(李彦迪) 선생이 그 중요성을 “효제(孝悌)를 터득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요순(堯舜)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하였다.

4. 사림정신의 근대적 성찰(省察)과 실현(實現)

(1) 도학 정신이 정착하면서 선비의식이 선명하게 표출되었는데, 선조 때에는 사림 자체가 내부의 분열이 대립을 일으켜 당쟁(黨爭)이 시작되면서부터 서로 비난하면서 주도권 쟁탈을 위해 살육전을 전개하였다.

당쟁의 출발점에서 보면 선비정신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여 비판하는 그럴듯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비가 자신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군자라 칭하고, 남을 소인으로 비난하면서 서로 격심한 적대감을 일으키었다.

선비가 권력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남을 견제할 때는 순수한 입장을 지키는 듯했으나,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려고 들었다. 이것은 선비의 타락상이요, 선비의 진실한 모습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선비가 국가권력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 향촌에서 온갖 특권을 누렸다. 국가가 선비를 우대하도록 요구하였고, 선비는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의 향유자(享有者)로 군림하게 되었다.

(2) 선비는 사회 문화의 규범(規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선비의 문화적 기준은, 한자로 된 중국문화에 젖어 민족문화의 자주성과는 유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선비문화가 점점 양반으로 세련되면서, 서민문화는 더욱 위축되거나 이탈되는 분열상을 보이게 되어 반상(班常)의 차별이 정착되고 신분주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조화는 붕괴되어가고, 계층 간의 분열상은 점점 심화되었던 것이다.

선비문화의 중요한 기능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규범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덕적 의례와 규범들이 선비의 계층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너무 강화하다보면 형식화되기 쉽다.

의례의 완벽한 집행자가 되기 위해, 선비들은 의례를 너무 섬세하고 지나치게 과장하여 조직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의범절이 너무 형식주위에 빠지면서 결국 실질적인 효율성을 외면하고 말았다. 조선 중기의 예송(禮訟)이라는 당쟁도 이러한 형식주의의 말기적 현상이었다.

(3) 도학적(道學的)인 관념성과 형식주의에 대해 반성하고,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던 새로운 학풍인 실학(實學)이 등장하였다.

실학파의 선비들은 도학적인 선비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예리하게 반성하고, 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이었던 유형원(柳馨遠) 선생은 신분의 귀천이 문벌에 의하여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여, “예법에는 나면서부터 귀한자가 없다”고 하며, 상하의 서열을 재덕(才德)과 연령에 따라서 나눌 것을 주장했다.

박지원(朴趾源) 선생은 선비는 도덕적 규범만 담당하고 생산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生産)에 참여하여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익(李瀾) 선생은 자신이 전형적인 선비인데도, “나는 실오라기 하나, 낱알 하나라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좀 벌레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선비의 바른 기풍(氣風)을 추구하는 것은 도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선비의 허위적 면모를 깊이 성찰하고, 진실한 선비의 모습을 추구한 것이 실학자 선비들이었다.

(4) 한말(韓末)에 이르러서는 도학(道學)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결국 나라가 위급한 지경에서야 선비들이 분연히 일어나, 유인석(柳麟錫) 선생은 1896년 의병을 일으키면서 “죽음은 선비의 의리이다”라고 하면서 선비의 의리정신(義理精神)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선비의 나라 조선이 이렇게 선비의 비극적 종말을 자초하게 된 것은, 보다 일찍이 선비의 정신을 가다듬지 아니하고, 너무 정체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때문이었다.

선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자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된다. 선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5.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現代的 意義)

박지원(朴趾源) 선생은 이미 선비가 지닌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를 “천하의 공변(公辯)된 언론을 사론(士論)이라 하고, 당세(當世)의 제일류를 사류(士類)라 하며, 온 세상에 의로운 주장을 펴는 것을 사기(士氣)라 하고, 군자(君子)가 죄 없이 죽는 것을 사화(士禍)라 하며, 학문과 도리를 강론하는 것을 사림(士林)이라 한다” 그는 또한 선비의 도학적(道學的)·인격적 위치(人格的位置)를 해명하여 “효도(孝道)와 우애(友愛)는 선비의 버리요, 선비는 사람의 버리며, 선비의 아름다운 행실(行實)은 모든 사람의 버리이다”라고 하였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선비는 그 사회의 양심(良心)이요, 지성(知性)이며, 인격(人格)의 기준(基準)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양상에 따라 비치는 모습에는 비록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비는 각 시대에 지도적 구실(指導的 口實)을 다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현대적 시대 이념을 수호하고, 인도할 주체로서 선비의 구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독립투쟁기에는 의사, 열사가 요구되고, 산업사회에서는 경영자·기술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선비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요, 지성인임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통적 선비 상(像)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곧 선비는 현실적·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기를 추구하는 가치의식을 갖는 사람이며, 그 신념(信念)을 실천하는데 비굴함이 없는 용기를 지닌다. 또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아는 자기성찰(自己省察)의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을 통합하고, 조화(調和)시키는 중심적 가치기준을 가져야 한다.

선비는 이제 특권을 갖는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기준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한 인격의 모범이요, 양심의 주체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할 새로운 힘과 개척정신의 소유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는 개척정신(開拓精神)이 있어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고, 일본은 무사도 정신(武士道 精神)이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선비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도덕적 재무장(道德的 再武裝)부터 해

야 할 것이다.

백성의 귀감(龜鑑)이 될 수 있는 검소(儉素)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박지원(朴趾源) 선생의 허생전에서 선비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비의 사회적 공의정신(公義精神), 백성을 위한 마음 등은 20세기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에 중요한 뿌리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중대한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갈 지성과 사회적 소명의식(社會的 召命意識)을 내포하여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정신적 원류(精神的 原流)가 되었다.

선비 정신은 합리성과 실질보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강조함으로 인해 맹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세기에 진보 세력인 개화파는 친일 또는 친로파로, 동학의 민족 운동은 동비(東匪)로, 양명학이나 주자학에 대한 학자적 비판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서학을 사도(邪道)로, 서로 간의 매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론이 합일되지 못하는 잘 못된 폐단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비정신은 우리 사회의 정당성(正當性)을 부여하고, 역사를 의롭게 이끌어 가려는 지성(知性)과 정의(正義)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건전한 비판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를 각성(覺醒) 시키는 교육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기주의(利己主義)를 탈피하기 위해 옛 선비들의 공동체를 위한 인의정신(仁義精神)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렴을 실천으로 물질편중사상(物質偏重思想)을 바로잡아 2세들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고 밝은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와 교육을 통하여 도덕적인 심성과 태도를 길러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補完)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人性教育)에 비중을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선비의 모습은 따뜻한 심성(心性)에 예의(禮儀)와 염치(廉恥)로 의리(義理)와 지조(志操)를 지키는 수행의 수법 인격체(守法 人格體)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參考文獻)

- (1) 이행등,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1~7권, 술, 1996
- (2) 일 연, 삼국유사, 민중서관, 1958
- (3) 강영선, 세계대백과사전, 교육 출판사, 1988
- (4) 강주진, 조정암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982
- (5) 금장태, 정암과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일지사, 1978
- (6)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 정신, 서울대 출판부, 2000
- (7) 김길환, 한국양명학연구, 일지사, 1981
- (8) 단국대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성시, 1999
- (9) 민병하 등, 한국의 인간상 1~7권, 신구문화사, 1966
- (10) 박상복, 내 고장의 맥, 경인 일보사, 1984
- (11) 성낙구, 안성향토자료집, 비봉기획, 2003
- (12)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 상하권, 문음사1998
- (13) 안성군지 편찬위원회, 안성군지, 1990
- (14) 우인수, 조선후기 산림세력 연구, 일조각, 1999
- (15)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 (16)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 연구, 박영사, 1992
- (17)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 1~5권, 아세아 문화사, 1997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한국의 역사상』 1~7권, 신구문화사, 1966



安城場市에 대하여*

1.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의 상업활동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에도 각 지방의 城邑의 市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場市와 같은 형태의 지방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인 발달상황으로 보아 지방에서도 미약하나마 장시형태의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장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모습을 드러내고 官設市廛들이 정부와 관청의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대개 서울이나 지방의 官衙가 위치한 곳을

※이 글은 지난 1989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7호에서 김대길의 글을 발췌·수정한 것임



중심으로 官費로 설치된 반면, 장시는 일반 백성들의 욕구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개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장시는 주로 교통의 요충지나 物貨의 集散地에 개설되어 지방 상업 활동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지방 장시의 개설을 조선 중기 이래 兩亂을 경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안성장시는 지리적인 위치와 특산물의 생산 등으로 한때 서울의 市肆 보다도 더 크다고 표현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안성은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하여 장시가 발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 物物交易의 중심지, 많은 상업인구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안성장시는 鑪器 생산이라는 이지방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 조선중기 이래 전국에서도 이름난 지방장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지방장시로서 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안성장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조선시대의 장시발달 추세를 살펴보고, 안성장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배경과 안성장시가 발달해 간 모습을 고찰해보려 한다. 그리고 안성장시를 특징짓는 안성유기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 보려한다.

2. 朝鮮前期의 場市發達趨勢

조선왕조는 농본주의를 국시로 하여 상업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억압적이어서 초기부터 큰 발전을 할 수 없었다. 상공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근본인 농업에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백성을 간사하게 만든다는 생각아래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한편 상공업인들을 천시하여 상공업의 자유로운 발달이 어려웠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 생산력이 빈약한데다 교통의 불편 등으로 상업지대가 부진하였으며, 당시의 경제생활이 농업을 위주한 자급자족적인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업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이 유교적인 양반관료 체제하에서의 조선 초기의 상업은 관청이나 양반계층에 대한 어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일반 백성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억압하는 한편 정부와 官府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시키기 위해 그들의 추종자를 내세워 官設로 市廛을

설치하고 이들 시전상인들에게 상업 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양의 점포세와 상업세를 납부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수요를 공급하는 대신 이들이 판매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禁亂塵權을 부여하였다.

조선왕조는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전상인들로 하여금 私商人과 潛商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를 시전상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상업상의 독점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파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매매하는 모든 상업활동을 亂塵이라하여 단속하였던 것이다.

한양에서의 官設市塵은 현 종로 네거리로부터 창덕궁 입구에 이르는 거리에 좌우에 8백여간의 行郎을 마련하여 상업활동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들 시전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상품을 독점한 綿塵·綿布塵·綿紬塵·紙塵·苧布塵·魚物塵 등은 후일에 이른바 六矣塵이라하여 가장 번성하였다. 그리고 開城·水原·平壤등의 지방 도시에서도 常設店舖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정부와 지방관아의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주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한양을 비롯한 지방의 監營이 소재한 도회지에는 官設詩塵이 있어 지방의 상업활동을 담당하였다. 이후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사회가 변화되어가는 것과 더불어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장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성종3년(1472)의 기록에

“전라도 務安 등 여러 읍에서 興利之徒가 場門(장시)을 개설하고 매월 2회씩 인근 주민들을 모이게 하고 有無相通하게 하는 바 이는 농업을 버리고 상업을 좇는 것이며 물가를 앙등시키는 등 이익보다는 폐단이 많다.”라고 하여 장시가 개설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월 2회씩 개설되는 15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장시도 농민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개설되었는데 官府는 장시의 발달이 농업에 폐해가 될 뿐 아니라 물가앙등 등의 요인이 된다는 인식 아래 장시개설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궁답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장시개설에 대한 官府의 입장은 흉년이 당했을 경우 뜻있는 지방 관원에 의해 賑恤策이나 救荒策의 일환으로 장려되는 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장시 개설에 대해 억제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농민의 수가 줄고 상업에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는



本末觀에서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지역마다 자급자족적 생활이 목표였고 상업은 백성들을 간사하게 만들고, 놀고먹는 자들을 늘려 교화에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에서 폐쇄적인 정세를 지향하여 産物의 유통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시발달의 자연적인 추세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금지는 못하고 있었다. 중종 때에 이르면 장시는 전국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종 실록에, “南袞이 말하길…지금 각 도에는 모두 場門(장시)가 개설되었는데 본인이 전라도 관찰사 였을 때 이를 엄금했는데, 지금은 또 예전보다 더욱 심하여졌고 시장에 나오는 자가 幾萬名에 이르는데 이는 모두 농사짓는데 힘쓰지 않는 이들이어서 백성의 일에 방해됨이 심각하다.”라고 하여 전국적인 장시발달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발달 추세와 함께 지리적으로 한양과 전라·충청·경상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안성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장시가 개설 되었을 것이다. 안성장시가 개설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일찍 장시 개설이 이루어졌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에도 경기도내의 장시개설에 대해서는 한양의 육의전 등 관설시전의 보호와 물화수요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른 지방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 안성에 장시가 개설될 때에는 정부의 이와같은 금압정책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장시개설의 자연적인 추세를 가로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장시개설의 확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과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대동법의 시행과 더불어 화폐유통의 전국적인 확산, 私商人의 대거 등장 등으로 장시개설을 邑治중심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 山谷間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18세기 말 경에는 전국에 걸쳐 ‘천여개 이상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3. 安城地方의 經濟的 背景

안성지방은 경기도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고장으로 동쪽으로 이천시에 서쪽은 평택시에, 북쪽으로는 용인시에 接境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은 충북의 진천

군, 음성군과 접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의 천안시와도 접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성지방은 경기도의 3개시, 충북의 2개군, 충남의 1개시와 접경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지방이 이처럼 수많은 지방들과 광대한 접촉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物貨交流의 잇점을 보장하는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안성장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지리적 잇점을 擇理志의 저자 李重煥은 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수원 동쪽은 場城과 安城인데, 안성은 경기와 호서지방 바닷가 사이에 있어서 貨物이 수송되고 工人·商人들이 모여 들어서 漢陽 남쪽의 한 都會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邑 밖은 비록 평지라 하여도 땅에 殺氣가 있어 살만한 곳이 못된다.”³⁾

장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비인구, 다량의 물자공급, 교통의 요충지 등의 입지조건이 요구되었는 바 안성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大場市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중환이 지적하였듯이 안성지방의 상업의 발달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곳의 땅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성지방의 地勢는 속리산의 餘脈이 동남쪽으로 뻗어 七賢山을 이루고 있다. 七賢山의 2大支脈의 하나가 동쪽과 북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七賢山과 그 2大支脈이, 안성지방의 동북부는 산악지대를 이루고 서남부가 평야지대를 이루는 지형을 갖추게 하였다.

따라서 안성지방의 총면적 중에 산악 및 구릉지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성지방 사람들은 농업생산의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는 생활의 收入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안성인들은 생존상의 역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鎗器·煙管 등과 같은 이 지방의 특산 물품을 생산하여 전국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생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로에 위치한 안성은 상업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시 되어 康富驛·光寶院·大悲院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후 지금의 안성시에 편입된 竹山에는 分行驛·佐贊驛·大平院·普賢院·通梨院·獐項院·梨院 등이 있었으며, 陽城에는 加川驛·禪院·素沙院 등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⁴⁾ 조선시대의 驛站이나 院 등은 상업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군사적인 의미로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兵曹에서 관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안성은 “畿湖之交 三南之板館口”라고 표현되고 있듯이 당시 東萊⇨大邱⇨忠州⇨龍仁⇨栢橋⇨漢城으로 연결되는 嶺南路와 靈岩⇨羅州⇨井邑⇨公州⇨水原⇨漢城으로 연결되는 湖南路를 이어주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었다.

4. 安城場市の發達

장시는 “行商이 모여서 교역하고 물러가는 것을 場이라 한다.”라고 한것과 같이 처음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에 상인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이 모여 필요한 물품들을 교역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들 장시의 開市日이 처음에는 1개월에 2회 내지 3회씩 개시되는 10日市 또는 15日市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상업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이후에는 대개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열리는 1개월 6개시장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들 장시는 보통 邑治를 중심으로 30~40리 간격으로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때로는 주위의 장시들과 연계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개설되어 기능하는 것도 있었다. 안성장시는 처음 개설 될 때부터 지금처럼 5일장으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이점에 힘입어 1개월 6개 시장으로 개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안성장시는 주위의 다른 장시들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크게 발달하였다. 안성장시가 다른 장시들과 관계하면서 발달한 상황을 다음의 도표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林園十六誌』에 나타난 竹山·安城·陽城의 場市⁶⁾

郡縣	場市名	위 치	개시일
竹山	府內場	官 門 里	4.9
	二寶場	西2里 西南面	3.8
	排甘場	北30里 近三面	1.6
	注川場	東20里 南一面	3.8
安城	郡內場	南 里 許	2.7
陽城	縣內場	(邑 內)	4.9
	素沙場	南30里 九龍面	5.10



邑表(1871)에 나타난 竹山·安城·陽城의 場市⁷⁾

郡縣	場市名	위 치	개시일
竹山	邑內場	(邑 內)	5.10
	注川場	東20里 川南一面	3.8
	排觀場	北30里 近三面	1.6
安城	邑內場	(邑 內)	2.7
陽城	邑內場 素沙場	東2里 禪院川邊(今廢) 南30里 素沙院東	5.10

위 두표를 가지고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임원십육지에 나오는 죽산의 二賣場과 양성의 邑內場이 1871년 읍지가 편찬될 당시에는 그 기능을 잃고 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장시가 폐지되는 이유는 먼저 이실장은 府內場과 거리상 근접해 있고 더욱이 개시일이 注川場과 중복되어 점차 그 존립의 의미를 상실하고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성의 읍내장은 당초 이 지역에 설치된 禪院을 배경으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이후 禪院은 1871년 간행된 읍지에 보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양성의 읍내장은 장시개설의 배경이 되었던 禪院의 폐지로 이곳을 이용하던 상인들과 物貨流通이 줄어들자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도 장시는 교통의 요지, 많은 소비인구, 다량의 물화유통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점차 변성하여 갔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안성장시는 죽산과 양성지방 이외에 근접해 있던 다른 장시들과도 연계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충주의 無極場(5·10일), 木川의 并川場(1·6일), 稷山의 下場(4·9일) 陽智의 介川場(4·9일)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번갈아가며 개시일을 정하고 지역적인 시장권을 형성하면서 더욱 성장하여 갔다.

안성장시가 발달한 모습을 이 지역에서 매매되었던 상품을 가지고 살펴보자. 『임원십육지』에 기록된 전국의 1,052개 장시가운데 상품목록이 있는 장시는 328개소이다. 이 가운데 竹山·安城·陽城의 상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죽산의 府內場은 米·豆·眸麥·綿布·綿冠·果物·牛犢 등이었다. 안성의 郡內場은 米·豆·眸麥·脂麻·水蘇·綿布·魚鹽·棗·栗梨·鎗器·鐵物·沙器·柳器·木物·笠子·蓑笠·皮革·生麻·茵席·壁磨·砧石·木臼·木盤·牛犢 등이었다. 그리고 양성의 縣內場은 米穀·綿布·魚鹽·棗·栗·梨·柿·



松茸·鐵物·木物·瓮器·煙竹 등이 매매되었다.

이와 같이 안성장시에 출하된 물품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鑰器는 전국적으로도 그 명성을 떨치던 상품이었다. 조선후기이래 안성장시는 전국에서도 물건이 제일 많고 다양했음은 서울장안 보다도 두세 가지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안성의 상업적인 위치는 대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상인들이 다양한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려면 안성장에 들러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할 정도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안성장시가 전국에서도 이름난 장시였음은 영조 때의 실학자인 燕岩 朴趾源의 熱河日記 玉匣和에 실려 전하던 한문소설 許生傳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許生은 가난에 이기지 못해 공부를 중단하고 長安의 卜부자에게서 10만냥을 빌려 농산물과 청과물의 집산지로 유명한 안성에 내려와 안성시장을 무대로 三南地方에서 올라오는 際需用 과실인 배·감·대추·밤 등을 매점하여 한양의 장터는 청과물을 구하려는 상인들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서 조상의 제사상을 차리는데 필요한 청과물은 값이 있는 대로 뛰어, 허생은 결국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허생전의 내용에서와 같이 조금의 과장은 있었지만 안성장시에 集散되는 물품만 매점하면 한양의 物貨流通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안성은 거대한 장시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허생전에서 보이는 매점매석의 현상은 조선후기 상업의 특이한 일면이었다. 17세기초부터 시행된 대동법의 영향으로 官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貢人들의 활동과 정조 15년(1791) 辛亥通共이 실시됨으로써 더욱 활발해진 私商人들의 활동은 각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드는 要路에 위치한 장시나 서울 주변의 장시에서 매점매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왕조는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일어나는 일반 백성들의 상업욕구를 억누를 수만은 없었다.

이에 따라 市塵商人들이 가지고 있던 禁亂塵權을 六矣塵에게만 부여하고 모두 취소시켰다고 이로부터 私商人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인정되었고, 상품유통에 대한 제한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감에 따라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보다 넓은 시장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私商人들의 왕성한 상업활동으로 발행하는 都庫商業은 심할때는 서울내의 상품유통을 두절시키는 등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실제로 순조 37년(1833)에 서울에서 쌀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

였다.⁹⁾ 사상인들은 상품의 판매와 구입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와 계절의 변동을 이용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시장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각 지방의 장사에서 매점매석을 통해 부를 축적해 갔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조선후기 서울의 관문을 이루고 있던 한강 나루터에 자리 잡고 있던 江商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江商들은 조세로 들어오는 미곡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당시 20만에 달하는 서울 주민의 식량의 많은 부분이 江商과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미곡 상인들에 의해 충당될 정도였다. 이들은 봄과 가을, 흉년과 풍년, 쌀 부족과 공급과다 등의 변동을 이용해 쌀값을 올리고 내리는 농간을 마음대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1833년의 쌀값 파동은 한성의 빈민들이 봉기하게 되었고 이들 미곡 상인들의 상점이 습격당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안성장시는 그 지리적인 위치에 힘입어 많은 物貨가 集散되었다. 이와 같은 상품 유통이 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과 소비인구가 많아야 했던 것을 우선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장시에 있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상인의 활동이 활발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상업의 무대는 장시였고, 이 장시를 배경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한 것은 行商과 襍負商들의 활동이었다. 行商들의 활동은 17세기 이래로 官주도의 봉건적 상업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들 행상들 즉 사상인들은 禁亂塵權을 가진 특권상인에 대치되는 상인들로서 특히 서울 주변의 京江商人 및 송파·樓院 장시의 상인들과 밀접히 연결되면서 都城내외의 시전상인들의 利權에 도전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은 1791년 辛亥通共 조치 이후 한창더 성장할 수 있었다. 신해통공으로 시전 상인들이 입은 타격은 대단했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고 활발한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사상인들의 등장은 조선후기 농촌에서 농법개량·농지개간 및 상품작물의 재배 등으로 잉여 생산물이 시장에 판매되면서 더욱 활발해졌고 새로운 상업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상업인구 수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한 보부상들은 나름대로 강력한 조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개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30~40리 지리



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市場綱을 순회하면서 각 지방의 물품유통을 촉진시켰다. 보부상은 裸商과 負商을 通稱한 것으로 그 상품판매에 있어서도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보상은 주로 정교하고 비교적 값이 비싼 물품 즉 布·帛·紙物·煙竹·鎗器·金·銀·銅·文筆 등을 판매하였다. 이에 비해 負商은 비교적 조잡한 일용품으로 값이 싼 木器·土器·도자기·홍두깨·草席·짚신·魚鹽·竹物 등이 주 상품이였다.

이들 사상인과 보부상들의 활동은 각 지방장시의 물화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商圈을 확대시켜 나갔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었고, 특히 안성의 유기와 같은 특색이 있는 생산물을 전국적으로 판매되게 하였다.

안성장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순조 9년(1809)에 간행된 『萬機要覽』에 전국에서 최대 장시로써 15곳을 들고 있다.

이들 15대 장시는 경기도의 廣州沙坪場·松坡場, 安城邑內場, 交河茶陵場, 공충도의 恩津江景場, 稷山德坪場, 전라도의 全州邑內場, 南原邑內場, 강원도의 平昌大和場, 황해도의 兎山飛川場, 黃州邑內場, 鳳山銀波場, 경상도의 昌原馬山浦場, 평안도의 博川津頭場, 함경도의 德源元山場 등이 있다.¹¹⁾

안성장시는 이 15대 장시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 장시 가운데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이 4곳이나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지방의 物産이 서울로 집중되는데 서울 주위에 위치한 광주사평장·송파장·안성읍내장·교하공릉장 등은 그 지리적인 위치에 힘입어 大場市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安城場市와 場稅

조선전기의 상업에 대한 억압정책은 중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점차 완화되는 한편 시장에서의 상업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상업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하여 갔다. 지방장시의 개설에 대한 금압책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장시개설을 인정하되 장시에 출입하는 상인들로부터 일종의 매매세를 징수한 것이다.

그런데 場稅는 각 지방마다 收稅率이 일정하지 않았고, 징수방법 또한 일정한 규칙이 없었으며 물품의 많고 적음과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稅額은 장세를 거두어들이는 官吏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은 18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화폐유통이 일반화되었을 때는 화폐로 받아 들였지만 처음에는 시장에 나오는 현물로써 징수되었기 때문에 장세징수에 따른 폐단은 상당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세를 혁파하여 이러한 폐단을 제지 시키고자 했으나 조선후기 각 지방 관아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쉽게 혁파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장세를 혁파하지 못한 것은 그 만큼 장세가 지방관아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장세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安城이나 全州·恩津·黃州 등과 같이 장시가 크게 발달한 곳에는 일정한 場稅收 捧之規가 정해져 있었는데 英祖 3년(1727) 비변사등록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안성군수 徐宗集이 장세를 혁파한 후의 民弊에 대한 일로 보고 하였는데 이 狀啓를 올려 보고한 것은 얼마 전 需臣들이 보고한 각 道의 장세를 혁파한 것은 장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역시 수령이 私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陵寢之役과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않고 모두 이 장세로써 補用한다. 지금 만약 장세를 혁파하면 陵役과 勅需는 이전에 없던 役인데 장차 民間에서 거두어들이게 되면 그것이 民弊가 될 것은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안성 한 곳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海西의 黃州, 湖南의 全州, 湖西의 恩津도 모두 이 場稅收 捧之規가 있으며 그 사용되는 바가 대부분 官家의 공적인 비용으로 쓰인다. 지금들으니 지방의 場稅微納之規가 一入一 馱受錢一葉이라 하는데 一葉의 돈이 상인들에게 무슨 손해가 될 것은 없지만 장세가 官家에 관계되고 있는 것은 많다.

이와 같이 장세는 陵寢之役이나 供勅之需와 같은 관가 公費에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의 수령들이 私用하는 경우가 많아 폐단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장시의 장세는 “一人一 馱受錢一葉”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장세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장세를 혁파할 경우에는 陵寢之役과 供勅之需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 백성들에게서 거두게 되므로 또다른 폐단이 일어나니 장세를 혁파하지 말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장사에서 이와 같이 장세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장시가 이미 상당한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성장시의 경우 18세기에 들어서서는 그야말로 전국에서도 이름난 大場市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왕과 대신들이 장시문제를 논의할 때 지방장시의 본보기로 안성장시가 거론되고 있었다. 영조 7년(1731)에도 안성 장시에 대해 논의 되었는데,

“……황주·안성 등의 징세는 그것이 巨場이기 때문에 1개월 6번 걷힌 장세는 그 액수가 많지만 시장 상인들이 내는 것은 지극히 적어서 고충이 되지 않으며 장세는 民役に 사용하므로 대단히 긴요하다. 지금 만약 장세를 갑자기 모두 혁파한다면 반드시 부족한 곳이 있게 될 것이다. 징세를 거두는데 그 폐단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약 장세를 거두는데 그 폐단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약 장세를 거두지 않으면 도리어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형조판서 尹()이 말하길 국내의 장사에서 세금을 거두는 곳은 많지 않아 안성·전주·황주·은진 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물품을 등에 지고 다니며 파는 자에게는 1文을 징수하고 물품을 수배에 싣고 다니는 자는 2文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나 전주 같은 곳이 大都會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자못 많아 가을과 겨울에는 더욱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령이 私用할 바는 이니라…”라고 하여 황주나 안성 등도 거장이므로 1개월에 6차에 걸쳐 거둬들이는 장세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세는 民役に 補用하고 있어 대단히 긴요한 것이며, 장세 수세율은 “負販者 徵一文 載貨者 徵二文”으로 결코 상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23년(1747)의 기록에 “本郡(안성)의 장시는 서울의 市肆보다 크고 物貨가 모이고 도적 무리들이 모여들어 안성을 도적들의 소굴이라고 지칭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¹⁴⁾ 라고 하여 위의 표현이 조금의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의 안성장시는 物貨流通量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 및 일반인들의 수가 서울에 못지않게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농촌을 떠난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어 농민들이 상업 활동으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무리를 지어 도적의 집단이 되어 장시를 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장시가 避役農民들의 새로운 활동처가 되는 동시에 도적들

의 소굴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장시를 유해무익한 것으로 알고 금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안성 장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장세가 징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 18년(1794)에 편찬된 『賦役實摠』에 지금의 안성시 지역인 竹山·安城·陽城지방의 장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竹山 290兩7錢

注川場 自八月至二月 每朔十五兩

自參月至七月 每朔七兩五錢

排觀場 自八月至二月 每朔十五兩六錢

自三月至七月 每朔七兩八錢

安城 720兩 每朔六十兩式

陽城 103兩 3錢

素沙場 每朔9兩 五六兩朔 四兩3錢

위의 자료에서 보면 이당시 안성은 경기도내의 군현 가운데 행정구역상 그 크기나 중요성에서 17번째에 해당하였지만 『부역실총』에 나타난 경기도 지방의 장세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가 징수될 정도로 상업활동이 왕성한 지역이었다. 죽산은 안성장시와 인접한 관계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었고, 양성지방도 행정구역상의 크기나 중요도에 비해 많은 양이 징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장세는 계절에 따라 장세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추수기로부터 다음해 2월까지 3월~7월 사이의 장세보다는 많은 양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절별 장세징수의 차이는 다른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었다.

죽산·안성·양성 지방에서 걷힌 장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앞에서 인용한 자료처럼 관아 公用으로 쓴다는 정도였다. 그런데 『부역실총』에서 보이는 다른 지방의 장세를 사용한 용도로 볼 때 안성 역시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장세는 대부분 使客迎送費·春秋大祭價·分養馬黑牛喂養草價·鄉所饌價·各營納物價·分事持者扉價등 지방관아의 중요한 공용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안성을 비롯한 죽산·양성지방에서 걷힌 장제도 이 지방의 관아재정



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6. 安城의 鑄器産業

각 지방의 장시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나 物貨의 集散地에 위치하여야 大場市로 발달 할 수 있었음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지방장시가 발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지방 나름대로의 特産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농산물이든 수공업 제품이든 다른 지방과는 분명히 비교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했다. 조선후기 이래 그 지방만의 특산물을 배경으로 이름난 곳은 많았고 또 지금까지도 지명과 함께 생산물이 따라 붙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대구의 藥令市, 강화도의 화문석, 상주의 배, 한산의 모시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안성장시도 이와 같이 안성특색의 鑄器 생산품이 있었기에 大場市로 발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안성의 鑄器工業을 장시발달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안성지방에 언제부터 유기가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成宗 13년(148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안성에 대해 “場市尙利 工匠資生”¹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工匠”이 鑄器匠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15세기 중엽이, 안성지방은 수공업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正祖 15년(1791) 日省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安城工匠에게 錢貨二萬兩을 給貸해 준 기록이 있다.¹⁷⁾ 그러나 여기서도 말하는 “工匠”도 鑄匠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다른 工匠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안성에 유기공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純祖 3년(1803)에 간행된 「林園十六誌」에서 알 수 있다. 林園十六志 倪圭誌에 의하면 安城邑場의 거래상품으로 鑄器가 나와 있다. 이로 보건대 늦어도 18세기 말 부터는 안성에서 유기가 상품으로 제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자료는 안성읍에는 憲宗 7년(1841)에 세워진 “郡守 鄭侯晚教永世不忘碑”가 있는데 이 碑文에 『我侯淸日孰不蒙惠千載爲土 犬切工匠 道光二十一年 辛丑十二月 日鑄店 鑄店 笠店 匙店 煙竹店 治店 木手店 皮店 鞋店 馬鹿店 立』¹⁸⁾ 이라고 새겨져 있다. 여기서 鑄店은 솥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장이고, 鑄店은 쇠를 녹여 쇠붙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이다. 그리고 題店은 솥손가락과 솥젓가락 등을, 笠店

은 갓이나 망건을, 煙竹店은 돛담배통과 돛물뿌리를 만드는 작업장들이며, 治店은 야장간, 木手店은 각종 목제품을, 皮店은 가죽을, 鞋店은 갓신을 만드는 작업장들이었으며, 馬鹿店은 아마 짐승들의 가죽을 다루는 작업장 인듯 하다. 이로 보아 안성의 유기제조업은 19세기경에서는 상당히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안성은 19세기 중엽에는 유기 제조업을 비롯한 철주물업, 갓 및 망건 제조업과 목공업, 신발제조업, 각종 가죽제조업 등 일련의 수공업이 발달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원료는 돛그릇 제품을 생산하는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안성의 유기는 전국에서도 이름난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 이로써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안성에서는 공장제수공업이 일정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늦어도 18세기 말부터 크게 발달하기 시작한 안성의 유기공업은 이후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유기사용이 일반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그 생산품 또한 日常用品으로 제작되어 유기산업은 지방의 특수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여름철에는 도자기를 사용하고 겨울철에만 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¹⁹⁾ 그러나 점차 유기 산업의 발달로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번잡하긴 하지만 참고삼아 유기 제품의 품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大接盤尿·大床江(요강)·小尿江·大和周鉢·蓮葉周鉢·蓮葉女周鉢·鉦里·鈹牙里酒煎子(주전자)·中大接·蓮樺大接·男湯器·大兒大接·大丙斗里·小良盆·卵盒·十盒·大更金里·熱冷(승냥)酒煎子·大酒盒·藥斗九里(두구리)·大撓鈴·前炭板·大唾口巨安支·具着吐口·大前大地·大中盤雙(반상)·大沙瓮·蹄金·長盤·鍾子·受接·大福壽大也·大草盒·大酒煎子 등 36종을 헤아릴 수 있다.²⁰⁾

조선전기의 匠人은 국가나 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관청에서 소집할 경우에 응해야 했다. 그리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을 장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양의 匠稅를 국가에 납부 해야했다.

그러나 임진·병자란을 이후로 장인등록제는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장인들은 국가나 관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私營手工業을 영위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 인구증가와 더불어 소요 물품의 증대와 생산품의 다양화 등으로 장인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조선후기 수공업 발달에 한층 더 기여한 것은



대동법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대동법은 소작농민에게 부과되었던 貢物 부담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시킴으로서 생산담당자인 농민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일반 농민들은 국가에 바치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욱이 공물 대신 포나 쌀 돈 등으로 납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관리들의 수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써 농민들은 나름대로 가내 수공업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은 貢人이나 어용상인에 의해 조달되게 되었으므로 공인들이 주도하는 민간 수공업도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이래 이양법의 보급은 필요 노동력을 감소시켰고, 전쟁으로 인한 경작지의 축소와 거듭되는 흉년 등은 일반 소작농민들을 고용노동자인 머슴으로 전락시키거나 行商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유결식 또는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조선후기 신분제의 해체와 함께 토지를 떠난 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노비들과 심지어는 일부 몰락 양반들까지도 상업에 종사하거나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되어 공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유기 수공업 분야도 더욱 활기를 띠어 갔다. 조선후기 유기는 일반 서민들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임원십육지』에는,

“우리나라 풍습은 늦그릇을 가장 귀히 여겨 아침저녁으로 상에 오르는 그릇으로 모두 늦그릇 식기를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오직 왕가나 부호의 집에서나 늦그릇을 사용 했는데 지금은 궁벽한 곳의 초가집에도 유기로 된 그릇 3~4벌이 있게 되었는데 ……”²¹⁾

라고 하여 유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기수요에 발맞추어 鑰器匠들의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안성 유기산업에 대해 조사한 金永錫 교수의 조사보고²²⁾에 의하면 1965년 당시만해도 안성에는 19세기 이래 유기업을 가업으로 전승해온 집으로 都正圭氏家, 尹基炳氏家, 李百歲氏家, 金基俊氏家, 卞仁洙氏家, 李聲淳氏家 등이 있었다. 이들은 家系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그 祖父代 또는 부대의 직업은 농사에 종사한 양인 또는 몰락 양반들이었다.

유기병씨의 祖父는 察訪 벼슬까지 하고 양반농민으로서 19세기 말에 유장들



을 고용하여 유기를 생산했다고 하며 都正圭翁의 부친도 19세기 중엽에 농사를 지으면서 家業으로 유기제조업을 계승하여 수십명의 鑄器匠들을 고용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안성 유기제조업자들은 대부분 양인 농민출신이었고 일부는 몰락한 양반 출신들이었다.

안성의 유기수공업자들은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파는 상인활동도 하고 있었다. 안성장시는 잘 알려진 대로 매월 6번 열리는 2·7일 장이다. 그러므로 4일간 유기제품을 제조하여 장날에는 “塵내기” 또는 “장내기”라는 방법으로 도매 또는 소매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관청과 상인 또는 일부 부유한 개인들의 주문에 의해 생산을 하기도 했는데 이 주문생산은 “맞춤”이라고 해서 특별한 정성과 기교를 들여 제조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꼭 맞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안성맞춤”은 곧 안성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는바 金台榮은 『安城記略』에서 안성맞춤을 ‘安城定做’라고 하였는데,

“안성은 古來로 유기가 名産이요. 안성유기는 견고하고 정교하게 제조하므로 전국에 환영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물품이 견고하든지 事機가 확실하든지 혹은 忽致之物이 不意之需에 可습하든지 하면 안성맞춤이라 하여 전국에 통용되나니라”²³⁾라고 하여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겨난 유래를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성맞춤으로 이름난 안성유기는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유기 제조업이 안성에서만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외에도 개성과 전라도의 구례, 전주 그리고 황해도 재령군의 은산면 일대도 유기산업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임원십육지에 기록된 장시 가운데 상품 목록이 있는 장시 가운데 상품목록이 있는 장시는 328개소이며 그 중 유기가 출품된 장시는 91개소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곳에서 유기가 매매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19세기에 이르면 유기제품은 전국 각지의 장시에서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의 경우 19세기 중엽 이래 약 50개의 유기 제작소가 있었고 한곳의 작업장에서 매일 생산하는량은 주발, 대접, 합, 바리, 탕기 등 20여벌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각 제작소의 생산고는 가동일을 24일로 계산하면 매달 약 500여벌이며 연간 생산량은 6,000여벌로 된다. 따라서 안성의 50개 鑄店의 연간 생산량은 최소한 30여만벌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측 계산된다.²⁴⁾ 앞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안성은 八道の 産物이 집중되는 곳이었다는 점이 안성의 유기 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안성의 유기수공업자들은 각 지방의 物資가 集散되는 안성장시를 통하여 遂安·寧越·報恩 등지에서 산출하던 國産銅과 무역품으로 들어오던 倭銅·錫·鉛 등의 유기원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원료를 만들어진 유기제품을 전국의 광범한 수요에 응하여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성장시가 유기를 비롯한 각종 특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전국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지리적인 이점이 작용하였고 거기다 안성인들이 유기를 비롯한 특산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있어 탁월하였고 또한 그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안성인 특유의 상인기질을 발휘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성인들의 상인 기질을 나타내는 말로써 다음과 같은 俗言과 俗謠들이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京畿 安城 큰아기 유기장사로 나간다. 한넵팔고 두넵팔아 파는 것이 자미라. 경기 안성 아기 손가락 장사로 나간다. 銀동질이 반수저에 꺾기 손같이 격이다.”

“安城鑰器 半福字 蓮葉周鉢은 시집가는 새아씨의 선물감이라.”

“안성 가신(가죽신 또는 미투리, 꽃신을 말함) 반저름(半油難)은 시집가는 새아씨 발에 마침이다.” “안성 油紙는 시집가는 새아씨의 빗집(梳入) 감에 아침이다.”²⁵⁾ 이들 내용으로 보아도 안성장시의 상품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기제품과 가죽·종이를 원료로 한 수공업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안성 큰아기 유기장사로 나간다.”는 구절이다. 성숙한 묘령의 처녀들조차 유기를 들고 行商의 길에 오를 정도로 안성인의 상인적 기질이 대단히 끈질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업을 천시하는 전통적인 직업관이 안성에서는 여지없이 타파되고 여자들까지도 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옛날부터 개성·수원·안성 상인들의 財利에 밝은 商才를 찬탄하여 이들 지역의 상인은 발가벗고 80리를 달린다는 俗言에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7. 開港後 安城場의 變化

조선왕조 사회의 경제적 조건은 개항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되었다. 개항이전에 있어서 특권상인이던 시전상인과 貢人들은 개항 후 근대적 상인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대부분 몰락해 갔다. 이에 반해 문호 개방으로 크게 활기를 띤 것은 客主와 旅閣 그리고 보부상 등이었다. 특히 안성장은 다른 장들과는 달리 중간상인인 客주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한 전문상업이 활발하였다고 한다. 이를 테면 과일장수도 그 종류에 따라 배만 다루는 梨都家, 밤만 다루는 栗都家, 감만 다루는 柿都家로 나누었고, 옷감장수는 염포가, 면포가, 견포가로 따로 나뉘어 자신들의 물건만을 다루었다고 한다.

개항초기에는 일본상인의 활동범위가 개항장안에 한정되어 있어서 수입상품을 농촌시장으로 옮겨파는 일과 곡물 등 농민들의 생산물을 開港場으로 모으는 일을 客주·여각과 생산지 및 농촌시장을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항이전에 일부 발달했던 유기공업과 冶鐵 공업은 개항 후에도 농민들의 일정한 구매력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계속 발달함으로써 공장제 수공업으로 변모해 갔다.

안성장시도 개항 후 경제적 변동이 여파에서 제외 될 수는 없다. 특히 안성지방은 1901년(광무 5년)에 착공되어 1904년에 개통된 경부선철도가 평택을 경유하면서 철도 沿線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3대 장시의 하나로 해아려 왔던 안성장시의 권위는 점차로 퇴색하게 되었다. 경부선철도 개통이후 안성장시의 모습을 金台營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古來로 안성시장에는 三南地方(충청, 전라, 경상)의 物産이 集有하여 京城以北으로 移出되었고 成鏡·江原 각도의 物産도 當地를 經유하여 京성으로 移出된 關係로 상업이 크게 殿盛되었으며 경부철도 개통이후로 一時 市況이 쇠퇴하였으나 近年이래로 當地 상인이 市況 만회에 전력을 倾注한 結果로 개통을 隨하여 동으로 이천·음성, 북으로 용인, 남으로 진천 등지의 産物이 당지에서 集散되었고 당지 상인 외 販路 또한 比等 지방에 확장되어 수년을 不過하여 안성장시는 新面目을 現出할 지니라.”

이와같이 안성지방은 경부철도가 개설되므로 해서 잠시 교통의 利를 빼앗겨 잠시 침체하는듯 했으나, 안성지방이 자리잡고 있는 입지조건이 유리하여 내륙지방에 대한 물자교류상의 지배력은 이곳 상인들의 노력으로 만회되어 갔다. 그것은 안성지방이 전국적으로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 안성장시의 물품 가운데 麥粉·砂糖·食鹽·滿洲·粟·石油·織物·磁器· 고무靴 등은 경인지방에서 들여왔고, 海産物은 元山에서 들여왔다. 또한 苧布는 충청에서, 麻布는 강원도에서 들여왔다. 한편 안성지방의 특산물인 유기는 경기도 일원, 충청남북도, 황해도, 평안남북도로 搬出되었으며, 煙管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충청남북도로 搬出하였다.²⁷⁾

한일합방 후 안성군은 1914년 3월에 府郡을 廢合하는 행정구역 개편때에 竹山府아 陽城을 흡수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안성군은 12개面 170里洞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안성군의 시장상황은 다음과 같다.²⁸⁾

시장명	위치	1년간取引高	주요상품	개시일
注川里場	一竹面注川里	14,233円	米, 大麥, 麻布, 鹽魚, 明太魚	3.8
竹山邑內場	二竹面竹山里	760円	米, 線布, 明太魚, 鹽魚, 雜貨	5.10
安城場	邑內場基里	217,141円	生牛, 米, 大麥, 綿布, 明太魚	2.7

위의 표에서 보면 개항직전까지만 해도 안성·죽산·양성에서 5개의 장시가 개설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3개의 시장만이 존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3개 시장의 주요 상품을 보면 모두가 농업 생산물 또는 해산물 뿐이고 공업·수공업제품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 일제에 의해 조사된 바로는 전국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이와 유사한 상품들로 소개되고 있고, 서울에서조차도 공업제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우리 경제의 낙후성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것은 1920년에 이르러 알미늄 제품과 玳瑁鐵器 등이 등장하여 유기의 용도를 잠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다시피했기 때문에 각 지방에 걸쳐서 생산되어 왔던 것으로도 보아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 주요 상품으로 등장 할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1927년에는 전국에 걸쳐서 802호의 유기제조 업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6호만이 일본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이들이 올린 생산액은 총



1,575,626원이었는데 이 중 평안북도 382,180원에 이어 경기도가 171,147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⁹⁾ 그러므로 경기의 생산액 가운데 대부분을 안성에서 생산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끊임없는 전쟁준비로 인하여 유기의 원료도 품귀 현상을 빚게 되었다 일본의 大阪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鑄鐵·銅·鉛 등의 공급이 끊어지게 됨에 따라 한국의 유기산업은 전례없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1940년에 접어들자 일본은 군수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인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던 낫그릇을 징발하여 갔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산업 가운데 유기산업은 일본이 저질러온 전쟁행위로 말미암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여기서 1920년대 안성지방의 상업발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료로서 1924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안성지방의 상권과 상품의 물량 및 그 액수에 대한 것이 참고가 된다. 먼저 은행·금융조합·貸金業者의 대출 지역 및 예금자들이 이러한 기관을 이용한 범위 등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³⁰⁾

3분	은행	商事會社	금융조합	대금업자
대출지역	안성, 진천, 원주, 음성, 용인, 진위, 천안, 이천, 여주	안성군일대 한정	안성군일대와 용인 고삼면	안성군일대에 한정
대출자금	187,093원	45,000원	172,329원	95,000원
예금자의 이용범위	토지 매입과 상업자금에 이용		家事 자금과 상업자금에 이용	商자금에 이용
예금액	132,342원		117,363원	

다음으로는 안성을 배경으로 활동한 상인들이 취급한 상품들과 그 수량 및 액수를 도매물품과 소매물품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³¹⁾



〈도매물품〉

상품 반입지	주요상품종류	1년간 총반입량	반입량 액수
京城·仁川	麥粉	1,900俵	9,500원
"	砂糖	150 "	3,600원
"	食鹽	5,700石	24,000원
"	滿洲粟	3,100 "	163,000원
元山	海産物	50,000貫	15,000원
京城·仁川	石油	240箱	1,920원
"	鐵物(釜)	3,000箇	7,500원
忠淸南道	苧布	14,000尺	75,000원
京城·仁川	布木	16,635尺	183,930원
"	綢緞	1,700 "	18,000원
江原道	麻布	1,000 "	5,000원
京城·仁川	磁器	36,000個	72,800원
"	고무靴	3,500足	2,800원
支邦	菓子	20,000斤	6,000원

〈소매물품〉

상품 반입지	주요상품종류	1년간 총반입량	반입량 액수
安城市場	砂糖	3,000俵	720원
"	麥粉	500俵	2,500원
"	食鹽	1,000石	4,700원
"	滿洲粟	1,500石	31,500원
"	海産物	30,000貫	9,000원
"	石油	100箱	800원
"	鐵物	1,000箇	2,500원
"	苧布	5,000尺	26,500원
"	布木	6,500尺	74,750원
"	綢緞	500尺	5,250원
"	鉢胞	400尺	2,000원
"	磁器	2,200個	4,400원
"	고무靴	2,000足	1,600원
支邦	菓子	1,500斤	4,500원

그리고 특산물의 종류와 반출처 및 수량·액수는 다음과 같다.³²⁾

상품반입지	중요 반출처	1년간 총 반입량	반입량 액수
鎗 器	경기도일원 충청남북도 황해도·평안도	14,000個	14,000원
煙 管	함경·평안 황해·충청남북도	77,000個	5,158원
朝鮮靴	竹山·長湖院 平澤·충청북도	1,500足	1,500원

이로보아 그 당시에 안성의 특산품은 鎗器·煙管 등으로 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 안성지방의 상인들이 활동한 行商地域은 利川·龍仁·鎭川·長湖院·水原·天安·原州·陰城·驪州·平澤·笠場·仁川·元山 등이었다. 이와함께 안성장을 이용하던 상인들을 지방별로 보면 鎭川·天安·陰城·忠州·淸州·禮山·廣州·驪州·利川·原州·平澤·水原·江陵·仁川·元山 등으로 대개 안성상인들이 활동한 지역과 대등소이한 지역들이다.

다음으로 일제하에서 안성지방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던 공장과 회사 등을 안성지방의 경제적인 변화상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³³⁾ 안성지방에는 일제하에서 여러개의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다. 1919년에는 安城商事株式會社가 자본금이 30만원이었는데 지방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는 규모가 큰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영업활동은 陸物産 매매업, 위탁판매업, 貸金業 등으로 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商事 회사였던 것이다. 이 회사의 특징으로는 사장인 金濟弘과 取締役인 朴弼秉을 비롯한 9명의 重役들이 모두 안성사회에서는 최상류급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안성사회가 상업을 중시하는 풍조를 엿볼 수 있다.

1924년에는 城南電燈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안성지방의 전등용 전력을 配電하는 회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회사의 重役陣 구성에서나 주식의 動陣에 있어서나 일본인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았다



는 사실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당시 완전한 민족자본에 의한 전기회사는 오직 이 성남전등주식회사 하나였다.

1928년에는 안성읍 場基里에 安城鑰器製造株式會社가 자본금 5만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장소는 10년전 안성상사주식회사가 설립된 곳이었던 점으로 보아 안성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들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이 회사 설립자들에 대한 내용만이 전한다.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사장에는 朴周秉이 취임하였고, 取締役에는 洪炳烈·李麟盛·黃允吾·金鐘浩 등인데 이들은 안성의 대표적인 상인들이라고 그리고 감사역에는 金台榮·李圭憲이 취임했으며, 지배인에 취임한 尹喆周만이 안성에서 유기업을 경영하던 鑰器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1935년중에는 유기생산과 판매를 위해 설립된 白城鑰器製造商會가 있었는데, 이 상회는 생산액에 있어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생산액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염세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안성지방에는 일제하에서도 여러개의 회사와 공장이 설립되어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는데 그것은 이곳 사람들의 특이한 상인기질과 단결로 인하여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개성의 상인이라면 국내 어느 지방에서나 쉽게 정착할 수 있었고 商權도 장악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내의 수원과 안성지방에서는 전혀 발붙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하에서도 일본인 상점에서는 담배 한갑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도 끝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이 안성이라고 한다.

8. 오늘날의 안성장

오늘날의 대부분의 시골장이 그렇듯이 安城市場 역시 그 옛날의 번성하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재래시장 혹은 정기시장 따위의 명칭으로 불리는 시골장이 이제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체인점이 들어서면서 5일장으로서의 위치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장도 여기서 제외될 수는 없었다. 해방 후 그리고 6.25때 구시장이 화재로 없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성장에는 쇠전을 비롯하여 돼지전, 닭전, 곡물전, 용기전, 포목전, 紙전, 어물전, 과일전, 유기전, 철물전, (뚝)자리전, 갓전, 신전, 주물전, 채소전, 약전 등의 좌판들이 즐비하였고, 20여곳의 대장간과 주막집·밥집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던 정기시장인 시골장이 근대적인 유통질서에 어긋난다고 하여 박정희정권때 강압적으로 철폐하고자 한적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러한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였다.

안성읍장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었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의 시장에 밀려 지금의 장터에는 농산품으로 채소전·과일전·죽물전·어물전이 축산으로는 쇠전·닭전 정도가 있고, 공산품으로는 옷가게나 신발가게 등이 들어차 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도로입구로부터 점포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점차 시가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므로 교통의 요지마다 상점의 집중현상이 일어났으며, 기업점포의 증가로 소규모 개인영세 상점의 감소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장날이라고 해서 평소에 없던 물건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장터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소나 과일류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온 농민들과 중간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변해 있다.

현재 전국의 소매 시장은 공설인 상설시장과 일반시장, 그리고 개인자본 내지 독점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상가와 백화점 등의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농촌지역 만큼은 정기시장이 5일마다 열리고 있으나 매년 그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1981년 현재 전국에 걸쳐 정기적인 시장은 901개소가 열리고 있었다. 안성지방에는 안성읍에 일반 시장이 두 곳이 있고 공도읍·일죽면·죽산면에 각각 정기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장에서 안성지방의 지역적인 특산물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산물이 도처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에 반해 안성 지방에서 출하되는 농산품들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9. 맺음말

조선중기 이래 크게 발달한 지방장시 가운데 하나인 안성장시는 삼남의 物産 뿐만 아니라 關西·關北등의 八道物貨가 모였다가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안성장시가 발달



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았고, 한양의 시전보다도 두세가지의 물건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성장시가 발달한 모습은 조선후기 각 지방의 場稅額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안성은 전주나 황주와 같이 場稅收捧之規가 있었으며 경기도내의 군현 가운데서 장세가 가장 많았던 점으로 보아도 안성장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각 지방장시는 교통의 요지, 많은 문화유통, 다수의 소비인구 등의 요구 조건 외에 그 지방 나름대로의 특산물이 있을 때 더욱 발달할 수 있었던바, 안성장시는 유기라는 특산품을 생산함으로써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한때는 한양의 시전보다도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시로 성장 하였다.

이러한 안성장시에 개항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을 때 철도가 평택을 경유하게 되어 안성이 鐵道沿線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안성장은 급격히 위축되게 되었다. 하지만 안성인들 특유의 상인기질과 이곳의 상업 지리적인 배경에 힘입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제하에서도 안성지방에는 많은 회사와 공장이 설립되기도 하였고, 안성읍장의 특산품인 유기와 煙管 등은 여전히 전국으로 판매 되었고 안성상인들의 활동범위 또한 충청, 강원, 평안, 황해도 등 상당히 넓었다.

그리하여 안성장시는 해방직후까지 장날에는 각종 塵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6·25 동란 때 구시장이 화재를 입어 장소가 옮겨지면서 차츰 지방 장시로서의 모습이 미약해졌고, 더욱이 70년대 이후에는 각종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 들어서면서 안성장은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안성장 다른 지방의 시골장도 마찬가지로 단지 한 달에 여섯번 장이 열리는 것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소 金大吉 논고에서 발췌



脚註

- 1) 〈成宗實錄〉卷20, 成宗 3年 7月 壬戌條
- 2) 〈中宗實錄〉卷38, 中宗 15年 3月 己酉條
- 3) 〈釋里志〉, 京畿道條
- 4) 〈安城郡邑誌〉, 〈竹山府邑誌〉, 〈陽城邑誌〉,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 5) 〈萬機要覽〉財用篇 5, 各塵 六矣塵條
- 6) 〈林園十六志〉倪圭志 卷4, 貨殖 八域場市條
- 7) 註) 4와 同一
- 8) 〈林園十六志〉倪圭志 卷4, 貨殖 八域場市條
- 9) 〈備邊司謄錄〉 211冊, 純祖 33년 3월 9일
- 10) 裨負商에 대한 것은 朴之善〈裨負商〉(韓國研究院 1965)
- 11) 〈萬機要覽〉財用篇5, 各塵條
- 12) 〈備邊司謄錄〉 81冊, 英祖 3年 5月 8日
- 13) 〈備邊司謄錄〉 81冊, 英祖 7年 6月 21日
- 14) 〈英祖實錄〉 66, 英祖 23年 12月 甲戌條
- 15) 〈賦役實適〉, 奎章閣圖書 No. 252
- 16) 〈新增東國輿地勝覽〉
- 17) 日省錄, 正祖 15年 5月 6日條
- 18) 金台榮 安城記略, 1925. pp. 167
- 19) 林園十六志 膳用志, 卷2, 炊爨之具
- 20) 高承濟, 〈韓國經營史研究〉韓國能率協會, 1975. pp. 336
- 21) 林園十六志 膳用志, 卷2, 炊爨之具
- 22) 金永鎬, 〈安城鎗器產業에 관한 調查報告〉亞細亞研究 通卷20號 1965.
안성유기에 대해서는 김영호교수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23) 金台榮, 安城記略, 1925. pp. 39
- 24) 〈조선중세수공업사 연구〉, 1978. pp. 310
- 25) 金台榮 〈安城記略〉 1925. pp. 38~ 39
- 26) 同上 pp. 38~39
- 27) 〈市街地の 商圈〉朝鮮總督府 1926, pp 58~60
- 28) 〈朝鮮地誌資料〉 1919. pp 350
- 29) 高承濟 〈韓國經營史研究〉韓國能率協會, 1975. pp 337
- 30) 〈市街地の 商圈〉, 朝鮮總督府, 1926. pp 58 ~ 60
- 31) 同上
- 32) 同上
- 33) 이에 대한 내용은 高承濟의 〈한국경영사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안성지역문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도시 안성!>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대두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예술, 관광, 산업, 지역(안성), 이런 말들이 자주 쓰이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용어들의 합성어인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관광, 문화산업, 지역(안성) 문화, 등등의 용어들이 쓰이고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반면 엄밀하게 그 의미가 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때론 그러한 의미의 불명확한 사용이 불필요한 오해나 우리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소지가 있기에 용어 정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2005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8호에서 발췌·편집한 것임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로서의 안성문화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한다.

각종 사전적 정의들을 살펴보자.

먼저 문화(文化)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정신적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예술(藝術)이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기교 등에 의하여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이라고 정의된다(문화속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관광(觀光)이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의 풍물 풍속을 구경하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産業)이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으로 물적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도 포함” 된다고 정의된다.

지역(地域)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땅의 구역이나 땅의 경계, 또는 그 안의 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폭 넓게 쓰인 말이 지방(地方)인데 지방이란 말은 “① 어느 한 방면의 땅 ② 한나라의 수도(首都)나 대도시 이외의 고장 중앙”으로 정의되고 있다.

과거에 지방이란 말이 관용적으로 쓰였다면 근래 들어 의식적으로 지역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합해진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 지역문화 등의 용어는 사전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즉 필요에 의해 합성된 신조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도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지역 + 문화=지역문화 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지역문화란 “일정한 경계 안의 땅에서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지역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합성어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용어가 아니고 또 고정불변의 개념도 아니다.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최근 학계와 정부, 관련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논의 중 한부분에서 이야기되는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역문화는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안성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하기에 지역문화 속에는 역사성이 개입한다. 어떤 공간내의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지역문화라고 할 때 공유되는 과정의 역사성이 지역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그리하여 지역문화는 지역의 과거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정신적 개념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인들의 현재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문화(삶의 방식)을 뜻한다.】

(김승환의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지역문화 총론』에서 발췌·편집)

그러하기에 지역문화를 이야기 할 때 역사와 전통, 지역의 정체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시간적으로 담금질되지 못한 것은 광의의 ‘문화’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역문화는 아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안성에 대입하면 “안성문화란 안성인들의 공동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성인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안성문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계속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의 문화인 것이다.

이로서 안성문화는 필연적으로 안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성의 정체성을 말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안성문화는 안성인들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성의 정체성을 말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안성문화는 안성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바람과 방향까지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유행처럼 사용되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이다.

아주 흔하게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 하면서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혹은 국가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문화도 상품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어 진다.

즉 과거에 경제 개발을 위해 문화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사고에서 변화하여 문화를 경제 개발을 위해 활용하자는 생각이 확산되고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구호아래 우리문화를 상품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이야 말로 굴뚝없는 산업으로 최고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이야기 된다. 저마다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문화도시’, ‘예술도시’ 를 표방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UN과 유네스코 등에서는 듣기에도 생소한 ‘문화적 권리’ 를 이야기 하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전과 문화적 관점에서의 발전을 구분지어서 이야기 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세계위원회가 내놓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자.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의 한 과정, 즉 생산과 생산성, 일인당 수입의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혜택)인 반면 문화적 관점에서의 발전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97년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유럽 특별 조사단’ 이 유럽회의에 제출한 문화정책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문화이다. 비판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종별적으로 인간적, 이성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를 통해 인간은 자



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질문하고, 지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작품들을 창작한다”고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 권리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수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은 다르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발전과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향상’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나아가 경제적 풍요로움이 문화적 풍요로움은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 문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적’이지 않고 ‘反문화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문화의 지역적 약육강식 혹은 우열을 가르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문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적’이지 않고 ‘反문화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문화의 지역적 약육강식 혹은 우열을 가르는 논리로 우리지역의 문화가 가장 좋고 경쟁력 있다는 사고가 문화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는 제 각각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한 지역의 문화는 그 나름대로 고유한 것이지 열등하거나 강하고 우수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안성문화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안성문화는 어떠한가?

안성 문화를 알기 위해 우리는 안성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안성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 역사와 전통을 현대의 안성인의 삶의 모습과 연계하여 안성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성문화원에서 안성의 역사,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竹州鄉約 과 自治精神*

목차

1. 서언

2. 향약의 구성

3. 향약의 내용

- (1) 임원의 조직과 임무
- (2) 회원의 의무
- (3) 집 회
- (4) 상벌의 내용
- (5) 선·악적의 공정한 기록

4. 향약의 성격

- (1) 향촌의 자치규약
- (2) 구휼과 구제
- (3) 근검절약의 강조
- (4) 농업사회의 유지
- (5) 신분질서의 강조

5. 결언

* 이 글은 1991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9호에서 오환일의 글을 발췌·편집한 것임.



1. 서언

향약이란 향촌의 약속 즉 자치규약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중국 송나라에서 여씨 형제들에 의하여 시행된 4덕목(四德目) 즉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의미한다.

여씨향약은 주자에 의하여 증손되어 주자증손 여씨향약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 종종 때 조광조 등에 의하여 정부 주도로 권장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2년여에 불과하여 기묘사화 이후에는 공식적인 시행이 중단된 후 뜻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구한말까지 각지에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향약은 퇴계와 율곡에 의하여 특성을 나타냈고, 이들 향약이 여러 다른 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고대 여씨향약 전래 이전부터 상호부조(相互扶助)하고 상호규검(相互糾檢)하는 전통적인 미풍이 존속되어 오다가 이것이 여씨향약의 내용과 결합되어 체계를 이루면서 조직화된 것이다. 자연공동체 조직인 향도(香徒), 농업 공동체인 두레, 마을 공동행사인 동제(洞祭) 등의 존재가 이를 증명해 준다. 특히 두레는 일제말기까지 각처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곳에 소개하는 죽주향약(竹州鄉約)은 현존하는 안성지방의 대표적 향약이다. 이것은 잠호 김재익(潛湖 金載翼 영조 11~순조 25, 1736~1825년)의 문집인 《잠호집》에 수록된 것으로 현재 그 9대손인 김동주(보개면 남풍리)씨가 소장하고 있다.

이 향약의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공동체내에서의 협동 정신과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생활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참고하여 점차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배금주의적 풍조속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를 시정하고 나아가 국민정신을 순화시키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향약의 구성

이 향약은 죽주향약서(竹州鄉約序), 향약범례 약속(鄉約凡例 約束), 풍촌금양 겸향약계서(楓村禁養兼鄉約契序)로 구성되었다.

서문에서 향약은 하늘의 질서를 돈독히 하고 이를 따르도록 명하는 것(郭天

(서)命天秩)으로 해석하면서, 삼강오상지도(三綱五常之道)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을 향음례(鄉飲禮)와 함께 실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명선(明善), 성신(誠身), 현현(賢賢), 친친(親親), 존존(尊尊), 비비(卑卑)하도록 하고, 하민(下民)들에게도 보고 느끼도록 하며 성세지덕(成世之德)을 펼 수 있고 지치(至治)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시행하면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다행스러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약 실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서술하였다.

향약법례 약속은 향약의 중심부분으로 모두 31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향약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것, 향약 실시 시효에 관한 것, 선·악적에 기술한 내용 세목과 선목 악목의 구현방법 및 상벌의 내용과 향촌 자치적인 것 등이다.

풍촌금양점 향약계서는 '풍촌 뒷산에는 나의 백씨(伯氏) 참봉공의 묘소가 있어 이곳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으나 나무꾼과 목동들의 남벌로 황폐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이 마을의 이성지, 이중성, 김화백 등이 금양약속을 세워 금양에 노력하였으나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산에 선영을 두었으면서도 금양에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여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금양의 방법에는 본말(本末)이 있다. 산을 순찰하여 나무꾼과 목동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말책에 불과하며, 의리를 강명하고 효우(孝友)를 독행(篤行)하여 감격시키는 것, 이것이 금양의 본책으로 이에 힘쓰도록 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향약은 예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중국 하(夏), 은(殷), 주(周) 시대에 훌륭한 정치와 풍속이 아름다웠던 것도 모두 향약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모두 가르침을 잃어버려 오랑캐의 풍속으로 퇴폐해졌고 권규(權規), 구휼(救恤)의 미풍도 사라졌다.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로 인(仁)을 베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이의 시정 방법으로 여러가지를 생각하던 중 주자와 율곡의 향약을 증손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엮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마을의 풍기를 변개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는 내용으로 금양점향약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3. 향약의 내용

(1) 임원의 조직과 임무

향약법례 약속에 수칙을 꺼리어 향약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은 약조를 관에 치죄토록 규정하였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죽주향약에서는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전 주민은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하였으며 불참하면 중죄로 처벌을 받을 만큼 강제성까지 띠고 있다.

향약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임원을 선정하여 그에 알맞은 임무를 분담 시켰다. 임원의 명칭과 그 임무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죽주향약의 임원조직과 그 임무

직함	인원	자격	임무	임기	비고
사석 (師席)	1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도학자	· 일향을 통솔하며, 풍속을 교화 도학자	큰 사고가 없으면 교체하지 않는다.	· 교장이 위임한 영재들에게 특별교육 · 향중 영재를 관에 천거 · 향촌 자체들 질의에 명확한 강론 · 도약장을 겸할 수도 있다.
교장 (敎長)	2	학문과 행실이 으뜸가는 사람	· 향중 자체 교육		· 향중 영재를 사석에 위임 · 부약장을 겸할 수도 있다.
도약장 (都約長)	1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	· 향촌의 일을 주도력으로 처단		· 공의에 따라 처리 · 난해한 일은 사석에 문의한 후 처리 · 적합자가 없으면 사석이 겸한다.
부약장 (副約長)	2	학문이 있고 일을 잘 아는 사람	· 도약장을 보좌		· 적합자가 없으면 교장이 겸한다.
유사 (有司)	2	정직한 사람	· 선행, 악행 기록, 10월 모임에 서 약법을 읽고, 문자 미해독자 에게 뜻 해석 · 임시회의 소집 건의 · 선행자 악행자 상벌 품신	1년 (매년 간택하여 개정)	· 3적(일약자 명단, 선적, 악적비치 · 선행과 악행의 대소를 불문하고 정 확하게 기록 부실한 경우 시벌
공언 (公言)	2	공평한 사람	· 유사가 기록한 선악적의 시비를 가리어 진실되게 한다.		· 선행과 악행의 대소를 불문하고 정 확하게 기록 하면 벌을 받는다.
별검 (別檢)	2	근면하고 착실한 사람	· 선행과 악행을 바르게 관찰하여 유사에게 통보 · 회원의 四喪을 유사에게 통보		· 선행악행을 부실하게 기록하면 처벌을 받는다.
사화 (司貨)	4		· 계율을 분장하여 주관		· 회의 시 필요한 물건(술, 안주, 떡, 과 일 등) 준비
사명 (使令)	2	상한(常漢)	· 사환의 역할		1년(매년 교체, 직합자 없으면 유입 가능)



죽주향약의 임원조직에는 다른 향약과는 달리 사석과 교장이라는 독특한 직함이 있다. 교장은 향촌자제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다 영재를 발견하면 사석에게 추천하고 사석은 영재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에 천거하도록 하였으며, 난해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하게 강론하였다. 이점으로 보아 죽주향약에서는 특히 향촌민의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회원의 의무

향약의 시행 목적은 향촌민에게 하늘이 명한 삼강오상지도(三綱五常之道)를 깨우쳐 인륜(人倫)의 정도(正道)를 실천하려는데 있었다. 때문에 향촌민은 향약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고, 참여를 기피할 경우 중벌로 처리하였다. 이때 입회 연령은 불명확하나 성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회원은 반드시 입회비로 약간의 곡물을 납부하였다. 곡물의 양은 정확하지 않으나 이것은 향약의 기본금으로 사화가 맡아 관리하면서 회의시 경비로 지출하였다. 율곡의 사창계약속에서는 입회비를 모아 약간의 이식(年 15%/20%)을 붙여 대출하고 그 이식으로 경비를 충당하였다. 이곳 죽주향약에서는 이식을 붙여 대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회원은 집회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는 그 사정을 약장에게 단자로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만약 구실을 붙여 불참하거나 단자로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회원의 혼상에는 모두 참여하여, 축하하고 위문하였다. 4상(四喪 : 父, 母, 己, 妻)에는 모두 조문하고 산역과 기타 잡역을 보살펴주는 것은 물론 쌀 2되, 돈 2전, 공석 1장, 재목 1개, 이엉 1두름씩 부조하여 장례비와 묘상각 제청 실시에 보조하도록 하였다. 자녀 혼인시에는 쌀 2되, 돈 2전씩 축의금을 내었다.

회원의 화재시에는 재목 1개 이엉 1두름씩을 내어 가옥 복구에 보태도록 하였다. 이외에 상호 구휼(救恤)과 향촌의 미풍 교화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 같은 회원에 대한 의무규정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상호 구휼(救恤)과 규검(糾檢)을 통하여 향촌자치를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농업공동체인 당시 향촌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요, 한마을 주민(同井之人)이 상호협동 부조하는 가운데 동제, 두레, 제언과 농로보수, 마을의 풍기단속, 혼상부조, 구휼 등을 시행하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계승되어 온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3) 집회

향약에서의 집회는 정기집회, 임시집회, 임원회 등이 있었다. 정기집회는 매년 10월 15일에 열렸다. 이 때에 사령은 넓은 장소에 차일을 치고 사화는 떡, 과일, 술, 안주 등 음식을 준비하였다. 회원이 모두 모여 식사를 마친 후 유사가 약조를 설명하고 상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유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시켰다. 이는 약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악행(惡行)을 범하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상은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는 책을 읽거나 활쏘기 연습을 하던가, 조용히 강론을 하다가 끝마쳤다. 10월의 정기회의는 회원의 교육과 상벌의 논의가 주된 행사였다.

임시집회는 회원 중에 대선(大善)과 대악(大惡)을 행하여 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집하였다. 유사가 도약장에게 고하고 전 회원에게 회문(回文)을 돌려 모이도록 하였다. 사소한 선악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논할 수도 있으나 대선과 대악인 경우 임원들만으로 처단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임시집회에서 상벌을 논하는 것이다.

임원회의는 매월 초 길일(吉日)에 도약장의 집에서 열렸다. 이때 유사가 기록한 선·악적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경중에 따라 상벌을 논하였다.

(4) 상벌의 내용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일(善行)은 상을 주어 장려하고, 나쁜일(惡行)은 벌주어 금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선행과 악행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예를 제시하였다. 선행으로는 35항목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악행은 26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선행의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선행과 악행의 내용은 대부분 성리학적 예속(忠·孝·禮·友·悌·敬·



勤·救)과 관계 깊은 것으로 이를 강조한 것이다. 선행과 악행은 입약 후의 것만을 취급하였다. 선행과 악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善目)

1. 명선성신(明善誠身) : 인심과 천명의 근본을 알아 지극히 착한 일에 힘쓰고 격물치지하고 정성스럽고 바르게 몸을 수양하는 것 등.
2. 효어부모(孝於父母) :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뜻을 받들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는 것 등.
3. 충어국가(忠於國家) : 국가에 충성하는 일로, 직업을 지키어 공의를 받들고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하인이면 사족을 지극히 섬기는 것.
4. 남녀유례(男女有禮) : 남녀 사이에 예가 있는 것,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화목하며 소박하지 않고, 하인이면 간음하지 않고, 남녀 사이에 가까이 하지 않고, 길에서 만나면 서로 피하는 것 등.
5. 우우형제(友于兄弟) : 형제 사이의 우애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한몸 같이 서로 돕고, 유무상통 하는 것 등.
6. 제우장상(弟友長上) :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20세 이상이면 절하고 10세 이상이면 감히 너라고 부르지 못하며, 하인이면 사족을 공경하는 것 등.
7. 능택교류(能擇交遊) : 교제하며 왕래하는 경우에 현명하고 어진 사람과 교류하는 것 등.
8. 언필충신(言必忠信) : 말은 성실하고 거짓없이 하며 미답게 하는 것 등.
9. 행필독경(行必篤敬) : 행동을 돈독히 하고 공경스럽고 충실 하는 것 등.
10. 징분질욕(徵忿窒慾) : 분노와 사사로운 욕심을 참고 억제하는 것, 분할 때는 어려움을, 얻었을 때는 의를 생각하는 것 등.
11. 견선필행(見善必行) : 착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는 것 등.
12. 문과필개(聞過必改) :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고치는 것 등.



13. 능권학문(能勸學文) : 부지런히 글 배우는데 힘쓰고 중단하지 않는 것 등.
14. 목족교린(睦族交隣) :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상호 빌려 쓰고 환난에 구휼하는 것 등.
15. 교자유방(教子有方) : 자식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선한 것을 가르치며 몸을 수양하고 근면하도록 하는 것 등.
16. 어하유법(御下有法) : 사람을 부리는 데 마땅하게 하고 노복이 두려워하거나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
17. 빈수염개(貧守廉介) : 가난하나 염치와 지조를 지키는 것 등.
18. 부호예양(富好禮讓) : 부유해도 예를 지키고 겸손하도록 하는 것 등.
19. 불탐타물(不貪他物) : 다른 사람의 물건에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등.
20. 능근사공(能勤事功) : 공로가 있어도 태만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것.
21. 능천약신(能踐約信) : 향약의 약령을 준행하여 소홀히 하지 않는 것.
22. 능수기탁(能受寄託) : 친척과 벗들의 부탁을 살피어 거절하지 않는 것.
23. 능구환란(能救患難) : 환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극진히 구제한다.
24. 능광시혜(能廣施惠) : 널리 곤궁한 자를 구휼하는 것 등.
25. 능도인위선(能導人爲善) :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착해지도록 도와준다.
26. 능규인과실(能規人過失) :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한다.
27. 능위인모사(能爲人謀事)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일한다.
28. 능위중집사(能爲衆集事) :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의를 다한다.
29. 능해투쟁(能解鬪爭) : 투쟁이 있을 때 이를 깨우쳐 해결해 주는 것 등.
30. 능결시비(能決是非) : 옳고 그름을 깨우쳐 공정하게 하는 것.
31. 흥리제해(興利除害) : 이로운 일 의로운 일을 권장하고 해로운 일(약탈, 침범 등)은 없애도록 하는 것 등.
32. 능거관거직(能居官舉職) : 관직에 나갔을 때는 직분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것.
33. 능외법령(能畏法令) : 법령을 어기지 않고 준행한다.
34. 능근치전(能勤治田) : 농사에 힘쓰고 근면한다.
35. 능근조부(能勤祖賦) : 세금을 내는 데 기한을 지키는 것 등.



(惡目)

- | | | |
|----------------|----------------|----------------|
| 1. 부자(不慈) | 2. 불충(不忠) | 3. 불우(不友) |
| 4. 부제(不悌) | 5. 불경사부(不敬事傅) | 6. 부부무별(夫婦無別) |
| 7. 소박정처(疏薄正妻) | 8. 봉우무신(朋友無信) | 9. 임상불애(臨喪不哀) |
| 10. 불경사사(不敬祀事) | 11. 숭신이단(崇信異端) | 12. 경멸예법(輕蔑禮法) |
| 13. 호작음사(好作淫祀) | 14. 족류불목(族類不睦) | 15. 인리불화(隣里不和) |
| 16. 소능장(小陵長) | 17. 천능귀(賤陵貴) | 18. 중주도박(縱酒賭博) |
| 19. 호송희투(好訟喜鬪) | 20. 시강능약(恃強陵弱) | 21. 조언무훼(造言誣毀) |
| 22. 불근조부(不勤祖賦) | 23. 불외법령(不畏法令) | 24. 영사태심(營私太甚) |
| 25. 협기연음(狹妓宴飲) | 26. 태타폐사(怠惰廢事) | |

상벌의 경중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치죄”, “처벌”, “중벌”로 표시하고 10월 모임에서 선·악적을 검토한 후 상벌한다.

율곡의 향약에서는 처벌의 기준을 죄질의 경중에 따라 상·중·하별로 세분하여 놓았다. 죽주향약은 이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소략한 것이라 하겠다.

막연하나마 상벌의 내용을 표시한 조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효자, 효부, 충신, 열녀, 충노, 충비가 있으며 관에 보고하여 정표(旌表)를 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 ② 회원 중, 70 ~ 80 이상 된 사람이 있거나 사마시에 등과하여 관직을 얻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술과 과일을 갖고 가서 축하하며 재물로서 돕는다. 하인의 경우에는 재물만 보내 돕는다.
- ③ 과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로하거나 존자의 위에 있으면 자제에게 책임을 묻는다.
- ④ 동약인(같은 마을 사람) 사이에 재물, 기용, 우마, 노복 등을 빌려주지 않거나 손괴시키고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벌한다.
- ⑤ 모임에 늦게 도착하거나 술에 취해 체모를 잃어버리는 자는 벌한다.
- ⑥ 흉악한 범죄자는 관에 보고하고 집을 부수어 향리에서 축출한다.
- ⑦ 함부로 소를 도살하는 자는 벌한다.



(5) 선·악적의 공정한 기록

향촌민의 선행과 악행을 관찰하여 상벌하는 것은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지하려는 뜻이다. 선적과 악적에 대한 기록은 향촌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상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중을 기하기 않을 수 없다. 자칫 선·악적의 기록이 불공정 하던가 부실하면 이것은 향촌민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싹틔우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죽주향약에서는 특히 다른 향약과는 달리 선적과 악적에 기록하는 내용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즉 별검은 향촌민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내용을 유사에게 보고하고, 유사는 이를 기준으로 선·악적을 작성한다. 그러나 유사가 작성한 내용에 부실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언으로 하여금 그 기록 내용의 시비를 가리어 내도록 하였다.

만약 이 같은 별검-유사-공언을 거쳐 작성된 선·악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정확하지 못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들에게 모두 공동책임을 물어 벌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선·악적의 기록은 상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공정하고 정확히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하겠다.

4. 향약의 성격

(1) 향촌의 자치규약

성리학적 예(禮)로 향촌을 안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향약의 약조에 따라 선행과 악행에 자치적으로 상벌하였다.

자치적으로 상벌한다 하더라도 대선(大善 : 열녀, 충비, 충노 등)에 대한 표창과 흉악한 범죄는 자치적으로 상벌할 수 없고 반드시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더구나 향약의 선목(善目)에 세금을 내는 데 기한을 엄수할 것(能勤祖賦), 법령을 어기지 않고 준행할 것(能畏法令)을 강조하면서 관(官)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향촌민이 공동으로 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관에 대해 공동조치를 취

하기도 하였다.

향촌자치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태 40 이하는 계장, 유사가 자치적으로 처단 한다. 그 이상의 것은 관에 고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
- 향촌에서 송사(訟事)가 있을 때에는 계장, 유사에게 가서 그 잘못을 구별하도록 한다. 이때 계장, 유사가 잘못된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면 송사를 끝낼 것이다. 만일 그 후에도 송사를 고집하면 향촌에서 비리호송(非理好訟)으로 논하고 관에 고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
- 줌도둑은 적발하는 대로 처리한다.
- 소를 도살할 때는 그 이유를 계장에게 고할 것, 무단으로 도살하면 치죄한다.
- 약조를 어기거나 잘못을 끝내 고치지 않으면 중벌로 처리하고 심한 경우 관에 보고한다.
- 도적을 만난 경우 가능하면 향촌에서 공동으로 협동하여 잡도록 한다.
- 흉악한 범죄자는 관에 고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그 집을 부수고 동리에서 쫓아낸다.

이상의 내용에서 향촌 자치적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관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한 범죄자 처벌 등 중대한 사항은 자치적 처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관에 이첩시켜야 한다.

(2) 구휼과 구제

죽주향약에서는 선목(善目)에 환난을 구제할 것(能救患難)과 널리 시혜할 것(能廣施惠)을 특기하였다. 또한 경제적 빈곤, 과년한테도 혼기를 놓친 남녀의 혼사, 무의무탁한 고아, 화재, 도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휼과 구제를 행하였다.

다음의 조목들이 그 내용이다.

- 병으로 고생하는 회원은 약과 의사를 주선하여 치료를 돕는다. 더구나 집안 전체가 병으로 농사를 폐농하게 되었을 때는 향촌에서 공동으로 협동하여 농사를 도와준다.
- 실화로 화재를 당한 경우에는 향촌민들이 각각 재목 1개, 이엉 1두름을 가지고 가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준다.



- 빈궁한 가정을 적극 돕는다.
- 도적을 만나 헐벗고 굶주리는 경우에는 향중에서 상의하여 재물로써 돕는다.
- 마을에 고아가 발생하여 의탁할 곳이 없으면 알맞은 사람(가정)을 택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결혼하도록 돕는다.
- 가난한 자는 향중에서 협의하여 구제한다.
- 가난으로 과년한데도 혼기를 놓친 남녀를 향중에서 적극 주선하여 결혼하도록 돕는다. 이상과 같이 구휼과 구제로 향촌의 안정을 꾀하였다.

(3) 근검절약

성리학적 개념에서 부(富)는 과욕한 것으로 탐내서는 안되며, 부하면 예양(禮讓)을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오히려 빈을 청빈(淸貧)으로 칭송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농업경제에서 부의 축적은 불가능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근검절약은 우리 선조들의 불가피한 생활 방법이요, 수단이 되었다.

죽주향약에서 4상(四喪) 시에 각각 쌀 2되와 돈 2전씩을 부조하여 상가의 경비에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때 쌀 2되는 상가의 일을 도와주는 기간동안 본인의 주식량으로서 상가에서 그 비용을 줄이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 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가에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술과 음식을 차려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도 대접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기고 술상을 차려 술을 마시면 예법을 어긴 죄로 논벌 하였다.

향약의 악목(惡目)에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것(縱酒賭博)과 기생을 끼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狹妓宴飲)을 조문화하여 악행(惡行)으로 표해 놓고 이를 위반하면 악적에 기록한 후 벌하도록 정했다.

이같이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곤궁하나 그 가운데서 예절을 잃지 않고 생활하며 향촌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4) 농업사회의 유지

성리학에서는 농업을 본(本)으로 상공업은 말(末)로 보면서 농업을 중시하였다. 성리학은 중국 남송의 주자가 농업사회의 기초 위에 사대부 중심으로 유학을 해석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 건국 초부터 농업을 장려하여 농본 국가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임란 이후부터는 상업 작물의 재배, 5일제 장시의 확대로 농촌에서 몰락한 농민층이 상공업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상업은 농업보다 이직률이 높아 상업으로 유입하는 인구수는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 추세 속에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농업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죽주향약에서는 선목(善目)에 농사에 힘쓰도록(能勤治田) 권장하면서 농업에 필수적인 농우의 도살을 금지하며, 병으로 폐농에 이른 가정을 주민들이 공동경작으로 농사를 지어주고, 빈궁하여 가정을 보존할 수 없는 자를 극력 돕고, 고아에게는 의탁할 곳을 마련하여 주고 결혼하도록 도와주며, 가난한 경우에는 구제해 줌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도록 하는 조목을 설정하여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상업으로의 이탈을 막고 농업사회를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5) 신분 질서의 유지

죽주향약은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분 에 따라 행동 양식과 예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양반과는 달리 상한(常漢)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 상한의 사상(四喪)시에는 물품만을 부조하고 소상, 대상, 당제사에 사령을 보내 대신 위문한다.
- 선목의 국가에 대한 충성(忠誠國家) 조목에서 하인들을 상전을 섬기며 조금이라도 감히 속이고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르면 급히 달려가 일에 임하되 부지런히 하고, 고생됨을 꺼려 하지 말며, 물건을 얻었을 때에는 반드시 상전에게 헌납하도록 하여 마치 하인이 상전에 대한 태도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개념으로 강요하였다.
- 선목의 윗 어른에 대한 향목(弟于長上)에서 하인은 상전에 대하여 연령을 불문하고 공경해야 한다. 사족(士族)을 만나면 알던 모르던 반드시 절할 것이요, 언어를 공손히 해야 한다. 만약 우마를 타고 갈 경우에는 반드시 내려 길옆에 꿇어 앉아 사족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태만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인의 행동을 설명한다.
- 악목(惡目)에서도 신분이 천한 자가 귀한 신분인 자를 능멸하는 것(賤陵貴)을 악행으로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인은 사족과 그 행동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무조건 사족에 대한 복종과 굴종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억압하였다. 이것은 성리학적 신분관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 없고 상하존비(上下尊卑)의 신분에 따라 귀천이 구별되며 각 계층의 신분에는 각각 합당한 명분(名分)이 정해지는 데 이 명분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고 정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촌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인이라 하더라도 함께 참여시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죽주향약에서는 하인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약법(約法)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이를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목의 어하유법(御下有法), 하인들을 통솔하는 방법에서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마땅하게 할 것이요, 노비라 하더라도 마땅하게 다스려 두려워 하거나 위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율곡의 향약에서는 상전이 하인을 부릴 때는 온정을 베풀도록 촉구하였으며, 노복에게 은의(恩義)를 베풀고 보호해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록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가르쳐 깨우칠 것이요, 회초리와 매질을 하던가 고성으로 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퇴계의 제자 금란수(琴蘭秀)는 하인도 똑같은 천민(天民)으로 형장과 별로만 다스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같이 상하인은 각각 명분(名分)에 따라 신분의 차는 있으나 똑같은 천민(賤民)으로는 수분(守分)에 따라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신분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체적인 향촌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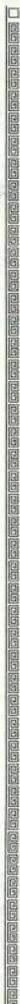
죽주향약은 안성지방에 남아있는 대표적 향약이다. 조선적 향약이 모두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강조하는 여씨향약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이것 또한 주자증손 여씨향약과 율곡향약의 내용을 일부 증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향약은 향촌자치규약, 구휼과 구제, 근검절약 강조, 농업사회의 유지, 신분질서의 확립을 위한 내용이다. 이것을 통하여 성리학적 예속을 강조하면서



점차 퇴폐화 되어가는 기강을 바로 잡고 18세기 이후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규검(糾檢)하고 협동 구휼하여 향촌 공동체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서구문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점차 전통적 미풍이 퇴색하고 물질문명의 확대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의 시정방법으로 우리 고유의 향약 내용을 검토하여 참고 하는 것은 도의심 양양과 지방 자치에 좋은 실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성 방각본의 판본 연구*

목차

1. 서론
2. 안성 방각본 소설의 판본
3. 안성 방각본 소설 판본과 경판의 관련 양상
4. 안성 방각본 소설의 출판
5. 결론

1. 서론

안성 방각본 소설은 경판본과 번각 관계에 있는 것이 많아 독자적인 연구의

* 이 글은 지난 2006년 발간된 안성문화 19호에서 최호석의 글을 발췌·편집한 것임.



대상으로 취급받지 못해왔다.¹⁾ 그래서 안성 방각본의 판본을 발굴, 정리하고 이것이 갖는 문학적, 출판학적, 지역문화적 의의를 탐색하는 작업 또한 미진했다. 이것은 출판 자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장(死藏)되거나 사멸(死滅)되는 특성을 지녔고, 또한 방각본 출판이 단지 문학적 또는 출판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넓게는 사회문화적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안성 방각본이 판본들을 새롭게 발굴, 정리²⁾하고 출판 입지를 분석하는 논문들³⁾이 나오면서 안성 방각본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성 방각본을 문학적, 출판학적 지역사회학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이처럼 새롭게 발굴된 안성판 방각본 판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즉, 이정원의 2005년 논문에서 새롭게 발굴된 소설본들이 경판본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출판 방식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당연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이 여전히 경판과 번각 관계에 있는 판본이거나, 동일 판목으로 인행된 판본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새 판본들은 그 자체로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출판학적인 의의는 있지만, 경판과의 대비는 동일 판목을 대상으로 개별 작품이 본론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이창현 교수가 이를 집대성⁴⁾하였기 이에 관한 논의는 기존 논의를 정리,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둘째는 새로운 자료들,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된 판본이나 출판업자들에 대한

주

- 1) 안성판 판본을 정리한 논문들로 다음이 있다.
 김동욱(1960), 「한글 고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38-67쪽
 김동욱(1970), 「坊刻本에 대하여」, 『동방학지』11,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97-139쪽
 이창현(1995), 『經板坊刻小說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혜경(1999),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창현(1999), 「안성 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2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98-140쪽
 이민희(2001), 「조선 후기 경판 방각소설 판본의 형태물리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진만(2002),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정원(2005), 「安城市 坊刻本 出版 현황」, 『어문연구』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1-184쪽
- 2) 이정원(2005)
- 3) 이창현(1987), 「경판방각소설의 상연적 성격과 이본출현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79-208쪽
 최호석(2004), 「방각본 출판의 경제성 시론」, 『우리문학연구』17, 우리문화회, 361-388쪽
 최호석(2005),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국제어문』34, 국제어문학회, 89-120쪽



인적 정보가 수습되면서, 기존에 예상하였던 안성판 방각본의 출판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데 따라 이 논문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예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예상을 해 보기로 한다.

2. 안성 방각본 소설의 판본⁵⁾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한 방각본은 출판 시기나 장소, 주체 등이 잘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기(刊記)에 출판 장소와 시기가 새겨지기도 하지만, 그런게 없는 것도 부지기수다. 다만, 1909년 2월 23일 출판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방각본에도 판권지(板權紙)가 붙게 되고, 이로써 누가 언제 어디서 책을 발행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수한 방각본 판본들에서 안성판 방각본을 판별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는 판본의 말미에 “안성동문이신판”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는가. 둘째는 간기가 없어도 판권지의 발행소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안성군”으로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⁶⁾에 따라 안성판임을 판별하게 하는 간기나 판권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발행소	발행소 주소	발행자/인쇄자	비 고
안성 동문리	京畿道安城郡寶蓋面 동신리동문마을	?	
北村書鋪	京畿道安城郡寶蓋面 本里	朴星七 / 安萬浩	본리=기좌리
朴星七書店	京畿道安城郡寶蓋面 其左里41	朴星七 / 丙一成	

그런데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된 판본들은 “안성동문이신판”이란 간기가 있는데, 박성철서점이나 북촌서포에서 발행한 판본들에도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이

4) 이창현(1995), 이창현(1999), 이창현(1995)는 다음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기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이창현(2000),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5) 안성판 방각본의 자세한 출판 현황은 이정원(2005) 참조.

6) 이창현 교수는 안성판 방각본 판별의 기준으로 이 두가지에 기준 연구자의 감식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동양문고소장본 「소대성전」(전집 1, 561-571쪽), 김동욱 소장본 「수호지」(전집 2, 19-49쪽), 동양문고소장본 「심청전」(전집2, 131-141쪽)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필자는 이들 판본은 제외한다. '전집'은 다음의 책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 김동욱(1974), 「영인고소설 판각본전집」 1~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 '출전'에서 "정양완"은 다음 책을 가리킨다. 정양완(1994), 「일본동양문고본 고전소설 해제」, 국학자료원, “韓高潮~” 등은 소장도서 관의 청구 번호이다.



있다. 이는 원래 동문리에서 간행한 판본을 북촌서포나 박성칠서점에서 다시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북촌서포나 박성칠서점의 판권지가 붙은 판본 중에 동문리 간기가 새겨진 것은 판권지가 없이 동문리에서 간행된 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발행자가 ‘박성칠’로 동일인이고, 춘향전의 경우 1912년의 북촌서포본과 1917년의 박성칠서점본에 대해 판차(版次)를 연속해서 매기고 있다는 점에서,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재판본들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성판 방각본 소설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새 발굴본은 표제에 “*”로 표시했다.

〈안성 방각본 소설의 판본 현황〉⁷⁾

작품명	표제	간기	장수	발행처	발행년	소장처	출전
삼국지	삼국지 권지습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전집1(481-490)
	삼국지 권지습	안성동문이신판	20	북촌서포	1912(1판)	예상	
	삼국지 권지습*	안성동문이신판	20	박성칠서점	1917(2판)	국도관	한古朝48-33-4
심청전	심청전		21	북촌서포	1912(1판)	예상	
	심청전		21	박성칠서점	1917(2판)	국도관	한古朝48-46-5
양풍운전	양풍운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예상	
	양풍운전	안성동문이신판	20	박성칠서점	1917(1판)	국도관	한古朝48-72
임장군전	님장군전*	丁刻孟冬	21	박성칠서점	1917(1판)	국도관	한古朝48-69-4
장풍운전	장풍운전		19	북촌서포	1912(1판)	예상	
	장풍운전*		19	박성칠서점	1917(2판)	국도관	한古朝48-53-6
적성의전	적성의전	안성동문이신판	19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정양완(143-146)
제마무전	제마무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김동옥	전집3(69-78)
조용전	도용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정양완(126-130)
	도용전		20	북촌서포	1912(1판)	예상	
	도용전		20	박성칠서점	1917(2판)	국도관	한古朝48-31-4
진대방전	진기방전		16	박성칠서점	1917(1판)	국도관	한古朝48-68
춘향전	춘향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서강대	고서 춘92가
	춘향전	안성동문이신판	20	북촌서포	1912	김동옥	전집3(305-314)
	춘향전*	안성동문이신판	20	박성칠서점	1917(2판)	국도관	한古朝48-252-2
홍길동전	홍길동전	안성동문이신판	23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전집3(445-456)
	홍길동전		19	박성칠서점	1917(1판)	국도관	한古朝48-44-2

8) 안성 방각본 소설 판본과 경판과의 관련 양상은 새로이 발굴된 판본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이창현(1999), 이창현(2000)의 논의를 정리함을 밝힌다.

9) 각 판본의 소장처는 뒤에 별도로 실는다.



3. 안성 방각본 소설 판본과 경판의 관련 양상⁸⁾

앞 장에서 제시된 판본들과 경판과의 관련 양상을 작품별로 정리하겠다.⁹⁾

○삼국지

안성판은 안성동문리, 북촌서포,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셋은 모두 동일 판목을 썼다. 안성판 삼국지의 표제가 “삼국지 권지습”인 것으로 보아 앞에 두 권이 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판(삼20장본B)은 오권본 체제로 된 경판(대영박물관소장본, 삼20장본A)과 관련이 있다. 즉, 삼20장본B의 1장에서 16장까지는 삼20장본A의 1장에서 16장까지 번각(飜刻)하고, 삼20장본B의 17장에서 20장까지는 삼20장본B의 17장에서 20장까지를 축약 개각(改刻)한 것이다.

○심청전

안성판은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심21장본B)은 “宋洞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김근수소장본(심20장본)과 간기가 없는 일본동양문고소장본(심21장본A)과 관련이 있다. 즉 심20장본을 정사(正寫)하여 판하본(板下本)으로 삼고 이를 개각한 것이 심21장본들이다. 심21장본A와 심21장본B는 동일 판목으로 인행(印行)한 것이다.

○양풍운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와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양20장본A)은 간기 없는 김도옥소장본과 동일 판본인 국립도서관소장본(양24장본), 그리고 역시 간기없는 학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양24장본B)와 관련이 있다. 즉,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24장본의 모본을 축약 개각한 것이 양20장본A이고, 이를 번각한 것이 양20장본B이다.

○임장군전

안성판은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박성칠서점본은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다. 안성판(님21장본B)는 “華泉重刊”이란 간기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님27장본A)와 간기 없는 성균관대학교도서관소장본(님27장본B), 그리고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는 일본동양문고소장본(님21장본A), “庚寅早秋布洞

重刊”이란 간기가 있는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님20장본)과 관련이 있다. 즉, 님27장본A를 번각한 것이 님27장본B인데, 이들 중 하나를 축약하여 개각한 것이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는 님21장본이다. 님21장본A와 님21장본B는 동일 판목을 썼다. 님20장본은 님27장본과 님21장본을 부분적으로 축약 개각한 것이다.

○장풍운전

안성판은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장19장본B)는 간기 없는 동양어학교소장본(장31장본)과 역시 간기 없는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본(장19장본A)과 관련이 있다. 먼저 장19장본A와 장19장본B는 같은 판목으로 인행된 것인데, 그 판목의 짜임이 독특하다. 즉, 장 19장본은 1장에서 14장까지는 장31장본의 1장에서 14장까지의 판목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 장31장본의 15장 이후를 축약하여 개각한 새 판목을 다시 가져다 쓴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을 상화문 어미에 14행으로 되어있고, 뒷 부분은 상허어미에 16행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장19장본은 두 개의 판목을 짜집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의 판목을 온전히 쓴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즉, 새 판목은 아마 19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19장의 전엽 6행 이후의 글자들을 밀어 버리고 인행한 것이 바로 장19장본의 뒷 부분이다.

○적성의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서만 발행되었다. 안성판(적19장본)은 간기 없는 김도옥소장본(적23장본)과 관련이 있다. 즉, 적19장본은 적23장본을 정사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제마무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서만 발행되었다. 안성판(제20장본A)는 간기 없는 대영박물관소장본(제23장본), 그리고 간기 없는 일본 동양문고소장본(제20장본B)와 관련이 있다. 이 세 판본 모두 제마무전 16장 뒤에 회심곡이 독립 장수로 합철되어 있다. 제23장본은 회심곡 7장, 제20장본A, B는 6장이 합철되었다. 제20장본A는 제23장본의 제마무전 16장을 번각했고, 회심곡 6장은 제23장본의 회심고 7장을 정사하여 개각한 것이다. 제20장본B는 제20장본A를 번각한



것이다.

○조웅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 간행되고 이와는 달리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따로 발행되었다. 즉, 안성판 조웅전은 두 종류의 판목이 쓰였다. 동문리 판본(조20장본B)과 북촌서포 및 박성칠서점 판본(조20장본C)는 “紅樹洞重刊”이란 간기가 있는 대영박물관소장본과 김동육소장본(조30장본), 간기가 없는 대영박물관소장본(조20장본A)와 관련이 있다. 먼저 조20장본A는 조30장본을 대체로 축약하면서 문구를 더하기도 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조20장본B는 이 조20장본A를 번각한 판본이다. 이와는 별개로 조20장본C는 조30장본을 정사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진대방전

안성판은 박성칠서점에서만 간행되었다. 안성판(진16장본)은 “油洞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김동육소장본(진36장본), 간기 없는 대영박물관소장본,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진28장본B), 그리고 역시 간기 없는 동양어학교소장본(진20장본), 대영박물관소장본(진28장본A) 등과 관련이 있다. 진16장본은 진대방전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나머지 판본들은 진대방전과 ‘내훈’ 그리고 ‘내훈제사’가 독립 장수로 합철되어 있다. 판본들간의 관계가 복잡하기 하지만 결론적으로, 진16장본은 진대방 16장과 내훈 및 내훈제사 12장으로 구성된 진28장본A의 진대방 16장과 동일한 판목으로 인행된 것이다. 진28장본A와 나머지 판본과의 관계는 뒤의 표로 대신하겠다.

○춘향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 북촌서포, 박성칠서점 모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춘20장본)은 간기없는 동양어학교소장본(춘30장본)과 관련이 있다. 즉, 춘20장본은 춘30장본을 축약하여 개각한 것이다.

○홍길동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한 것과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것이 있다. 두 판본은 서로 판목이 다르다. 동문리 판본(홍23장본A)와 박성칠서점본(홍19장본)은 “治洞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동양어학교소장본(홍30장본)과 “漁靑橋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오한근소장본(홍23장본B)와 관련이 있다. 즉, 홍23장본



은 흥30장본을 정사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흥23장본A와 흥23장본B는 번각판계에 있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아직 논란 중이다. 흥19장본은 흥30장본에 대해 일부는 번각을 하고 일부는 축약하여 개각을 했다. 즉, 흥30장본의 1장에서 14장까지는 흥19장본의 1장에서 14장으로 번각을 했고, 흥30장본의 15장에서 24장 후엽 6행까지를 축약하여 개각한 것이 흥19장본 15장에서 19장까지이다.

지금까지 안성판과 경판과의 관련 양상을 정리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성 방각본과 경판의 관련 양상>

작품명	판본명	판본 소개	관련양상
삼국지	삼20장본A	오권본 체제 권지습	
	삼20장본B	안성판(안)북>박	삼20장본A 1~16 -번각- 삼20장본B 1~16, 삼20장본A 17~20 -축약 개각- 삼20장본B 17~20
	삼20장본C	美洞新板	삼20장본B -번각- 삼20장본C
십청전	십20장본	宋洞新刊	
	십21장본A	무간기	십20장본 -정사 개각- 십21장본AB
	십21장본B	안성판(북)박	십21장본A -동일 판목- 십21장본B
양풍운전	양24장본	무간기	
	양20장본A	안성판(안)박	양24장본의 모본* -축약 개각- 양20장본A
	양20장본B	무간기	양20장본A -번각- 양20장본B
입장군전	님27장본A	華泉重刊	
	님27장본B	무간기	님27장본A -번각- 님27장본B
	님21장본A	丁亥孟冬	님27장본 -축약 개각- 님21장본B



	넙21장본B	안성판(박), 丁玄孟冬	넙21장본A -동일 판목- 넙21장본B
	넙20장본	庚寅早秋布洞重刊	넙27장본, 넙21장본 -축약 개각- 넙20장본
장풍운전	장31장본	무간기	
	장19장본A	19장 전엽 6행 이하 산란	장31장본 1~14 -판목 차용-장19장본 1~14 장31장본 15 이하를 축약한 새 판목* -판목 차용 -장19장본 15~19
	장19장본B	안성판(북>박)	장19장본A -동일 판목-장19장본B
적성 의전	적23장본	제마무전 16+회심곡7	
	적19장본	안성판(안)	적23장본 -정사 개각- 적19장본
제마무전	제23장본	무간기	
	제20장본A	안성판(안) 제마무전16+회심곡4	제23장본 제16 -변각- 제20장본A 제16 제23장본 회7 -정사 개각- 제20장본A 회4
	제20장본B	제마무전 16+회심곡4	제20장본A -변각- 제20장본B
조용전	조30장본	紅樹洞重刊	
	조20장본A	무간기	조30장본 -축약 변용 개각- 조20장본A
	조20장본B	안성판(안)	조20장본A -변각- 조20장본B
	조20장본C	안성판(북>박)	조30장본 -정사 개각- 조20장본C
진대방전	진36장본	由洞新刊(진대방18+내훈제사2+내훈16)	
	진28장본B	진대방18+내훈10	진36장본 진대방 -변각- 진28장본B 진대방, 진36장본 내훈 -부분 변각-진28장본B 내훈
	진20장본	진대방 18+내훈제사2	진36장본 -동일- 진20장본, '내훈16' 만 빠짐
	진28장본A	진대방16+내훈 및 내훈제사12	진36장본 진대방 -정사누락개각- 진28장본A 진대방 진36장본 내훈/내훈제사 -정사개각- 진28장본A 내훈및 내훈제사
	진16장본	안성판(박), 진대방16	진28장A 진대방 -동일 판목-진16장본
춘향전	춘30장본	무간기	
	춘20장본	안성판(안>북>박)	춘30장본 -축약 개각- 춘20장본
홍길동전	홍30장본	治洞新刊	
	홍23장본A	아성판(안)	홍30장본 -정사 개각- 홍23장본
	홍23장본B	漁靑橋新刊	홍23장본 A와 B는 변각. 선후는 논란 중.
	홍19장본	안성판(박)	홍30장본 1~14 -변각- 홍19장본 1~14 홍30장본 15-24 후엽6행- 축약개각- 홍19장본 15-19

4. 안성 방각본 소설의 출판

새로운 안성 방각본 소설 판본들이 발굴되고,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발행자였던 박성칠 씨의 정확한 생몰연대(1856~1923) 등을 알게 됨에 따라, 안성 방각본 소설의 출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안성 방각본의 출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성 동문리 시절의 방각 활동이다. 1909년 이후에는 판권지가 붙어서 출판 시기와 주체, 장소 등이 명확하고, 판본끼리의 대비를 통해 판목의 짜임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겠다. 먼저, 안성 방각본의 출판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창현 교수는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진대방전이 대영박물관 소장본 진대방전(진28장본A)와 동일판목임을 들어서, 만약 박성칠서점의 전신인 가칭 朴星七家에서 진대방전을 판각하였다면 안성 지역의 방각 활동은 1860년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¹⁰ 그러나 박성칠의 생몰연대(1856~1923)를 고려하면, 1860년대로의 소급은 불가능하다. 다른 추정들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얽혀 있다. 즉, 안성판 진대방전의 판목을 박성칠서점의 판권지(1917년) 이전에 안성에서 정말로 판각했는지, 그리고 박성칠서점의 전신인 ‘박성칠가’가 “안성동문이신편”이란 간기에서 추정되는 ‘동문리 방각소’와 별개의 것인지 등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확정된 사실들을 간추려 보자. 먼저 안성 방각본 소설들의 발행소와 순서를 정리하면, “안성동문이신편”이란 간기가 있는 안성 동문리 방각소가 제일 먼저이고, 발행 시기와 주체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은 1912년(明治45年) 춘향전 초판을 북촌서포에서 박성칠이 발행했다. 그리고 다시 1917년(大正6年) 춘향전 재판을 비롯한 여러 소설들을 박성칠서점에서 박성칠이 발행했다. 안성 동문리의 판목을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인수하여 쓰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이창현(1999), 122쪽



〈안성 방각본 소설의 출판〉

안성판			관련경판	안성 동문리	복춘 서포	박성칠 서점	비고
표제	장수	어미/행					
삼국지 권지습	20	상화문어미/15	삼20장본A(오권본)	○	○	○	변각, 개각
심청전	21	상혹어미/15	삼20장본(宋湖新刊 삼21장본A)		○	○	동일 판목:삼21장본A
양풍운전	20	상화문어미/15	양24장본	○		○	개각
님장군전	21	상혹어미/15	님27장본, 님장본27A, 님29장본			○	동일 판목:님 21장본A
장풍운전	19	복합판식	장31장본, 장19장본A		○	○	동일 판목:장19장본A
적성의전	19	상화문어미/15	적23장본	○			개각
제마무전	20	상화문어미/15	제23장본	○			변각, 개각
도용전	20	상화문어미/15	조30장본, 조20장본A	○			변각
도용전	20	상혹어미/15	조30장본		○	○	동일 판목:?
진딴방전	16	상화문어미/15	진28장본A			○	동일 판목:진28장본A
춘향전	20	상화문어미/15	춘30장본	○	○	○	개각
홍길동전	23	상화문어미/15	홍30장본, 홍23장본B	○			개각
홍길동전	19	상화문어미/14	홍30장본			○	동일 판목:?

위 표에서 안성 방각본은 판목 조성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안성에서 기존의 판본을 모본으로 삼아 개각(改刻)하거나 변각(飜刻)하는 경우이다. 이는 안성 동문리에서 판목을 조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이 때 만들어진 판목은 박성칠이 인수하여 복춘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재인행 되었다.

둘째, 기존의 판목 자체를 인수하여 재인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박성칠이 복



촌서포나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판본들에 주로 해당한다. 인수의 대상은 안성 동문리의 판목과 경판의 판목들이었다. 경판의 판목을 인수했을 경우 동일판목으로 이행한 경판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경판의 판목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박성칠이 판목을 조성했는데, 그 판본이 경판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먼저, 이번에 입수된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는 21장본 입장군전을 보자. “丁亥孟冬”이란 간기에서 애초에 이 판본의 조성이 1887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목의 판본과 넘27장본은 경인(庚寅, 1890)년에 20장본으로 축약되어 개각되었다. 그 축약 개각본이 “庚寅早秋布洞重刊”이란 간기를 지닌 넘20장본이다. 박성칠이 북촌서포 이전에 안성 동문리와는 별개의 방각소를 운영했다면, 유독 정해년의 입장군전 판목에 대해서만 간기를 남겼을 까닭은 없다. 오히려 판목의 조성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동시에 여러 판목을 동일한 판식으로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장군전의 경우는 정해년의 21장본 판목이 경판에 있었는데, 경인년에 20장본의 판본이 나오면서 21장본의 판본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경인년(1890) 이후 어느 시점에 박성칠이 정해년의 판목을 인수하여 박성칠서점에서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초판이 나온 판목들이 박성칠가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경판의 것을 인수한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번에 발굴된 박성칠서점의 19장본 장풍운전이다. 북촌서포에서 초판본이 나온 19장본 장풍운전을 보면, 판목이 개각(改刻)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판목을 짜집기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9장본에서 14장까지는 경판 31장본의 판목을 파용하고, 뒷 부분은 31장본의 15장 이하를 축약한 어떤 판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19장 전엽 6행 이후를 산략해서 이행한 것이다. 만약 박성칠이 이 판목을 조성했다면, 이런 식으로 뒷 부분을 산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즉, 박성칠은 누군가 이미 조성한 판목들을 가져다 이행한 것이다. 다만, 산략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다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박성칠이 산략했을 수도 있고, 경판의 방각업자 누군가가 산략해서 19장본으로 조성해 놓은 것을 박성칠이 인수했을 수도 있다. 전자라면 박성칠서점 판권기가 없는 한중연 소장본 19장본 장풍운전(장19장본B)은 박성칠이 이행한 것이 되고, 후자라면 경판의 방각업자



가 인행한 것이 된다.

셋째 근거는 안성 동문리 방각소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북촌서포나 박성칠서점에선만 간행된 판본들은 그 판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촌서포나 박성칠서점에서만 발행된 판본들은 장수와 어미, 반엽의 행 모두 일정하지 않다. 이는 한 업자가 이들 판목들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적당한 판목을 인수하여 인행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박성칠이 따로 판목을 조성하지 않고 동문리의 판목이나 경판의 판목을 인수하여 발행했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 안성 방각본의 방각 활동은 언제부터였을까?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단독으로 판목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성 동문리의 판목 조성시기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에 추정이 어렵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안성동문이신간”의 춘향전에 소장 관련 문장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안성판 춘향전은 원래 간기 있는 북촌서포의 것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촌서포 이전의 동문리 판본과 박성칠서점의 재판본이 발굴되었다. 그런데, 서강대 도서관에 소장된 동문리 판본의 표지에, “병오정월일공동칙 경술이월일미동궁 뇌정동칙 춘향전 권지단”이란 글귀가 있는 것이다. 첫 줄의 문장을 병오년(1906)에 소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음줄은 경술년(庚戌, 1910)에 미동(美洞)과 궁내정동(宮內井洞)¹¹⁾에서 이 책을 소장했음을 알려 준다. 이를 참고하면, 동문리 방각소의 방각은 늦어도 1906년 이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성 동문리의 판본들을 박성칠이 인수하여 발행했다는 점에서 안성 동문리와 박성칠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성 동문리의 방각소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성칠이 직접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동문리의 판목들로 북촌서포나 박성칠서점에서 다시 책을 인행한 것과, 박성칠이 동문리에 살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김동욱 교수의 논문에서, 마을 주민 김상옥의 증언을 보면, 북촌서포의 발행자였던 박성칠에 대해 “東門里 朴星七書店의 朴星七”로 언급하고 있음¹²⁾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칠서점의 위치가 동

11) 미동(美洞)과 궁내정동(宮內井洞)은 일제강점기 때 황금정 일정목(黃金町 一丁目)으로 편입된 곳으로 현재는 소공동 덕수궁 즈음으로 추정된다.

12) 김동욱(1970), 앞의 논문, p.115

13) 박성칠의 손자가 동문리에서 20리 밖으로 이사를 갔다는 언급이 있다. 김동욱(1970), 앞의 논문 p.116

문리가 아니라 기좌리인데도 박성철을 그렇게 언급한 것은 그가 동문리에 오래 살았기 때문¹³⁾으로 보인다.

안성 동문리의 방각소를 만약 박성철이 운영했다면, 안성 동문리의 방각활동은 박성철의 생몰년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성철은 1856년에 태어나 1923년에 죽었으니(호적의 기록), 방각활동은 최소한 그가 성인이 된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5. 결론

새롭게 발굴된 안성 방각본 소설본과 경판과의 대비를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성 방각본 소설본의 출판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크게 출판 시기와 출판 주체, 출판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독자적으로 판각을 하지 않았고, 안성 동문리 방각소의 판목과 경판의 판목을 인수하여 발행했다면, 안성 동문리 방각소의 간행 시점이 안성 방각본의 출판 시기 문제에서 중요해진다. 이때 관건은 누가 안성 동문리 방각소를 운영했었느냐인데, 만약 동문리의 판목을 인수한 박성철로 본다면, 그 시기는 박성철의 생몰년에 근거하여 가늠될 수 있겠다.

안성 방각본의 연구는 이제 겨우 기초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작품의 선정과 판목 조성 과정, 그리고 발행자 및 인쇄자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각본의 출판이 안성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또 안성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이 방각본 출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다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첨부1 <안성판과 경판 관련본 출전>

작품명	판본명	판본 소개	출판양상
삼국지	삼20장본A	오 권본 체계 권지	대영박물관 소장본(전집 4, 193-257)
	삼20장본B	안성동문리	동양문고 소장본(전집 1, 481-490)
		복촌서포(판) 박성철 서첩(2판)	예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48-3-4)
삼20장본C	美湖斷板	하동호 소장본(전집 4, 183-192)	
십정전	십20장본	宋湖斷刊	김근수 소장본(전집2, 119-129)
	십장21장본A	무간기	일본동양문고 소장본(전집2, 131-141)
	십21장본B	복촌서포(판) 박성철 서첩(2판)	예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48-3-4)
양중운전	양34장본	무간기	김동욱 소장본(전집2, 227-2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48-76)
	양20장본A	안성 동문리 박성철 서첩	예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8-72)
	양20장본B	무간기	한국회사 연구소 소장본(3.5/오543)
임경근전	임27장본A	華康斷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전집2, 431-444)
	임27장본B	무간기	성균관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7B-34)
	임21장본A	丁亥疏於	일본동양문고 소장본(전집2, 445-455)
	임21장본B	丁亥疏於 박성철 서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8-69-4)
장중운전	장31장본	무간기	동양어학교 소장본(전집5, 769-784)
	장19장본A	19장 전집 6행 이하 산략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장19장본A	19장 전집 6행 이하 산략	(도서번호 D7B-105) 필름번호 MP35/008090
	장19장본B	복촌서포(판)	예상
지성미전	적23장본	무간기	김동욱 소장본(전집 3, 1-12)
	적19장본	안성 동문리	일본동양문고 소장본(경양판, 143-146)
계마루전	계23장본	계마루 전16+ 회심곡7	대영박물관 소장본(전집5, 845-850)
	계20장본A	안성 동문리(계마루 전16+ 회심곡4)	김동욱 소장본(전집3, 69-78)
	계20장본B	계마루 전16+ 회심곡4	일본동양문고 소장본(경양판, 131-142)
조용전	조30장본	紅松閣斷刊	동양어학교 소장본(전집5, 859-883) 국립중앙도서관(한고조 48-75)
	조20장본A	무간기	대영박물관 소장본(전집5, 857-867)
	조20장본B	안성 동문리	일본동양문고 소장본(경양판, 126-130)
	조20장본C	복촌서포(판) 박성철 서첩(2판)	예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9-31-4)
진대방전	진36장본	南湖斷刊(전대방 18+내훈계사 2+내훈16)	김동욱 소장본(전집 3, 201-209)
	진28장본B	진대방 18+내훈 10	경향신문 소장본(전집 3, 897-906) 한국고전서적고서박물관(813.3/우483)
	진20장본	진대방 18+재훈계사2	동양어학교 소장본(전집5, 885-894)
	진28장본A	진대방 16+내훈/내훈계사12	대영박물관 소장본(전집5, 911-919)
춘향전	춘30장본	박성철 서첩(2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8-68)
	춘20장본	안성동문리	동양어학교 소장본(전집5, 911-938) 일본동양문고(국립중앙도서관(일제시대 사본))
		복촌서포(판)	서경대 도서관 소장본(교서 춘927)
박성철 서첩(2판)		김동욱 소장본(전집3, 305-3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8-252-2)	
홍길동전	홍30장본	治湖斷刊	동양어학교 소장본(전집5, 1003-1018)
	홍23장본A	안성 동문리	일본동양문고 소장본(전집3, 445-456)
	홍23장본B	德雨橋斷刊	오한근 소장본(전집3, 423-434)
	홍19장본	박성철 서첩	국립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8-44-2)

첨부2.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안성판 춘향전 (“안성동 문이신판”간기)



歲時風俗

세시풍속은 1년 4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그러기에 세시풍속은 오랜 세월을 두고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집단의 공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성에 띠게 된다.

우리 전통사회는 농경생활과 같은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시풍속은 양력이 아닌 음력을 채택하고 있다. 음력은 달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되고 있다.

전통사회의 생활문화의 기초는 식량생산에 있었고 농작은 계절적 변화를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풍작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계절을 지배하는 신령들과의 교제가 필요했다. 여기에 춘추로 행하는 종교적인 농경의례가 있기 시작했고 그 주기적인 연중행사가 곧 세시풍속의 초석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의 연중행사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도했던

* 이 글은 1992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0호에서 발췌·편집한 것임.



경건한 풍요 제의의 잔존형식일 것이다.

이것은 고대사회 부여에 있어서 迎鼓, 고구려 東盟과 동예의 舞天, 마한·백제의 蘇塗, 신라의 한가위, 그리고 후대에 내려와서 고려의 八關會,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민속놀이 등이 다 같이 풍요를 기원하던 농경사회의 계절제의였음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말하고 있는 고전적인 저서로는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京都雜志> 등이 있다. 동국세기의 저자는 조선왕조 정조, 순조 때의 학자였던 陶厓 洪錫謨로, 우리나라 연중행사 및 풍속을 잘 설명하고 있다. 홍석모가 중국 宗慄의 <荊楚歲時記>를 모방하여 지은 이 동국세시기는 원래 한 권의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것을 洪承敬이 朝鮮光文會에 기증함으로써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는 정조 때의 학자 壺山 金邁淳의 열양세시기와 같은 시기의 실학자 冷齋 柳得恭의 경도잡지와 더불어 합본하여 한 권의 활자본으로 간행하게 된 것이다. 이 동국세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행사·풍속을 23항목으로 설명하고, 어느 날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月內라 하여 그 달 안의 끝에 몰아서 설명했다. 그리고 맨 끝에 윤달에 관계되는 것도 실었다. 열양세시기는 열양(洌陽, 漢陽)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으로 주로 서울의 풍속을 기록하고 있으면 경도잡지 또한 두 권으로 나누어 서울의 문물제도와 풍속, 행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저서에서도 볼 수 있는바, 서울과 경기도는 우리 풍속의 구심체로서 작용했으며 그 해체 또한 구심점이 되었다. 즉 세시풍속이 우리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1년 사계절의 운행에 따라 제정되었던 반면에 그 해체 또한 19세기 이래로 서구의래문물의 수용과 산업화의 전래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도를 필두로 해체를 가져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중부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본고장 安城 지방의 세시풍속은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설날, 정월 대보름, 팔월 한가위 등은 거의 휴업하고 조상님께 차례와 성묘를 한 후 각종 놀이를 즐겼고, 2월 한식에도 성묘를 하는 등 4대 명절이 성행했다고 <安城記略>은 전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그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安城의 세시풍속은 上記의 著書와 현존의 傳承을 중심으로 지금의 安城市 관내의 분포상황에 역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1. 正月

음력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빌고 새해의 설계를 하며 이웃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와 놀이가 어느 달보다도 많은데 ‘선보름’이라 하여 대개 정월 보름까지 개인과 집단적 놀이가 성행하는 달이다.

1) 설날(초1일)

① 설빔

음력 정월 설날 아침에 일찍 세수를 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을 ‘설빔’ 또는 ‘설비움’이라고 한다. 남자 어른은 대체로 갓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서 중절모를 쓰기도 하였고, 흰바지와 저고리에 물색조끼와 마고자에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과 대넒 행진까지 찾으며, 여자 어른은 흰 치마 저고리에 버선을 신으며 처녀나 젊은 아낙네들은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이것을 ‘까치저고리’라고도 한다.

요즈음에는 간소화 되어 갓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 다만 한복을 입거나 양복으로 정장을 하는 것이 통례다. 이렇게 ‘설빔’을 입은 후에는 바로 차례를 지내게 된다.

② 차례(茶禮)

세찬과 제주를 마련하여 조상께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하는데 친족이 모두 종갓집에 모여 지내고는 세대주의 항렬과 연령에 따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지낸다. 차례는 4대 봉사로 아버지 내외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내외, 증조 내외, 고조 내외까지만 지낸다. 옛날에는 신주를 모셔다 지내거나 아니면 지방을 써서 붙였으나 요즈음에는 사진을 놓고 지내기도 한다.

祭需는 떡국에 酒·果·脯·醢 즉 술, 과일(삼색과일 : 대추, 밤, 사과, 감 등),포, 식혜가 기본이고 적이나 편 등도 추가될 수 있고 술은 원칙적으로 소주는 안 쓴다. 차례가 끝나면 즉석에서 차례에 쓴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음복’이라고 한다. 특히 이때 마시는 술을 ‘屠蘇酒’라고 하는데 찬 술을 나이 어린 사람부터 먹는다. 요즈음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층에서 양력에 차례를 지내는 일이 있으나 1984년부터 음력 元트를 조상의 날로 제정하여 시



행했기 때문에 조상 추모의 차례일이 음력에 시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③세배(歲拜)

차례가 끝난 뒤 집안 어른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린다. 세배가 끝나면 歲饑(세기)로 아침식사를 하는데 떡국이 대표적 음식이다. 아침식사가 끝나면 성묘를 하고 친척이나 웃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린다. 사당을 모신 집에 가서는 먼저 사당에 절을 하고 喪廳(상당)을 모신 집에 이르러서는 먼저 상청에 절을 한 다음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하고 나서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 ‘더욱 건강하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하고 세배를 받은 쪽에서는 이에 응답하여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올해는 장가가게’ 혹은 ‘올해는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하는 식의 인사말을 하는데 이것을 ‘德談(덕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멀리 있는 친지나 친척 어른들에게는 3일 만에 찾아가 세배를 하는 것이 상례이나 그럴 수 없을 때에는 보름 안에 찾아가 세배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권이 넓어져 시간 관계로 ‘연하장’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④성묘(省墓)

생존한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는 원리와 같이 사별한 조상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차례를 지낸 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배례를 하고 산소의 이상 여부도 살핀다. 성묘일은 설날이 주가 되나 그렇지 못할 때는 초3일까지 마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풍속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⑤복조리

정월 초하루 새벽에 ‘복조리’를 사서 안방 문지방 위에 걸어 두면 복이 들어온다는 풍속이 있는데 이는 아직도 안성관내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관내의 竹山面(죽산면)을 비롯한 一竹面(일죽면)과 三竹面(삼죽면) 일대에 小竹(소죽)이 많이 나서 복조리를 다량 산출, 안성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보급하고 있다.

조리는 쌀을 일는데 쓰는 도구로, 부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이 조리에 쌀을 일어서 밥을 짓는다. 그래서 매일 쌀을 일는데 쓰는 조리를 설날 아침에 사면 복이 물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 앞에 달아 두는 것은 문을 여닫을 때 마다 복이 조리에 소복소복 쌓이라는 뜻에서 매달아 놓는다는 것이다.

⑥세화(歲畵)

연식이나 재난, 전염병 등의 불행을 막기 위해 관가와 척리의 대문에 갑옷을

입고 한손에 도끼를 들고 서 있는 金甲二 장군상을 그려서 붙이거나 일반 가정에서는 호랑이를 그려서 붙이는 풍속이 있는데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⑦세점(歲占)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 오면 모든 액운을 씻어 버리고 새 행운에 대한 기대를 걸고 가족의 건강이나 농사의 풍흉, 뜻하는 일의 성공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쳐 보는 일이 성행하였었는데 지금도 그 풍속은 더러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토정비결’로 운수를 점치는 것인데 이는 아직도 정월에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밖에 ‘聽讖’이 있는데 초하룻날 새벽에 거리로 나가 첫째 들려오는 소리가 길한 의미를 주면 그 해 운수가 길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웃으로 점치는 것도 있었다.

⑧삼재풀이 세화(歲畵)

삼재란 巳·酉·丑(뱀, 닭, 소)이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亥·子·丑(돼지, 쥐, 소)이 든 해에, 甲·子·辰(돼지, 쥐, 소)이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寅·卯·辰(호랑이, 토끼, 양)이 든 해에, 亥·卯·未(돼지, 토끼, 양)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甲·酉·戌(원숭이, 닭, 개)이 든 해에 삼재가 드는데 이 삼재가 드는 해에 난 사람은 부적과 같이 노란 종이에 빨간색의 세마리의 매를 그려서 문설주에 붙여 두거나 옷속에 누워서 몸에도 지니고 다님으로써 액을 막는다고 하는 습속이 성행 하였었는데, 아직도 안성지방에서는 이런 풍속이 더러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내고장 歲時風俗과 傳說 安城文化院 1986)

⑨콩볶이

양력 1월 1일 일제 치하에서 安城 지방에서는 까만 콩을 볶아 먹는 풍속이 성행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배일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전, 상공회의소 회장 김세용씨 제공)

2) 정초 十二支日에 대한 풍속

‘설’은 살핌, 근신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 새해의 서두인 정초를 잘 살피면서 조심하여 무사히 지내야 그 해의 일년도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첫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풍습이다. 즉 음력에는 日辰이 있는데 十二支가 子丑寅卯辰巳午未



申酉戌亥로 동물을 의미하며 12일을 주기로 되풀이 된다. 새해의 1일에서부터 12일까지는 그 해의 첫 일진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일진과 관계가 있는 동물에 대한 풍속이 한국전쟁 전까지는 성행되었으나, 지금은 몇가지 정도로만 노인들의 추억에 남아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정초의 이 12일간을 그 日辰에 따라 有毛日과 無毛日로 나누는데 이중 뱀과 용의 날이 무모일이다. 초하룻날이 유모일이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점포도 이날을 택해서 개점을 하는데 이는 털과 같이 번창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모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12일간의 풍속 중 특히 안성지방에서 많이 성행했던 것은 '쥐날' '소날' '토끼날' '용날' '뱀날' '사람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끼날(뚫날)' 행사가 제일 많이 성행했었다.

① 쥐날(上子日)

이 날은 일을 하지 않고 놀았는데 쥐가 곡식을 축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이날은 쥐를 잡는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아 쥐를 잡았는데 이를 '쥐불놀이'이라 한다. 이러한 풍속은 정월 보름에 달맞이 할 때 놓는 불놀이로 아직도 더러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쥐뿐 아니라 다른 해충을 없애는데도 좋다고 한다. 이는 조상의 슬기의 일단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어린이 콩을 볶으면서 '쥐 주둥이 지진다'라는 주문을 외다. 그러면 쥐의 피해가 없다 한다.

② 소날(上丑日)

새해 첫 번째의 丑日에는 소에게 일을 얹시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쇠죽에 통을 넣어 먹이고 도마질을 하지 않고 쇠불이 연장을 다루지도 않는다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는 농사에 귀중한 가축인 소를 잘 돌보아 풍년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③ 토끼날(뚫날 : 上卯日)

이 날 남의 집에 가서 대변을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에 죽거나 그 집에 병이 자주 일어난다는 속신이 있다. 이는 이날의 왕래와 자녀의 외출을 삼가게 하는 풍습이다. 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호랑이날에 외출을 삼가게 하는 것과 다른 이 지방의 특유의 풍습이다.

④ 용의날(上辰日)



첫 번째의 용의 날 새벽에 부녀자들은 일찍 일어나 우물에 가 물을 길어 온다. 그것은 새벽에 용이 알을 낳고 올라간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용의 알이 있는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우물을 먼저 뜬 사람은 그 표시로 우물에 지푸라기를 띄워 놓으면 이것을 본 사람은 다른 우물로 간다. 이것은 ‘용알뜨기’라고 한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성행했으나 지금은 농촌에서만 더러 행해질 뿐이다.

⑤뱀날(上巳日)

새해의 첫 뱀날은 빗질이나 이발을 하지 않고 빨래나 바느질도 하지 않으며 땀나물을 옮기거나 집안에 들여 놓지 않는데 그 까닭은 뱀이 집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성행했고 지금도 안성에서는 더러 행해지고 있다.

⑥사람날(寅日)

陰陽家에서는 하늘은 쥐로부터 열렸고(天開於子), 땅은 소에서 열렸으며(地開於丑), 사람은 호랑이로부터 생겨났다(人生於寅)고 한다. 즉 사람은 호랑이의 寅의 정기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월 첫 번째의 인일을 사람날이라 하며 아침 일찍 여자의 바깥출입을 금하고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것을 피한다. 이는 집안의 운수가 불길하게 된다는 속신 때문인데 부득이 자게 되는 경우에는 주객이 서로 반대로 머리를 두고 자야 악운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풍속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3) 작은 보름(14일)

정월 14일은 대보름의 2일간의 행사가 시작되는 날로 건강과 풍년을 위해서 많이 먹고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각종 행사와 놀이가 시작된다. ‘작은 보름놀이’는 한국전쟁 전까지 크게 성행했었으나 지금은 많이 쇠퇴하여 오탁밥과 복쌈을 먹고 달맞이를 하거나 줄다리기를 하는 정도이다.

①아홉 차례 행동

14일은 많이 먹고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밥도 아홉 번 먹고 일도 아홉 번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글방에 다니는 학생은 글을 아홉 번 읽고 글씨도 아홉 번 쓰며, 농사꾼은 나무 아홉 짐, 새끼 아홉 발을 꼬고, 처녀들은 나



물 아홉 바구니, 아낙네들은 삼베 아홉 광주리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안성에서도 아직도 더러 행해지고 있다.

②14일에 고기붙이를 먹으면 1년 내내 부정을 타고, 김치를 먹으면 생고자리에 쓰인다고 하여 이 두 가지를 먹지 않고 쌀, 콩, 팥, 수수, 조 등의 다섯 가지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다. 그리고 반찬은 고기와 김치 대신 ‘묵은 나물밥’이라고 하여 시래기, 가지, 호박고지, 콩나물, 취, 도라지, 고비, 고사리 등의 각종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세 가지 이상의 다른 성을 가진 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밥을 일찍 짓고 다른 사람을 청한 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먹는 습속이 있는데 이것을 ‘百家飯’이라고 한다. 그리고 풍물이 있는 동네에서는 이 동네 사람이 한꺼번에 풍물을 동원하여 징을 치고 팽과리를 치면서 집단적으로 돌아다닌다. 집집마다 그 마당에서 한바탕 놀고 밥 한번 먹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하여 한 집도 거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먹고 놀고 한다. 어린 아이들은 같은 또래 들끼리 집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훔쳐서 비벼먹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작은 보름날의 풍속이 아직도 우리 고장 안성에서는 전해오고 있다.

③액막이 행사

㉠정해비 놀이(제용·처용놀이)

14일 밤에 액막이를 위해서 짚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고 옷을 입힌 추영(芻靈:보통 신라 제49대 憲康王 때 東海 용왕의 아들인 處容의 이름을 빌어 처용으로 부르나 우리고장 안성에서는 ‘정해비’로서 불려지고 있다)의 머릿속에서 성명, 출생년의 간지를 적고 동전을 싸서 길거리에 버리면, 그 해의 액을 막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는 동네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정해비를 내어 달라고 하여 그것을 얻으면 머리 부분을 해쳐 동전만을 꺼내고 나머지는 내버리는 풍속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다.

㉡卜說 액풀이

나이가 해와 달의 直星(사람이 行年을 따라 그의 운명을 맡은 별)을 만나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 나무에 끼워 용마루에 꽂거나 달이 뜰 때에 햇불로 달을 맞이하고, 물의 직성을 마난 사람은 종이에다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던져 액을 막는 풍속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안성 일부에서는 이



리한 卜說에 의한 액풀이가 행해지고 있다.

㊸ 돌싸움(石戰)

열나흘날 아이들끼리 패싸움인데 안성천을 사이에 두고 도기동, 계동, 서운면 중리, 금광면 현수리, 농촌리 등은 안성천의 남쪽편에 서로 북쪽은 현재의 시내 사람들이 서서 두패로 나누어 돌을 던지며 노는 놀이로, 이 때 맞는 사람은 그 해에 운수가 나쁘다는 것으로 70여년 전까지 성행했으나 지금은 전승하지 않는다.

4) 대보름(上元日)

음력 정월 보름날은 上元 혹은 ‘큰 보름’이라고 한다. 이날로써 정초의 모든 휴식이 끝나고 농사일의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은 가족의 건강 유지와 재앙 예방을 하고 풍작과 재산 증식을 기원하여 풍흉을 미리 점쳐 보는 행사가 많다. ‘대보름’의 행사는 70여년 전 1920년경 만해도 안성 지역의 전 농가와 상가가 모두 일손을 놓고 각종 행사를 즐겼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되었으나 농가에서는 달맞이, 줄다리기, 두레놀이... 등의 각종 놀이가 일부 행해지고 있다.

① 부럼 깨물기

대보름날 이른 새벽에 날밤, 호두, 은행, 무, 잣 등을 깨무는데 이것을 부럼이라고 한다. 대체로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무는데 첫 번 것을 깨물고 문을 열고 밖으로 던지면서 ‘아이쿠 부스럼아’ 하고 내던진다. 이 부럼을 깨물면 1년 동안 무병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풍속은 아직도 성행되고 있다.

② 귀밝이 술(明耳酒)

정월 보름날 이른 새벽에 청주 한잔을 데우지 않고 마신다. 이것을 明耳酒, 治聽酒, 귀밝이 술이라고 한다. 이 술은 어른이나 아이나 부녀자까지도 조금씩은 마신다. 귀밝이 술을 마시면 귀앓이 병에 걸리지 않고 귀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안성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③ 약밥

이날 먹는 음식으로 ‘藥食’이 있는데 이것은 까마귀를 제사 지내는 데서 온

다투어 먼저 보려고 한다. 이때 달의 윤곽, 대소, 후박, 빗갈 등에 의해 그 해의 농작을 점치기도 하였다. 즉 달빛이 붉으면 가물고 희면 장마가 지며 사방이 두터우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었다.

달이 떠오르면 다복쑥이 광솔 혹은 짚으로 수대로 묶어서 어른이 불을 붙인 후 머리 위로 한 바퀴 돌려 준 다음 자식에게 넘겨 주면 '다님 절요'를 하면서 절을 하며 그 해의 소원을 빈다. 이 때에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고 불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것은 아직도 농촌에서 행해지고 있다.

⑩ 줄다리기

이는 정월 대보름과 팔월 한가위날밤에 성행했는데 대보름날의 줄다리기는 각 지방의 민속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의 하나인데 안성지방에서는 영남 지방에서 성행하던 줄다리기가 성행 했었다. 달맞이를 끝내고서 동네 사람들은 마을 공동으로 만든 암·수 용모양의 밧줄을 가지고 남자는 동편 여자는 서편으로 폐를 갈라 경기를 하여 남자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여자가 이기면 흉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었다. 이 놀이는 안성의 양성면 명목리와 방축리 등에 아직 행해지고 있다.

⑪ 편싸움(便戰)

〈安城記略〉에 의하면 대보름날 안성읍에서 읍내를 동서로 나누어 각자 몽둥이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힘겨루기 편싸움을 하는 놀이가 성행했었는데 사상자가 많아서 1913년경에 경찰의 금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성 특유의 놀이였던 것 같다.

⑫ 불놀이

쥐불놀이가 현대화된 것으로 강통의 여러 곳에 구멍을 뚫은 후 양끝에 줄을 매고 그 안에 나무 조각을 넣고 불을 붙여서 휘두르면서 뛰어다니며 노는 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⑬ 액풀이 활쏘기

활은 대나무, 활줄은 닥나무, 활촉은 대나무를 기름에 담갔다가, 솥불에 구어 만든 활을 냇가에서 쏘는데 활촉에 솜방망이를 매서 불을 붙이고 일년 동안의 무병건강을 축원하며 쏘는 액풀이였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더러 행해졌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⑭ 거북놀이

팔원 보름날 동네 사람의 장수와 안녕을 비는 놀이로, 안성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었는데 지금도 농촌에서는 더러 행해진다.

⑮ 귀신날(귀신닭 날)

16일을 ‘귀신날’ 혹은 ‘귀신닭 날’, ‘귀신 붙은날’ 이라고 하는데 외출과 일체의 일을 삼가고 폭 쉬는 날이다. 그 까닭은 남자가 일을 하면 1년 내 우환이 있고,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는 속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날은 일년 동안 모아 두었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황혼시에 문 밖으로 목화씨와 함께 태움으로써 귀신을 쫓고 액을 면할 수 있다는 풍속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전까지는 성행했으나 지금은 일부 노인층에서만 더러 행해지고 있다.(김세용씨 제공)

5) 입춘(立春)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된다는 날인데, 보통 양력 2월 4일이나 5일경이 된다. 입춘이 되면 새봄을 맞이하는 뜻에서 대문이나 기둥에 옛사람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춘련을 써서 봄을 축하하는데 이것을 ‘春祝’이라 한다. 이때 댓구를 맞추어 두 구절씩 쓴 춘련을 ‘對識’ 또는 ‘對聯’이라 부르는데, 흔히 쓰이는 대련으로는 ‘壽如山富如海 : 산처럼 장수하고 바다처럼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立春大吉 建陽多慶 : 입춘에 크게 좋은 일이 있고 새해가 시작됨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掃地黃金出 開門百福來 :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등 희망어린 글귀들이 쓰이고 있다. 또한 농가서는 입춘날 보리 뿌리를 캐어 그해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점치는데, 보리 뿌리가 세 가닥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흉년이 된다.

이러한 입춘날의 풍속은 안성에 지금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2. 二月

1) 1일 풍속

① 영등 할머니

음력 2월 초하룻날은 ‘영등 할머니날’ 이라고 하는데 이날 영등 할머니는 세상에 내려와 민가를 두루 시찰하고 20일에 다시 올라가서 세상 형편을 하느님께 아뢴다고 하여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풍속이 지금도 우리 안성에 전승되고 있다. 이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딸이 입은 다홍치마를 휘날리려고 몹시 바람이 부는데 그러면 흉년이 들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그를 미워해서 다홍치마를 얼룩지게 하려고 비가 내리는데 그러면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 20일도 같은 원리다. 그리고 이날부터 15일 혹은 20일까지 외출을 삼가기도 했다. 그리고 20일에도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전한다.

②머슴날

2월 1일을 농가에서는 ‘머슴날’ 이라고 하는데 농사에 가장 중요한 머슴을 위로하는 날이다. 이날 주인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머슴을 배불리 먹이고, 머슴들은 동네 풍물을 가져다가 하루종일 흥겹게 논다. 그리고 그해에 나이 20이 된 머슴은 선배 머슴에게 한 톱을 내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인식으로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표식이기도 하다. 또한 종래 반사람 뭇 밖에 노동량을 쳐주지 않았었는데 이를 통하여 완전한 성인으로서 노동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머슴날은 산업화의 전개와 신분제의 타파로 말미암아 지금은 소멸 되었다.

③나이떡

2월 초하룻날에는 온 식구의 나이대로 손가락으로 쌀을 떠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날을 ‘나이떡날’ 이라고 한다. 이 나이떡은 歲餅 또는 壽福餅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 온 집안이 무병하고 만사가 모두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④콩볶기

2월 1일에는 또한 농가에서는 집집마다 콩을 볶아 먹는다. 콩을 볶을 때에는 콩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걱으로 콩을 저으면서 ‘달달 볶아라, 콩을 볶아라, 새알도 볶고 쥐알도 볶아라, 달달 볶아라’ 하면서 설새없이 콩을 짓는다. 이렇게 콩을 볶아 먹으면 새와 쥐가 없어져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농경 세시풍속과 연관하여 농사일에 세심한 배려와 기원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월 1일의 세시풍속은 농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농경과 관련된 풍속이 많은데 ‘영등할머니’, ‘머슴날’, ‘콩볶기’ 등이 그것이다. ‘나이떡’과 ‘콩볶기’는 안성에서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⑤ 노래기날

2월 1일은 대청소를 벌이는 날이다. 겨우내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방안 구석 구석의 먼지도 털고, 거미줄도 걷어 내며, 문지방, 마루틈새, 장롱밑 등 평소애 손이 안가던 곳도 깨끗이 쓸고 닦는다. 집 안팎 뿐만 아니라 헛간이나 외양간 같은 가축 우리도 거름을 치우고 깨끗이 씻어낸다. 이렇게 청소를 하여 두면 봄을 맞는 기분도 상쾌하고 또 겨울동안 방 구석에서 추위를 피해있던 노래기 등의 벌레와 해충들의 알을 쓸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았기 때문에 노래기 등의 더러운 벌레들이 짚 속에서 알을 까고 집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므로 농가에서는 이 노래기를 쫓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생각해 낸 것이 부적으로, 흰 종이에 ‘香娘閣氏 速去千里 : 향랑 각시야 빨리 천리 밖으로 달아나라’ 라는 글을 써서 집의 서까래나 벽기둥에 거꾸로 붙여 놓으니, 이러면 노래기가 천리 밖으로 도망가리라 믿었던 것이다. 향랑각시란 노래기를 의인화한 말로써, 옛날에는 이러한 풍습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나, 지금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초가의 소멸과 사회 위생의 일반적인 보급으로 이러한 노래기날 풍속은 거의 소멸되어 찾아보기 어렵다.

2) 月內 풍속

① 줌생이보기

‘줌생이’는 28星 중 ‘昴星’의 속칭인데 작은 별들의 群星으로 2월 초엿새날 저녁에 마당이 높은 데서 줌생이와 달의 거리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줌생이가 달보다 앞서가면 풍년이 들고 달고 나란히 가면 평년이 되며 뒤떨어져 가면 흉년이 들고, 빛깔이 너무 붉으면 가물고 물을 먹은 듯이 맑으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에 연유된 풍속인데 아직도 농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3) 청명(淸明)

청명은 24절기 중의 한 절기로, 양력 4월 5일쯤이 되고, 또한 한식날과 겹치거나 그 하루 전날이 되는 수도 있다.

농가에서는 이날부터 비로소 봄갈이가 시작되는 날로, 예와 같이 불씨를 옮기는 행사는 베풀어지지 아니하나, 우리고장 안성에서는 지금도 이 날에 분주하게 농사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4) 한식(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으로, 북한 지방에서는 설 대보름 단오 추석이 사대명절인데 반해 설 대보름 추석과 함께 안성 지방의 사대명절의 하나로, '단오'보다 '한식'이 더욱 꼽히는 남한 지방의 특색 있는 명절의 하나이다. 이날은 지금도 음식과 과일을 차려가지고 성묘를 하고 무덤의 별초와 묘 돌레에 식목도 성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날은 찬밥을 먹어야 한다는 습속이 있는데 이는 불을 때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중국 진나라 때 충신 '介子推'의, 냇을 기리는데서 유래 된 것이라고 한다. 이때가 양력 4월 5,6일에 해당되어 식목일을 정하고 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것도 이런 유습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거나 국가의 불행이 생긴다는 속신도 있다. 한편 농가에서는 이날부터 채마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

3. 三月

1) 삼월 삼진날

3월 3일을 '삼진날' 이라고도 하고 '重三' 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진달래꽃과 참쌀가루로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떡인 花煎과 오미자국에 녹말을 섞워서 살짝 데친 진달래 꽃술을 튀운 화채인 '花麵'과 녹두로 국수를 만든 '水麵'을 가지고, 무당과 함께 牛潭의 東西 龍王堂 및 三神堂으로 가서 소원을 빌며 하루를 즐기는 습속이 있었는데 이를 '踏青' 이라고 한다. 이 날은 제비가 돌아오고 개구리와 나비도 새로 나오는데 이들 중 어느 것을 먼저 보거나 나비의 색깔에 따라 그 해의 운수를 점쳤는데 흰나비를 먼저 보면 喪을 입게 되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운수 대통하고 몸도 건강하다고 점쳤다.

節’ ‘端陽’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단오 4명절의 하나로 북부 지방에서 더욱 성행하던 명절로, 수리치로 둥근 떡을 빚어먹고 백가지 나물을 캐다가 먹기도 한다.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마시며 창포 뿌리로 비녀를 꽂고 그네를 뛰며 즐긴다. 초파일에 맨 그네는 이때 끊는다. 반면에 남자들은 씨름이나 石戰 등을 즐기나 안성 지방에서는 그중에도 씨름이 더 성행했었다.

2)月内 풍속

①봉숭아 들이기

음력 5월이면 봉숭아 꽃이 한창인데 소녀들은 봉숭아의 꽃과 잎을 백반과 함께 찜어서 손톱 위에 얹고 실로 동여맨 후 하루 녀을 지나면 손톱이 빨강계 물이 드는데 요즘음의 메니큐어 이상으로 이쁘다.

우리고장 안성에 내려오는 전설에⁴⁾ 의하면, 안성 어느 마을에 계모를 극진히 섬기는 孝童이라는 아이가 鳳仙이란 신선을 따라 나섰다가 얻은 꽃씨를 심어 피어난 꽃을 봉선화(鳳仙花 : 봉숭아)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孝童과 봉선화’라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우리 고장 안성에서는 이맘 때가 되면 봉숭아 물들이기가 성행하고 있다.(안성지역의 민담, 전설편 참조)

6. 六月

①유두(流頭)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 이라고 한다. 이때쯤이면 한창 더운 때이다. 이 날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불길한 것이 씻겨진다고 하여 여인네들은 맑은 냇물을 찾아 가서 목욕을 하거나 창포에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즐겼고, 남자들 역시 계곡이나 정자 등에서 술과 노래로 하루를 즐겼다. 그리고 이 날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콩이나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찐 떡인 霜花餅과 밀국수 그리고 피, 조, 벼, 콩... 등 모든 곡식을 참외나 수박 등과 함께 사당이나 터주에 바치고 가내의 평안과 그해의 풍년을 기원하는데 이것을 ‘流頭薦新’ 이라고 한다. 아직도 이 풍습은 안성에서는 더러 행해지고 있다.



2) 삼복(三伏)

하지를 기점으로 하여 세 번째 드는 庚日을 초복, 네 번째 드는 경일을 중복 그리고 입추부터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이 동안이 1년 중 가장 더운 철이고, 모든 곡식은 이 때문에 부쩍 자란다. 그리하여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냇가에서 천렵을 하거나, 개장국이나 삼계탕으로 시절음식을 삼는데, 이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고장에서도 복날에 개장국이나 삼계탕을 많이 먹고 있다.

7. 七月

1) 칠석(七夕)

7월 7일로, 이날은 기름냄새를 풍기면 좋다고 하여 소당질을 한다. 밀가루로 밀전병과 밀떡을 하여 신주와 터주에게 바치고 이웃집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날은 일년동안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이날밤에는 으레 비가 오는데 그것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라고 한다.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銀河水’라는 내를 건너야 하는데 이때 까치와 까마귀가 몸으로 다리를 놓아 주기 때문에 이 날은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다는 전설이 있다. 이 날은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거나 우물을 치기도 했는데, 지금도 안성지방에서는 밀전병과 떡을 부쳐 먹는 풍속은 더러 행해지고 있다.

2)백중날(百重日)

7월 15일로 ‘中元’이라고도 한다. 승려들은 제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며 농번기를 마친 민가에서는 일꾼과 머슴들이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며 놀거나 백중장을 가서 하루를 즐기는 데 그 장소가 안성천 쇠장거리 다리 옆이었다. 특히 이 날은 각지방의 씨름꾼들이 모여서 ‘소걸이 씨름’을 하고 투전을 비롯한 각종 놀음과 탈춤놀이 등이 벌어진다. 이 날 장마당은 술에 취한 사람과 노름꾼, 씨름꾼, 탈춤꾼 등으로 붐비는데 이를 일러 ‘난장판’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한국전쟁 후까지도 성행했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월내(月內) 풍속

① 호미씻이

음력 7월은 농사일 중 갈고 김매고 하는 일이 일단 끝나는 달이다. 그러므로 백중절을 전후하여, 여름 동안 논을 매고 밭을 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연장이던 호미를 잘 씻어서 다음 해의 준비를 위하여 깊숙이 보관한다. 이것은 농사가 일단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에 술을 빚고 떡을 하고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두레공동 작업의 성원들을 위로한다. 이런 의미에서 ‘洗鋤寔’이라고도 한다. 우리 고장에서 ‘두레’에 대한 공식조사 보고된 바는 없으나, 두레놀이가 성행하였고, 풍물을 두레와 동일시하고 있음은 우리 고장에서도 두레가 매우 성행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두레와 풍물은 전혀 별개의 것이나 두레공동작업이나, 작업이 끝난 뒤의 호미씻이에는 언제나 풍물이 뒤따라 흥겹게 하였던 까닭에 ‘풍물’을 ‘두레’로 보았던 것이다. 이 호미씻이는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8. 八月

1)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또는 ‘仲秋節’이라고도 하는데 4대명절 중 가장 크게 즐기던 명절이기도 하다. 이 날은 새옷이나 옷을 깨끗이 손질하여 입고는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 햇과일 등을 차려 놓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한 후 간단히 酒果浦를 가지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이 날은 성묘를 마친 후 ‘거북놀이’를 비롯해서 ‘소먹이 놀이’, ‘씨름’, ‘두레놀이’, ‘탈춤놀이’, ‘활쏘기’, ‘줄다리기’ 등 각종 놀이를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줄다리기’, ‘거북놀이’ 등은 일년 중 이때가 가장 성행했고 다른 지방보다도 성행했었다.

9. 九月

1) 중양절(重陽節)

9월 9일을 ‘重九’ 또는 ‘重陽日’이라고도 한다. 절기가 늦어서 추석에 곡식이 익지 않으면 추석 차례를 이 날로 물렸다가 지내기도 한다.



이날은 국화꽃을 따서 술을 빚고 찹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단자를 만든 국화주와 국화전을 가지고 단풍이 든 산이나 계곡을 찾아서 하루를 즐겼는데 이러한 풍속은 지금도 안성지방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10. 十月

1) 月内풍속

① 타작

일년동안 지은 벼농사를 걷어들이며 탈곡기에 의해 벼를 떨어서 섬이나 가마니, 최근에는 자루에다가 담는 풍속인데 대체로 절기가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시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돌려가며 행한다. 이웃집끼리 모여 남자들은 탈곡기로 벼를 떨어고 아낙네들은 햇곡으로 밥을 짓고 쇠고기 등을 장만하여 온 동네가 함께 즐기는데 이 풍속은 기계화로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안성지역 일부에서는 아직도 더러 행해지고 있다.

②고사(告祀)

음력 10월은 '상달' (上月)이라고 하는데 가을걷이와 타작을 끝내고서 햇곡식으로 팔고물을 엮은 무시루떡을 만들어 놓고 성주신께 금년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준데 대한 감사와 온 가족의 평안, 풍년을 빌고 이웃집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 때 옛날에는 무당을 불러서 지냈는데 지금은 가족끼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더러는 아직도 무당을 불러 지내기도 한다.

③시향(時享)

'時祭' 라고도 하는데 忌祭祀를 4대조까지만 지내기 때문에 5대조 이상의 조상의 제사는 시월의 어느 날을 받아 온 종중이 산소를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10월 1일부터 15일 안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제사 음식을 위터(時祭畚 혹은 時祭田)를 일정한 사람에게 경작시켜 일정한 賭租 받아 그것으로 음식과 과일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 날은 타향에 나가 있는 모든 자손들까지 한데 모여 제사를 지낸 후 하루를 즐기는 날이다. 이 풍속은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타향 생활을 많이 하는 오늘날은 일가친척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의의도 커서 어느 지방이나 공통으로 성



행하고 있다.

④동제(洞祭)

시월의 길일을 택하여 ‘山致誠’을 드리는 洞祭가 있다. 마을마다 일정한 산의 나무(神木)를 택하여 과일과 음식을 차려 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인데 祭官은 喪故나 胎氣, 解産 등이 없는 성실한 마을의 유지가 선출되며 선출된 제관은 모든 일에 근신을 하며 목욕제계를 하고 제사에 임한다. 동제일을 받은 일정 기간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상고가 나면 일단 중지하며, 신목과 제관 집에는 금줄을 치고 집집 및 동네의 대청소까지 하는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특히 동제를 지낸 후는 온 동민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쇠고기 먹기가 어려운 때에 이때만은 고기 맛을 보는 축제이기도 하다. 경비는 대개 공동 부담인 추념을 내나 만일 고기를 더 먹으면 그에 상응한 비용을 내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풍속은 현재까지도 우리 고장의 一竹面과 孔道邑, 寶蓋面, 서운면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⑤김장

시월은 김장달이고 하여 입동을 전후한 6일 안팎에 김장을 담근다. 이웃집 주부들이 돌아가며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고 아울러 특별한 음식도 장만하여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안성지방의 김장은 대체로 배추김치와 깍두기, 동치미 등을 주로 담그고 가정에 따라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손가락 같은 무를 잎사귀와 함께 담그기도 하는데 이것을 ‘달랭이 김치’ 혹은 ‘총각 김치’ 라고도 한다.

11. 十一月

1) 동지(冬至)

24절기 중 22번째 해당하는 절기로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 날부터 해가 길어진다고 하여 ‘작은설’ 혹은 ‘亞歲’라고도 한다. 이 날은 동지 팔죽을 쑤는데 찹쌀가루로 새알모양의 둥근 떡을 만들어 넣는다. 이것을 ‘새알심’이라고 한다. 팔죽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 다음 대문에 뿌리고 마루나 장독 등에 퍼다 놓음으로써 잡귀를 물리치고 가내의 평안을 빈 후 이웃 집끼리 나누어 먹는데 지금도 우리 고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12. 十二月

1) 月内풍속

① 묵은세배

전해에 세배를 못했던 것을 정월 초하루 전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인사로서 가까운 일가 친척을 찾아 다니며 세배를 하는 풍속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② 夜光鬼 및 밤새우기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재앙과 불행을 쫓고 새 해의 행복을 맞으려는 행사의 하나가 '夜光鬼'를 쫓는 풍습이다. 야광귀가 선달 그믐날 저녁에 내려와서 제발에 맞는 아이들의 신을 신고 달아다니면 그 신 임자는 재앙을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야광귀를 쫓기위해 선달 그믐날 방과 마루, 곳간, 뒷간 등에 불을 켜 놓고 놀이를 하며 밤을 새우는 풍습이 있는데 만일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는 속신이 있다. 그리고 또한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서 체를 안마당의 벽에 걸어 놓는 풍속이 있는데 그러면 야광귀가 체구멍 수를 세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세느라고 신을 훔쳐 갈 사이를 잊고 밤을 새다가 도망간다고 한다. 그리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도 더러 행해지고 있다.

13. 윤달(閏月)

윤달이란 음력으로 12개월 외에 한 달이 더 드는 달을 말하고 그 해는 윤년이라고 한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탈이 없는 달로 알려져 있다. 평소에는 못 하나를 박아도 방위를 보고 손 있는 날은 외출도 삼갔으며 혼사나 이사, 집수리는 반드시 길일을 택해서 했는데, 윤달에는 부정이나 액이 없기 때문에 혼사를 비롯해서 집 이사, 집수리, 사초 등을 이때에 하고 수의도 이때 짓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성행되고 있다.



칠장사를 찾아서*

들어가는 글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혜조국사님이 증창한 절로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소설 '임꺽정'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칠현산 이지만 다른 산 이름은 아미산과 도종산이고 마을아래 이름은 극락골입니다. 극락을 통해 불경에 나오는 산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칠장사로 가는 길에 위치한 신대마을은 예로부터 안성의 명품중 하나인 북조리를 만드는 고장입니다. 최근에 많은 증창불사가 이루어지고 길도 새로 나서 옛 정취를 기대하는 분들께서는 적지 아니하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래도 단청 빛 아래 대웅전과,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혜조국사비, 나한전 등이 있고, 궁예와 임꺽정의 이야기, 그리고 서해바다가 보인다는 관해봉이 있어 결코 후회하지 않을 답사여행이 될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칠장사의 창건과 관련된 이

* 이 글은 2005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8호에서 발췌·편집한 것임.



야기 일 것입니다. 칠장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연간 혹은 진덕여왕 때에 초창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근래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사적비나 중건기, 혹은 남아 있는 유물 중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전이나, 자료, 유물 등으로 보았을 때 칠장사는 적어도 1014년(고려 현종 5년)에 정현대사(혜조국사)에 의해 중창되고 이때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혜조국사의 7도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1308년에 대규모 중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혁

- 648년 (진덕여왕 2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미확인)
- 1014년 (고려 현종 6년) : 혜조국사가 사찰을 중건함
- 1060년 (고려 문종 14년) : 혜조국사탑비 건립
-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 : 대규모 중창
- 1383년 (고려 우왕 9년) 불우를 중수함, 왜적의 침입으로 충주 개천사에 있던 <고려역조실록>을 칠장사로 옮김
- 1671년 (조선 인조 1년) 인목대비가 친부인 김제남과 세자 영창대군을 위하여 칠장사를 원당으로 하여 사우를 일신 중건함, 사적비를 건립함
- 1671년 (조선 현종 12년) 사찰을 중수하고 <칠장사 향화 사적비> 세움
- 1694년 (조선 숙종 20년) 세도가가 사찰을 장지로 쓰기위해 사우를 전부 불태우고 상좌스님인 제월 대사를 분살(焚殺)함
- 1703년 (조선 숙종 29년) 탄명이 팔나한상을 작은 법당을 지어 봉안 하였으며, 명적암 아래쪽에 오십삼불명호비를 세우고 28층의 철당간을 고쳐 세움.
- 1782년 (조선 정조 6년) 죽산도호부 관리 이언충에 의해 대웅전 내 동종이 주조됨
- 1878년 (조선 고종15년) 서해, 해성 두 승려가 48칸의 요사를 지음
- 1887년 (조선 고종 24년) 화재가 일어남
- 1982년 대웅전을 해체 보수함

문·화·재 -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1) 七長寺五佛會掛佛幀(국보 제 296호)

구름을 이용하여 화면을 상·중·하 3단으로 구분지은 다음 오불회〈五佛會〉와 도솔천궁〈兜率天宮〉을 적절하게 배치한 이 괘불도는(괘불이란 절에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그림이다) 길이가 6.56m, 폭 4.04m로 비록 중간 크기이긴 하지만, 세련된 인물의 형태와 유려한 필선, 화사하면서도 은은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예배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불교그림은 단일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이 괘불도에서는 삼신불〈三身佛〉을 묘사한 상단과 삼세불〈三世佛〉의 세계인 중단, 수미산 정상에 도솔천궁을 표현한 하단 등 3단구성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대제자와 용왕과 용녀, 팔부신중, 시방제불〈十方諸佛〉들이 에워싸듯 그려져 있는 상단에는 지권인〈智拳印〉에 거신형 광배를 갖춘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을 중심으로 노사나불과 석가불이 배치된 법〈法〉·보〈報〉·화〈化〉 삼신불〈三身佛〉이 표현되어 있으며, 중단에는 일광〈日光〉·월광보살〈月光菩薩〉과 관음〈觀音〉·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협시로 하고 제석〈帝釋〉·범천〈梵天〉, 사천왕〈四天王〉, 금강역사〈金剛力士〉 등 여러 신중들을 거느리고 있는 약사불〈藥師佛〉과 아미타불〈阿彌陀佛〉을 그려 상단의 석가불과 함께 과거·현재·미래계의 상징인 삼세불〈三世佛〉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구름속에 솟아있는 수미산 꼭대기의 도솔천궁과 우바이·우바새 등의 대중들이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낸 하단부에는 관음보살이 기암괴석에 앉아서 선재동자〈善財童子〉의 청법〈請法〉을 받고있는 모습이 좌측(향우〈向右〉)에 묘사되어 있고, 우측(향좌〈向左〉)에는 지옥계의 구세주인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무독귀왕〈無毒鬼王〉과 도명존자〈道明尊者〉, 판관〈判官〉, 선악동자〈善惡童子〉를 거느리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화면을 삼단으로 나누어 각 단의 성격에 맞게끔 인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즉 삼신불과 삼세불의 세계를 통하여 깨우침의 진리를 터득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구원으로 마침내 최상의



세상인 도솔천궁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 괘불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화폭 전면에 걸쳐 펼쳐져 있는 밝은 색조의 구름과 불의〈佛衣〉의 선명한 홍색으로 경쾌함을 보여주는 이 괘불도는 녹색의 주조색에 황색과 황토색의 대비로 인하여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단아하고 세련된 인물의 형태와 짜임새 있는 구도, 섬세하고 치밀한 필치 등에 있어서 당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조선시대 17세기 전반기의 불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괘불은 조선 인조 6년(1628)에 법경(法炯)이 그린 것으로 괘불함 없이 종이에 싸서 대웅전에 보관하고 있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2) 七長寺三佛會掛佛幀(보물 제 1256호)

대영산회도로 석가불을 중심으로 노사나불과 아미타불, 그리고 그 권속들이 복잡하게 에워싼 2단구도이다.

거신형 광배에 경가부좌한 석가불은 팔대보살·십대제자·사리불·제석천과 범천·사천왕·금강역사 등의 협시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다.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묘사된 방형의 얼굴은 표정이 경직되고 엄숙하며, 신광안에는 변형된 화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수미단 아래에는 사리불이 법문을 청하고 있다.

문수·보현보살과 나머지 보살들도 본존과 같은 얼굴 표정을 짓고 각기 합장을 한 모습이며, 제석·범천은 약간 작은 크기와 채색을 달리한 얼굴을 하여 다른 보살들과 구별되고 있다.

상단에는 이중륜광의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이 각기 협시를 거느리고 배치되어 있는데 노사나불은 보살형으로 영락장식이 화려한 보관에 설법인을 짓고 있으며, 아미타불은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사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보탑은 화면을 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상단에는 용왕·용녀·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반원형의 광배 안에 9구의 보살과 좌우 5구씩의 십방제불〈十方諸佛〉이 천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괘불도는 하단은 영산회상도, 상단은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을 묘사하고 있어 상단을 떼어내어도 단독의 영산회상도를 보여주는 독특한 도상인데 삼신불

과 삼불화를 가장 간략하게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간략화시키는 구성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고 있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3) 七長寺慧炤國師碑(보물 제 488호)

이 비(碑)는 고려(高麗) 문종(文宗) 14년(1060) 혜조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서 글은 김현(金顯)이 짓고 글씨는 민상제(閔賞濟)가 썼다.

혜조국사는 고려(高麗) 광종(光宗) 3년(972) 안성에서 출생하여 10세에 삭발 입산하고 17세에 용천사(融天寺)에 가르침을 받았으며 뒤에 고승으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다. 대사는 말년을 칠장사(七長寺)에서 수도하며 이 절을 크게 중창하였고, 문종 8년(1054)에 이 절에서 83세로 입적(入寂)하였다.

이 비신(碑身)의 높이는 3.15m, 폭은 1.42m이고 귀부(龜趺)의 구갑은 방원형, 비신의 양측에는 쌍룡이 새겨졌는데 그 솜씨가 볼 만하다. 비문에는 대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글씨에서는 고려인다운 뛰어난 품모가 느껴진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4) 安城奉業寺石佛立像(보물 제 983호)

이 불상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중학교에 있던 것을 칠장사(七長寺)로 옮긴 것으로 입상(立像)과 광배(光背)가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된 것이다.

입상높이는(立像高) 157cm 총고(總高)는 198cm(광배(光背)와 입상(立像)이다. 소발(素髮)의 머리 위에 큼직한 육계가 있고, 눈·코·입은 마모가 심하여 전체적인 인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원만하다. 양쪽 귀는 길게 표현되어 어깨에 닿을 듯하며 목의 삼도(三道)와 어울려 위엄을 자아낸다.

통견(通肩) 법의(法衣)의 옷주름은 여러 겹의 원호(圓弧)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군의(裙衣)가 양 다리사이에서 지그재그 모양을 이루고 있다.

수인(手印)의 오른손은 가슴부분까지 들어 손바닥을 가슴에 붙이고(내장: 內掌) 있으며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려 법의자락을 잡고 있다.

전체적인 신체표현에 있어서는 손이 비교적 큰 편이기는 하나 머리, 어깨넓이 등의 신체 비례가 좋다.



광배(光背)는 두(頭)·신광(身光)의 거신광(擧身光)으로 주위에는 화염문(火焰紋)을 두르고 있다. 이중(二重) 테두리의 두광과 신광에는 아무런 바탕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으며 단지 두 광내에 여러가지 모양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는 화불(化佛) 3구(軀)가 배치되어 있다. 광배의 뒷면은 아무런 조각이 되어 있지 않은 평평한 판석(板石)이다.

당당한 어깨, 발달된 신체표현, U자형의 유려한 옷주름, 그 밖의 조각기법 등으로 미루어 이 불상은 고려시대 초기에 유행했던 이 지방 불상양식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 불상이 있었던 죽산일대는 고려시대의 번창했던 봉업사지(奉業寺址)로 알려져 있으며 둥근 연꽃 기단(基壇)과 탑재(塔材) 등이 지금도 흩어져 있어서 특히 주목된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5) 仁穆大妃親筆族子(경기도 유형문화재 34호)

이 족자는 인목대비(仁穆大妃)(1584~1632)가 쓴 것으로서, 시기는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잃고 폐모의 위기에 몰려 용주사의 한 암자였던 칠장사로 피해 있을 때로 추정된다.

왕통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 광해군은 선조의 첫째 왕자인 임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살해했으며, 또한 인목대비를 폐비시킨 뒤 서궁에 감금하였다. 억울하게 죽은 친정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영창대군을 생각하면서 칠언시(七言詩)를 직접 써서 김광명(金光明)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쓰여진 시기는 인조(仁祖) 원년(1623) 혹은 그 전후로 추정할 수도 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과 동시에 인목왕후의 지위가 회복되고 영창대군과 김제남의 장례를 다시 치르게 되었으며 인목대비가 한글로 영창대군의 행장(行狀)(사람이 죽은 후에 그가 일생 동안 한 일을 적은 글)을 지어 내렸기 때문이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6) 七長寺幢竿(경기도 유형문화재 39호)

이것은 혜조국사(慧炤國師)와 관계있는 철제당간(鐵製幢竿)과 지주(支柱)로 칠장사(七長寺)로부터 약 500m 정도의 거리에 세워져 있다(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에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면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 둔다. 깃발을 걸어두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

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전설에는 칠장사가 있는 지형이 배(舟) 모양과 같아 돛대로써 이 당간지주를 세운 것이라 고도 하는데, 조선시대(朝鮮時代) 풍수설(風水說)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간과 지주의 형태는 화강암(花崗岩)으로 만든 두 지주가 마주 서 있고 그 사이에 원통(圓筒)으로 된 철제당간을 세웠다.

당초에는 원통 모양의 철제당간이 30마디였으나 현재는 15마디만이 남아 전해 내려오는데, 당간의 직경은 43cm에 높이는 9.9m이며, 총 높이가 11.5m에 이른다. 이 당간을 받치고 있는 지주의 높이는 3m에 달한다. 흙으로 덮여 잘 드러나지 않는 바닥은 네모난 구멍을 마련하여 당간을 꽂았다. 양쪽 기둥은 조각이 없는 소박한 형태로 끝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철당간은 위로 오를수록 크기가 줄어들고 각 이음새부분은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형성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칠장사 외에는 청주용두사지와 공주갑사에서만 당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희귀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7) 七長寺大雄殿(경기도 유형문화재 114호)

조선 숙종 20년(1694)에 절이 불에 타 숙종 30년에 석규대사가 대웅전을 옮겼다. 영조 12년(1736)에 설영대사가 고쳤으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칠장사의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법당으로 조선 후기에 세워져 여러 차례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웅전(大雄殿)의 건립 연대는 미상(未詳)이나 조선(朝鮮) 후기(後期)에 세워져 몇 차례 중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3칸의 다포계(多包系) 공포를 갖춘 맞배지붕 건물로, 이러한 건물형식은 조선 후기 소규모 사찰의 대웅전 건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기단(基壇)은 장대석(長臺石)을 5단(五段)으로 쌓았고, 원형(圓形) 초석(礎石) 위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원주(圓柱)를 세웠다. 천정은 빗반자와 우물천정으로 하고 불화(佛畵), 연화문(蓮華紋) 등으로 채색하였다. 중앙에는 불단이 있어 그 위에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8) 七長寺塑造四天王像(경기도 유형문화재 115호)

이 소조사천왕상(塑造四天王像)은 사천왕문(四天王門) 좌우로 2구씩 봉안되어 이 절을 수호하고 있다.

모두 악귀(惡鬼) 위에 걸터앉아 각기 칼, 창, 비파(琵琶) 등의 물건을 들고 있는데,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 다리를 벌리고 앉은 자세(姿態) 등이 당당하고 위엄에 찬 천왕(天王)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은 조선(朝鮮) 후기(後期)의 대부분의 사천왕상이 그러하듯, 험상궂거나 무섭기보다는 해학적이고 친근미가 넘치는 모습이다.

화려한 보관(寶冠), 치밀한 무늬의 갑옷 및 천의(天衣) 등의 표현이 정교하며, 원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사천왕문이 세워진 영조 2년(1726)에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부분의 조각수법에서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 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보편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9) 七長寺(경기도 문화재자료 24호)

칠장사가 창건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세기경에는 사찰이 경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현종(顯宗) 6년(1014)에는 혜조국사(慧炤國師)가 왕명으로 중창하였는데, ‘칠장사’와 ‘칠현산(七賢山)’이란 이름도 국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7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현인으로 만들었다는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우왕(禡王) 9년(1383)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충주 개천사(開天寺)에 있던 『고려역조실록(高麗歷朝實錄)』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사찰이 당시 불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 왜구가 사찰을 전소시킨 후 오랫동안 복구되지 못하다가 조선 중종(中宗) 원년(1506)에 흥정대사가 가람을 중건하였고 인종(仁宗) 원년(1623)에는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아들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원찰(願刹)로 삼아 크게 중창하였다.

현종(顯宗) 15년(1674) 당시 세도가들이 장지(葬地)로 쓰기 위하여 사찰을 불태운 후 초견대사가 건물들을 중건하였으나 숙종(肅宗) 20년(1694)에 세도

가들이 또 다시 사찰을 불태웠다.

숙종 30년에 석규대사가 대법당과 태청루 등의 건물을 중건하였고, 영조<英祖> 원년<1725>에는 선진대사가 원통전을 세웠다.

이후에도 많은 건물의 영건 활동이 잇따랐으나 오히려 사세<寺勢>가 약해져 이전의 영화를 되찾지 못하였다.

현재 경내에는 대웅전과 원통전을 비롯한 12동의 건물과 혜조국사탑 및 탑비, 철제당간 등의 유물 등이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자료출처 : 문화재청)

10)칠장사 사적비(향토유적 24호)

칠장사 입구 약 700m지점 당간지주 옆에 위치한 화강암 비석으로, 1671년(현종12)에 건립되었고, 높이 2.2m, 가로 1.06m, 폭 0.27m의 자연암반(220cm 150cm 90cm)위에 세운 비신에는 <조선국 죽산 칠현일입>이라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시주, 화주자의 이름들이 음각되어 있으며, 승정 44년은 1671년(현종12)에 해당되고, 사적비는 자연암반 상면에 비공을 파고 세웠으며, 이수를 갖추지 않고, 상면은 둥글게 처리한 형태로 비문이 노출되어 있다. 칠장사에서 목서의 사적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적비는 칠장사의 창건 연대와 중수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자료출처 : 안성시 홈페이지)

11)칠장사 동종(향토유적 25호)

칠장사 대웅전 내에 있는 이 동종은 종신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정확한 조성 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선후기 범종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 준다. 동종의 상단 용 모양은 쌍용으로 옆에 지름 2cm의 원공(圓孔)이 있으며,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다. 상대(上帶) 대신 원좌(圓座)내에 범자(梵字)를 8군데 조각하고 범자 밑에는 4유곽(乳廓)과 원형두광(圓形頭光)의 보살입상(菩薩立像)을 서로 바꾸어 조각했다. 중앙에는 일조의 원대(圓帶)가 있고 그 밑에 명문이 있으며, 하대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다. 유곽은 주연에 사선 문양이 있으며 단엽의 9연좌 중심에 9유두가 있다. 명문은 「건륭사십칠년임인십일월일시(乾隆四十七年壬寅十一月日時) 죽산도호부사이언충(竹山都護府李彦忠)」이라 했는데, 건륭 47년은 조선조 제22대 정조6년(1782)이다.(자료출처 : 안성시 홈페이지)



12) 칠장사 부도군(향토유적 29호)

부도는 스님이 입적 후 유골을 안치한 탑이며 칠장사에서 약 500m 떨어진 칠장리 어구 오른쪽 산기슭에 모두 14기의 석조부도(石造浮屠)가 횡렬로 나란히 위치해 있다. 주변의 지세(地勢)나 각 부도의 상태로 보아 본래부터 이곳을 칠장사의 부도(浮屠) 밭으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기슭을 정지하여 평평한 대지를 만들고 1~2m의 간격으로 부도를 건립했는데, 형태는 모두 석종형(石鐘型)이다. 방형과 8각 혹은 원형으로 지대석을 조성하고 그 상면에 높고 낮은 괴임대 등을 조출하여 탑신을 떠받들고 있다. 어떤 부도에는 지대석 위에 별도의 대석을 마련하고 문양을 조식한 것도 있다. 탑신에는 표면에 별다른 시문(施文)이 없고 상단부에는 보주(寶珠)를 장식했다. 보주의 처리는 석종형부도의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탑신의 배흘림을 상단부에서 일단 끝맺고 보주를 조각했다. 부도에 따라서는 보륜을 모각하여 보주 그 자체를 장식한 것도 보이며, 또는 보주 하단(下端) 주연(周緣)에 연주(連珠)를 돌린 것도 있다.

(자료출처 : 안성시 홈페이지)

13) 죽림리 3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179호)

대웅전 앞에 모여져 있는 이 석탑은 원래 일죽면 죽림리(성원목장)에 있던 것을 2005년 옮겨 모셔놓는 것이다. 이 석탑은 원래 죽산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몇 개의 부재를 모아서 죽림리에 복원했던 것이다.

이 탑은 전체 높이가 363cm이고, 지대석은 가로 171cm, 세로 140cm이다. 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의 석탑으로, 중대석은 각 면을 1식으로 마감하고, 갑석은 1판석에 옥신괴임을 2단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1층 탑신은 2매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면에 둥근 고리(문비)를 탑몸돌[옥신 : 屋身]에는 양쪽에 모서리기둥 [우주 : 隅柱]을 조각하였다. 2층 이상의 탑신은 1층에 비해 체감률이 급격히 줄어 심한 체감비례를 보이고 있다. 2층과 3층 탑신석은 1층과 같이 각 면에 모서리기둥을 모각하였다. 옥개석은 모두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옥개석 받침은 각 층 4단을 이룬다. 상륜부는 방형 노반만이 남아 있다. 탑신부의 체감비율이나 옥개받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자료출처 : 안성시 홈페이지)

14) 기타 : (비지정 문화재)

- ① 원통전 : 건물은 12평 규모로 주불은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의 좌우로는 동자 보습을 한 보살입상을 시위하게 했다. 좌우벽에는 각각 신중탱화와 산신탱화를 걸었다.
- ② 명부전 : 1726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내부의 지장보살상 및 십왕상도 이때 함께 봉안된 것이라고 한다. 목조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상을 배치하고 10위의 십왕상과 8위의 동자상을 봉안했다.
- ③ 괘불대 : 대웅전 앞 계단 좌우에 각각 1쌍씩 위치하고 있는데, 괘불대의 측면에 음각된 기록에 따라 1725년(영조 1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총 높이는 160cm, 폭 44cm, 두께는 31cm이다.
- ④ 나한전과 소나무 : 나한전은 1703년(숙종29년)에 탄명(坦明)비구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나한전 뒤의 소나무는 나옹선사가 1363년(고려 공민왕12년) 공민왕이 봉업사의 진전에 들렸을 때 왕사로서 수행하였다가 칠장사에 들러 심은 것이라 전해진다. 수령이 640년이 넘는 셈이다.
- ⑤ 벽응대사비 : 벽응대사는 1576년(선조9년) 죽산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하여 선과 교를 두루 갖춘 뒤 칠장사에서 가르침을 펴고 입적한 고승이다. 1657년 입적 뒤에 제자들이 영당(影堂)을 세웠고, 1660년에 비를 세웠다. 이때 우승지 벼슬에 있던 정두경(鄭斗卿)이 비문의 글을 짓고 좌참찬 오준(吳竣)이 글을 썼으며 낭선군(郎善君)이 전액(篆額)했는데 위의 내용도 비문에 의한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 ⑥ 원통전 앞 탑 : 단층기단을 갖춘 석탑으로 현상으로 보아 본래 3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을 구성하는 석재는 결실된 부분이 많고, 본래의 부재가 아닌 것도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⑦ 오십삼불호명비 : 대웅전 앞 계단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1703년 탄명스님에 의해 칠장사의 속암인 명적암 아래에 세웠던 것이라 한다. 비석의 형태는 옥개를 갖춘 1면비로 비좌는 자연석에 비공을 뚫어 마련했는데, 훼손이 심하다.
- ⑧ 대웅전 앞 석조 부조물(사방사불석물) : 허일범 진각대학교 밀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경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밀교적 사불의 예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5) 망실, 유출 문화재 : 천수관음상, 금광명 최승왕경

- ①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 인목대비께서 칠장사에 하사하신 것으로 원본은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② 지정원년명 옥등(至正元年銘 玉燈) : 흰색의 옥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구연부 일부에 균열(龜裂)이 있을 뿐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소형의 등으로 곡선이 유연하며 밑이 편편하고 구연밑의 두곳에 구멍을 뚫어 등걸이를 꽂아 걸게 되었는데, 등걸이는 늦쇠로 좌우에서 각각 한번씩 휘어감겨 올라가 중심에서 철형(凸形)을 이루어 걸게 되어 있다.
이 등에는 구연부 바로 아래에 명문이 있어 만든 연대와 사용하던 사찰을 알 수 있는데, 즉 고려 충혜왕 2년(1341)에 삼한대부인 김씨(三韓大夫人 金氏)의 발원으로 만들어져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자료출처및 소장처: 동국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 ③ 천수관음탱화 : 1981년 개금불사 때 도난, 현재 홍제관 안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 ④ 신중탱화 : 1981년 개금불사 때 도난
- ⑤ 목사자상 : 1981년 개금불사 때 도난



이야기

칠장사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는 바 여기 그 대강을 소개하지만 이야기의 재미나 사실감을 풍부히 느끼기 위해서는 칠장사에 방문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훨씬 낫을 것이다.

1) 이야기 하나 - 혜조국사와 일곱도적

정현대사(혜조국사)께서 거의 폐허가 된 칠장사에 <홍제관>이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수행하고 있을 때 인근에 유명한 도적 7인이 있었다. 그 도적 중 한명이 지금도 남아있는 약수터에 물을 먹으러 오니 물을 떠먹는 표주박이 금표주박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굴로 돌아와서 보니 평범한 표주박이었다. 그런 경험을 7명의 도적이 차례로 하고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모두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7명의 도적이 모두 개심하여 정현대사의 제자가 되어 수행하여 나한이 되었다. 그래서 절 뒤의 산이름도 漆賢山에서 七賢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나한전도 후대의 그 7명의 나한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라고 전한다.

2) 이야기 둘 - 궁예

안성에는 유난히 궁예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이곳 칠장사 명부전 벽에도 궁예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칠장사와 궁예의 인연에 대한 구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는 어린시절 신라왕실에서 버림을 받고 세달사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세달사로 가기전 궁예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칠장사이며 “궁예”라는 이름도 칠장사에서 얻은 것이라 한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이 궁예가 활쏘기연습을 했다는 활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3) 이야기 셋 - 병해대사와 임꺽정

병해대사는 조선 연산군 때와 중종 때의 전설적 인물로 그 시기를 다룬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갖바치 출신의 승려로 당대의 개혁가인 조광조 등과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임꺽정하면 조선 3대 의적중의 한



명으로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소설로 유명하다. 그런데 칠장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벽초 선생의 소설에 의하면 병해대사가 말년을 보낸 사찰이 칠장사이고 임꺽정이 결의 형제를 맺고 말타기를 배우고 병해대사를 위해 목불을 해 바친 곳이 칠장사라고 한다.

그래서 임꺽정이 타던 말이름도 <칠장마>라고 전해진다. 또한 벽초선생의 작품에는 안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칠장사와 관련된 이야기고 풍부하게 전해지는바 '우리말의 보고'라고 평가되는 소설 임꺽정을 읽고 명부전 벽화를 본다면 임꺽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전해질 것이다.

4) 이야기 넷 - 혜조국사와 임진왜란

정현대사(혜조국사)는 실질적으로 칠장사를 창건하신 분이고 안성이 고향인 분으로 당시 법력이 대단했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칠장사에는 혜조국사와 관련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다. 혜조국사께서 입적하시고 거의 오백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구가 안성까지 침탈해 들어와 칠장사를 분탕질 하는데 혜조국사비 앞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왜장을 꾸짖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왜장이 칼로 노인을 내리쳤는데 노인은 간곳이 없고 혜조국사 비만 베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구가 혼비백산해서 물러갔다는 그 노인이 바로 혜조국사의 현신이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증명하듯이 지금도 혜조국사비에는 칼자국이 남아 있다.

5) 이야기 다섯 - 인목대비와 칠장사

인목대비는 조선 선조임금의 계비(繼妃:임금이 두 번째로 결혼하여 얻은 비)로, 선조 35년(1602) 왕비에 책봉되었고, 1606년 영창대군을 낳았다.

당시 세자는 광해군이었는데 실권자이던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세자로 추대하려 했으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되었다.

그러자 왕통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 광해군은 선조의 첫째 왕자인 임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살해했으며, 또한 인목대비를 폐비시킨 뒤 경운궁(慶運宮)에 유폐시키고 이름을 '서궁'이라 하였다. 그 후 인조반정으로 대왕대비에 복호되신 인목대비께서 억울하게 죽은 당신의 아들 영창대군과 아버님 김제남을 위해 칠장사를 원당으로 삼고 <인목대비 친필족자>와 <금광명 최승왕경>을 하

사 하였다고 한다. 인목대비께서 칠장사를 영창대군의 원당으로 삼으면서 칠장사는 사우를 새롭게 중수 하였으며 다시 한번 크게 중흥되었다고 한다.

친필족자에 적힌 칠언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老牛用力已多年, 늙은 소는 힘을 쓴지 이미 여러 해
 領破皮穿只愛眠, 목이 찢기고, 가죽이 뚫려 다만 부처의 자비스러운
 눈뿐이로구나
 犁耙已休春雨足, 갱기질과 씨레질이 이미 끝나고 봄물은 넉넉한데
 主人何苦又加鞭, 주인은 어찌 심하게 또 채찍질인가?

칠언시 아랫부분에는 족자의 내력을 적은 배길기(裴吉基)의 글이 있고, 본문 글자의 굵은 획속에 細字로 比丘 濟月堂 社誼가 써 넣은 ‘願’文이 보인다.

6) 이야기 여섯 - 나한전과 박문수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칠장사의 나한전은 7명의 도적이 나한이 된 것을 기념해 그 7분의 나한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그런데 ‘나한’이란 공부를 많이 한 분들로 예로부터 이 나한전에 치성을 드리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알다시피 어사 박문수는 많은 이야기를 남긴 유명하신 분이다. 또 어사 박문수는 이곳 칠장사 말고도 안성과의 인연이 전해지는데 <무신란 : 이인좌의 난>을 토벌한 오명항 선생을 보좌했고 지금도 안성공원에 남아 있는 <오명항 토적송공비>의 글씨는 바로 박문수 선생의 글씨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는 비교적 늦게 등과하게 되는데 박문수선생의 등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곳 나한전에 전해진다.

즉 박문수 선생이 과거보러 올라가던 길에 이곳 나한전이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불공을 드리고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박문수 선생의 등과는 그 유명한 <몽중등과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 그 번역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낙조토홍 쾌벽산(落照吐紅 掛碧山)하니
 한아척진 백운간(寒鵝尺盡 白雲間)이라.



문진행객(問津行客)이 편응급(鞭應急)이요
심사귀승(尋寺歸僧)이 장불한(杖不閑)이라.

방목원중(放牧園中)에 우대영(牛大影)이요
망부대상(望夫臺上)에 첩지환(妾砥丸)이라.

창연고목 계남리(蒼煙枯木 溪南里)에
단발초동(短髮焦童)이 농적환(弄笛還)이라

낙조는 붉게 푸른 산을 물들이고
해는 흰 구름 사이를 자로 재듯 넘어 가는구나
소치는 동산에 소의 긴 그림자 띠를 들렀고
망부산 꼭대기엔 아낙네의 머리쪽이 낮아졌구나
강 건너는 나그네의 말채찍이 급해지고
절로 돌아가는 중의 지팡이는 바쁘기만 하다
깊은 마을 늙은 나뭇가지엔 석양이 비졌는데
더벅머리 초동은 피리를 불며 돌아오는구나

7) 이야기 일곱 - 대각국사 의천과 칠장사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은 혜조국사가 사망한지 30년 후에 이 사찰에 와서 혜조국사의 영전에 참배하고 시를 지어 바쳤다. 이 시는 대한불교 천태종보 2002년판에 백두문화연구소 이형석소장이 소개한 것으로 임금도 떠 받들던 혜조국사의 공덕과 입적의 아쉬움을 노래한 시이다.

空門功業許誰同(공문공업허수동)
불문에서 닦은 공적 누구에게 비길 건가

千乘蓁衣味道風(천승녹의미도풍)
임금도 옷깃 여미고 도풍을 맛보았네

事與人非何足嘆(사여인비하족탄)

세상일과 사람 잘못됨을 탄식한들 무엇 하리

宰官碑贊耀無窮(재관비찬요무궁)

재상이 비문 지으니 무궁토록 빛나네

8)이야기 여덟 - 채제공의 遊七長寺記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갑진년(1784년)에 칠장사에 들려, 감회를 적은 글이 채제공의 문집인 변암집(樊巖集)에 실려 있어 당시 칠장사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채제공이 1780년경 홍국영이 실각할 때 그와 친하고 사도세자의 신원을 주장하였다는 공격을 받아 8년간은 거생활을 할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묘비를 세운 내력*

“그의 얼을 이어받아 안성남사당 풍물놀이패가 제30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바우덕이의 얼을 전수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바우덕이 수묘와 묘비 세움에 따른 경과보고』

바우덕이는 청룡리 불당골에서 자라며 신명을 전수하여 그 기예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신기의 경지에 이르러 온누리에 유명하였다. 특기로는 쇧가락을 울려내는 팽과리 뿐만 아니라 벽구, 사당춤, 줄타기에 그 재주가 지극히 훌륭했던 것이다.

바우덕이는 신라시대 원화(源花)의 맥을 이어받았기에 안성지방에서 남사당의 예능을 주도하게 되었고 조선조 고종 2년 4월 경복궁 중건 때 안성의 석정

* 이 글은 1990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8호에서 발췌·편집한 것임.

동 농악대가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옥관자를 하사 받도록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얼을 이어받아 안성남사당 풍물놀이패가 제30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바우덕이의 얼을 전수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바우덕이의 넋을 위로하며 영원히 그의 신바람을 기리기 위하여 여기에 수묘와 더불어 묘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어 바우덕이의 수묘와 묘비 세움의 경과를 밝힌다.

1989년 9월 30일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패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개선해 돌아오자 지곡은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장 오함현씨에게 간곡히 권고하기를 안성남사당의 원택을 더듬어 바우덕이의 무덤을 찾아내 고사 지낼 것을 조언하였다.

그에 따라 오함현씨는 89년 10월 13일 이른 아침에 지곡을 찾아와 묘지를 확인하러 가자고 하였다. 지곡은 오함현씨와 더불어 1차 청룡리 거주 이기선씨의 안내를 받아 현지를 답사한 즉 잡목이 우거지고 잡초가 무성하니 수묘하기로 다짐하고 수묘계획을 세워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함현씨는 비문 원안을 받아들고 추진하던 중 무덤위치에 대하여 이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어 무덤위치의 확인이 어렵게 되었으나 서운면장 이현성씨가 청룡리 거주 여러 어른들과 중론을 모으니 현 위치로의 확정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바우덕이의 수묘나 묘비 건립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 오함현씨는 당시의 안성군에 그의 추진을 이관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안성군에서는 소요예산을 3백만으로 책정하고 비문과 묘비에 대하여 또는 수묘에 대하여 발의하였으며 비문에 대하여는 안성문화원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남사당패의 전문가인 심우성씨의 감수를 받아 완전히 결정되기에 이르러 작업이 서운면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다.

이어 서운면에서는 주어진 예산과 비문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성남사당 풍물 놀이패의 전국제패 일주년 기념과 더불어 시연차 제31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여하고 돌아온 기념식과 더불어 90년 11월 11일 11시를 기해서 바우덕이 묘비의 제막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永昌大君 祭享參拜記*

永昌大君의 祭亭이 2月 20日 定하였다는 通知文을 받았다. 나는 꼭 참배할 것을 다짐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당시의 비참사를 감회깊게 생각하며 눈시울이 젖었다.

祭亭日是 여러날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신성한 마음으로 참배해야 한다. 그분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仁穆王后의 단 하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 비참하게 蒸殺당하였으니 그 애절하고悲痛한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짐작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祭亭日이 돌아왔다. 安城에서 마침 墓地까지 가는 승용차를 만나게 되어 寶蓋面, 三竹面, 竹山面 소재지를 거쳐 一竹 죽화초등학교 옆을 통과 약 1Km 지나면 우측 다리를 지나 현지에 到着해 보니 祭亭時間 正午 20분전이었다.

安城 시내에서 약 20Km 정도 왔구나 하는 생각이다. 이곳은 지금의 안성시

* 이 글은 1992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0호에서 이성재의 글을 발췌·편집한 것임.

일죽면 고은리 은석부락이며 부락 북측 약 100m 상거한 古銀里 山 24의 5번지 마옥산에 位置한 墓域이다. 당일 날씨는 햇빛이 따스하나 바람이 옷깃을 스칠 정도였다. 모인 사람들은 이해구 국회의원, 권종철 도의원 비롯하여 전주 리씨 안성군 종친 회원 70여명이 참석, 종친 이윤기 집례로 三獻官은 初獻官으로 永昌大君 12대손李大鎔, 亞獻管으로 종친 이해구 국회의원, 終獻管으로 안성 종친회 분원장李倫基로서 정하고 흘기 종친李根秀, 대축 종친李鍾七 집사 종친 7명으로 종친李聖帝가 사회로 분향 제배했다.

永昌大君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 75호로서 위치는 마옥산의 산록남향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200m 북측 상거하여 중부 고속도로가 북남으로 연결해 있었다. 묘역은 2계단으로 되어 있고, 잔디풀이 잘 번식되었으며, 봉분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과 동자석, 망부석, 문인석, 각각 한쌍씩 배역되고 있으며 신도비는 병풍석, 지대석으로 되어 있다. 祭亭은 한 시간여 걸렸으며 하단잔디밭에서 종친 부녀회 주선으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모든 비용은 종친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祭亭은 끝났으나 당시의 역사상의 회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永昌大君은 조선 14대 宣祖大王의 아들로써 1606년(宣祖 39년) 계비(繼妃) 인목대비(仁穆大妃)에서 태어났다. 이름(諱)은 璣 이시다. 모 인목왕후(仁穆王后)는 연안 김씨(延安金氏) 延興府院君 金悌男의 따님이다.

大君은 宣祖가 낳은 열넷 왕자 중 유일한 정비소생으로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宣祖는 1592년(宣祖 25년) 壬辰倭亂 때에 난을 避해 평양(平壤)에서 恭嬪 金氏 소생인 光海君을 卍者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정비 소생인 永昌大君이 태어난 宣祖는 세자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실권을 잡고 있던 柳永慶을 위시한 小北派는 이 뜻에 영합하려 했으나 宣祖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宣祖는 임종을 앞두고 7인의 대신들에게 대군을 돌봐 달라는 遺敎를 내려 뒷일을 부탁하였다. 그때 大北派는 光海君을 지지하여 당쟁으로 확대되었다. 1608년 宣祖가 죽고 光海君이 즉위하자 大北派가 집권하게 되었다. 大北派는 小北派가 永昌大君을 왕립하려 했다는 구실로 小北派의 領首인 柳永慶을 賜死하게 하고 小北派를 추출하였다. 그 후 1609년 光海君은 同腹兄인 臨海君을 不軌를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귀향을 보냈다가 殺害하였다. 뿐만 아니라 永



昌大君과 그 측근에 대해서도 박해를 가하고자 했다. 그러던 차에 1613년(광해 5년) 3월 聞慶의 새재(鳥嶺)에서 상인(商人)을 죽이고 수백냥의 돈을 약탈한 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 일당은 영의정을 지낸 박순의 庶子 朴應犀와 牧使를 지낸 서익의 庶子 徐羊甲 등 7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소양강을 무대로 詩酒를 즐기며 竹林七賢 또는 江邊七友라 일컫던 자들로서 이 사건을 7명의 서자 출신들이 역모를 꾸몄다 하여 七庶之獄(一名 癸丑獄事)이라 부르고 있는데 대북파의 李爾瞻등은 이 逆謀事件이 永昌大君을 옹립하기 위해서 모이된 것으로 꾸며 문초과정에서 범인들로 하여금 거짓 자백토록 꾸며 犯人 박응서가 군자금을 비축하여 武士를 모아 사직(혁명)을 도모하려 하였으며 정사된 뒤에는 永昌大君을 옹립하고 仁穆大妃의 수렴청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하고 거짓 告變하게 하여서 遺教七大臣 등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연좌되어 禍를 당하였다.

이때 永昌大君의 외부조이시며 仁穆大妃의 生父인 延興府院君 金悌男도 억울하게 大君을 추대하려 한다고 무고하여 永昌大君을 庶人으로 강등되어 江華로 위리안치 되었고 金悌男도 억울하게 賜死 되었으며 仁穆大妃도 西宮에 유폐되었다. 그 뒤에 朝野에서는 大君을 구원하기 위하여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大北派북파의 집요한 반대로 이듬해 1614년(광해 6년) 江華府使 鄭沆에 의하여 九歲의 어린 나이로 죽고 말았다. 이는 당시 득세하였던 鄭仁弘, 李爾瞻등 大北派에 아첨하고자 하는 兇計이었다.

이후 1623년 仁祖反正으로 이 사건은 大北派가 정권을 掌握하기 위하여 단순 강도범 박응서를 이용하여 逆謀를 造作한 誣獄行爲로 밝혀짐으로써 仁穆大妃도 復號되어 大王大妃되어 仁慶宮鍼明殿에서 기거했으며 仁穆大妃는 글씨에도 능해 금강산 유점사에 친히 쓴 普門經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으며 安城市 竹山面 七長里 七長寺에서 親筆 족자가 보존되어 있다.(老牛用力已多年, 嶺破皮芽只愛眼, 犁耙已休春雨足, 主人何苦又加鞭)

永昌大君은 仁祖反正 후 南漢山城下에 安葬되었다가 城南市 개발계획에 의하여 1971년 이곳 安城市 一竹面 古銀里 산록으로 이장되었다.

王子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永昌大君의 생모인 인목대비가 斷腸의 괴로운 심정으로 칠장사에 나와 永昌大君의 고향명복을 빌었으니 移葬地인 安城市 一竹面 古銀里는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이장(移葬) 당시에 이장을 맡아 하였던 부락 주민의 말에 의하면 성남당지의 墓를 파헤쳤을때 시신과 수의가 상한곳이 없었다 하며 石木棺에 위에 永昌大君의 비통한 죽음과 어머니로서의 애통한 인정을 새긴 돌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운반을 못했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일죽면 고은리 주민이 보호하고 있었으나 전주 이씨 안성지역 분원에서는 비명에 돌아가신 왕자의 봉향(奉香)을 慶昌君 8代孫 道振으로 하여금 奉祀孫으로 하고 있으나 너무나 초라함을 뒤늦게 깨닫고 1982년 3월 5일 제례를 거행한 후 매년 奉祀孫과 더불어 제례를 거행하고 있다.





향토문화유적

竹州山城*

竹山面 梅山里에 位置한 山城은 三國時代 高句麗에서 築城된 것으로 추측되며 統一新羅末 51代 眞聖女王때 國政이 衰弱하고 各地에서 山賊이 蜂起할 때 箕萱이 雄據하였다는 記錄이 있으니 즉 李基白著 韓國史新論에 尙州의 元宗과 哀奴, 北原(原州)의 梁吉, 竹州(竹山)의 箕萱, 完山(全州)의 甄萱, 梁吉部下의 弓裔 등이 農民반란군을 토대로 하여 亂을 일으켰다. 또한 箕萱은 眞聖女王 5년(891) 竹州에서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慕下弓裔 등 뛰어난 인물을 두었으나 성질이 횡포하여 크게 기세를 떨치지 못하였다 한다.(三國史記)

그 후 高麗 23대 高宗때 蒙古의 侵入을 받아 당시 竹州防護別監 宋文胄 將軍이 잘 막아 내어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으니 高宗 23년(丙申年 1236年) 9월에 蒙古軍이 재차 침입하여(처음 侵入은 高宗 18年 辛卯 1231년임) 9월에 溫水郡을 포위하므로 郡使 玄呂 등이 크게 싸워 물리치니 이에 竹州에 이르러 降伏하

* 이 글은 1993년 간행된 안성문화 11호에 실린 글을 발췌·편집한 것임.

기를 권하므로 城中軍士가 出擊하여 쫓아보내니 다시와서 砲를 가지고 城의 四面을 공격하여 城門이 포에 맞아 무너졌는데 城中에서도 砲로써 逆攻擊하니 蒙古軍이 敢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또 人油 소나무, 화, 쭉, 풀들을 갖추어 불을 놓아 공격하므로 城中 軍사가 一時에 門을 열고 出戰하니 蒙古軍士의 죽은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蒙古軍이 온갖 方法으로 공격하였으나 무릇 十五日간 끝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攻戰하는 기구를 불살라 버리고 갔다. 防護別監 宋文胄는 일찍이 龜州에서 兵馬仕 朴犀將軍을 따라 몽고군과 싸운바 있어 蒙古의 成攻擊方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저들의 계획을 먼저 알아차리고 문득 여러 사람에게 고하기를 “오늘은 적이 반드시 아무 기계를 써서 공격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아무 방법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하고 곧 命을 내려 방비하고 기다렸는데 적이 오는데 보니 과연 그 말과 같았으므로 城中에서 모두 그를 神明이라 하였다. 그 功으로 나라에서 左右衛將軍을 제수하였다. 지금도 山城안에는 宋將軍의 戰功頌閣이 있고 築城 당시는 성 둘레가 3874尺이나 되었다. (原文은 高麗史節要卷之六 高宗 23年 丙甲年條에 “蒙兵, 至竹州 論降城中士卒, 出擊走之, 復來, 以砲攻城, 四面城門, 中砲催落, 城中, 赤以砲, 逆擊之, 蒙兵, 不敢近居無何, 又備人油松炬藁草, 縱火攻之, 城中軍卒, 一時, 開門出戰, 蒙兵死者, 不可敗數, 蒙兵, 多放攻之, 凡十五日, 終不能技, 乃侯攻戰之具而去, 防護別監宋文胄, 富在龜州, 熟知蒙兵攻城之術, 彼之計劃, 無不先料, 告於衆曰, 今日 敵必設某機械, 我當以某事, 應之即命備特,” 賊至, 果如其言, 城中皆謂之神明, 以功拜左右衛將軍…” 以外 高麗史 世家篇에는 “高宗 23年(1236) 9月 壬戌에 蒙古兵이 竹州에 이르러 降伏을 說論 했으나 防護別監 宋文胄는 힘써싸워 이를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東國兵鑑에도 같은 內容이 記錄되어 있다.

또한 이곳 竹州山城은 영남지방에서 忠州를 거쳐 漢陽 즉, 서울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이며 전쟁시는 軍의 補給路로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朝鮮 14代 선조 25年(1592 壬戌) 倭軍의 침입을 받은 壬戌倭亂 때 邊以中 將軍(당시 전라도 召募使가 되어 兵馬와 무기를 갖추어 水原에 주둔하여 경기도 지방의 倭軍과 싸웠다) 및 黃進將軍(당시 忠淸道助防將)이 倭軍과 싸워 크게 이긴 곳이기도 하다.





壬辰倭亂時의 倭軍 擊退記를 살펴보라

가) 酷寒속의 황소 徵發

龍仁 金嶺驛(1592년 11월 말경) 敗戰이래 倭軍은 漢陽과 釜山간의 유일한 보급로인 竹山府를 점령하여 지키고 있었다. 豐臣秀吉의 심복 부하였던 福島正則은 요새지 竹山城에 4천5백의 兵力을 주둔시키고 자신이 직접 총지휘하고 있었다.

邊以中은 竹山府가 軍事戰略上 중요한 요새지라는 점을 감안 이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짜냈으니 「牛車之計」이다. 그해 12월 중순 陽城官軍의 지휘본부에서 邊장군을 중심으로 대여섯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심각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 고을을 비롯하여 황소가 몇 마리가 있겠는가?”고 邊將軍이 좌중을 둘러보며 묻는다. “이 인근 마을은 지난 5월 倭軍들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축이나 식량을 약탈해가서 별로 없을 줄 압니다”로 참모가 말한다. “그러면 내일부터 군사 500명을 天安 牙山방면으로 보내어 黃牛를 징발하도록 지시하시도록 하시오”하여 약 200마리의 황소가 징발되었다. 그리고 양철과 관장으로 덮개를 한 牛車를 만들고 牛車之戰法을 설명하였다.

다음해 1월 30일 作戰計劃에 의하여 竹州山城을 공격하게 되었다. 공격지점은 東門을 택하고 2백 여대의 牛車에 특공대를 싣고 城으로 쳐들어가 적을 기습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邊將軍이 썰가리와 북을 치며 공격해갔을 때, 山城頂上 관측소에서 불의의 기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倭將은 牛車에 集中的으로 조총과 활을 쏘며 황소에게 집중공격 하였다. 놀란 황소들이 빨리 언덕길을 거슬러 치 당으니 선봉적들은 牛車에 치어죽고 소뿔에 찢리는 등 전세가 불리하자 적은 火攻戰法으로 대항하였다. 미리 준비한 炬火를 牛車에 던지고 火箭으로 소를 쏘고 나무다발을 성위에서 내려 던지니 牛車에 불이 붙고 牛車안에 타고 있던 우리 군사들이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해 불에 타 죽는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측에 不利하게 되어갔다. 이 소식을 듣고 安城郡에 주둔하고 있던 京畿助防將洪季男이 급히 500명으로 지원했으나 탈환치 못하였다. 그 뒤 왜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가 黃進將軍에게 패하여 달아났다.

나) 黃進將軍의 失地회복

同福 현감으로 梨峙싸움에서 적을 무찌른 후 益山郡守가 되었다가 水原근교 싸움에서 이겨 忠淸道助防將으로 승진한 黃進 장군이 1천여 병사를 이끌고 안성군에 진을치고 竹山府의 福島부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邊以中 장군의 牛車之戰法이 실패한 후 2월 30일 竹州城을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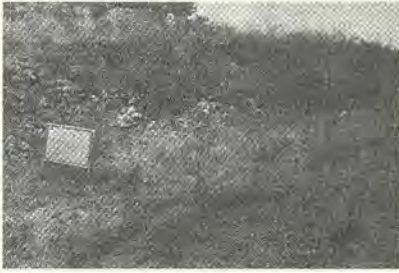
黃進 장군은 게릴라전에 명수였으며 적지 근처에 伏兵을 배치 연락병을 습격하고 보급 수송부대를 급습하는 등 적의 심정을 괴롭게 했다. 黃進將軍은 西門 근처에 伏兵을 두고 기습공격을 하며 일부 선봉대는 城위 망루를 점령, 적장의 신변까지 화살이 집중되자 倭兵의 선봉장이 퇴각을 命令, 城안으로 철수했다. 이때 黃將軍은 전 유격병을 동원 서문을 장악한뒤 南門과 北門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점령 성위에서 燄불을 올리고 소리를 쳐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에 적은 東門을 빠져나가 陰竹으로 달아났으며 竹山山城은 완전히 탈환하였다. 倭軍은 黃將軍의 용맹스러운 공격에 놀라서 忠州를 거쳐 鳥嶺을 넘고 尙州까지 물러갔고 黃將軍은 尙州까지 추격전을 펼쳐 大破하기도 하였다 (1974. 9. 1. 지령 634호 일요신문 13면에 기재). 이후 倭亂이 끝난 宣祖 36年(1603 癸卯) 城을 改築케하여 同 宣祖 38年(1605 乙巳)에 城 改築이 끝나서 外城 3880尺 內城 1890尺을 完成했다는 기록이 있다.

現在 이 山城은 本城이 1690m 外城 1500m 內城 270m의 3겹 石城이며 4대 문址와 將臺址가 남아 있으며 壬辰倭亂때 明나라 副總兵 吳惟忠 將軍의 碑石이 城의 東門下 비석거리에 세워져 있는데 세운 연대는 비석에 의하면 21代 英祖 17年(1741 乾隆 六年辛酉)이니 명의 吳惟忠 장군의 丁酉재란때 이곳 竹州를 지나 忠州까지 진격 倭軍을 물리친 공을 紀念하기 위한 것인듯 하다.

碑文 “天朝副總兵 吳公惟忠 德淸仁勇碑 乾隆 六年 辛酉” 라 쓰여있다.

望夷山城

本城의 所在地는 安城市 一竹面 金山里 山四八 번지에 所在하고 있는 現在 山名은 馬耳山으로 불리어 지고 있으며, 忠北 陰城郡 三城面과 道郡面 接境地를 이루고 있다.



이제까지 記錄으로는 築城당시부터 土城으로 年代는 新羅27代 善德女王(632-646)때 百濟軍을 막기 위하여 連絡用 烽燧臺로 쌓았다고 傳해져 왔으나 1977年度부터 累次에 걸쳐 檀國大博物館 學術調查團에 依해 밝혀지고 있는 바로는 山頂上이 海拔 472m이며 築城地에 대한 調查結果

城石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高臺가 構築되어 있는 것이 곧 烽燧臺址이며 바로 望夷城 烽燧臺 옿터인 것이다. 烽燧臺는 一見하여 長方形인데 東西로 長邊을 이루고 있으며 東西의 길이가 22m, 남북이 12m 規模의 長方形燧邊臺로 대개의 경우 圓形 楕圓形에 北해 特異하다. 城內外壁을 石材로 構築하여 內壁은 1.5m 外壁은 2~3m의 높이를 이루고 城址殘存1,500m가 있고, 瓦片과 土器 青磁 白磁片들이 散在한것을 보면 이곳이 重要的 位置를 이루었던 것이다. 築城의 方式은 外壁을 높게 하여 敵軍을 방어하도록 하였으며 內壁은 높지 않게 內附에 이르면서 평평하게 다져놓아 人馬의 通行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形式의 山城은 三國時代 山城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이 山城도 三國時代에 築城된것임을 알 수 있고 이곳에서 수집된 瓦片의 文字放紋과 「官」字의 卍片은 平壤市內 각처에서 出土된 卍片들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高句麗瓦片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山城의 尙方과 形態는 반드시 北쪽을 我方으로하여 南쪽의 敵軍을 상대로 쌓은 山城인데가 高句麗적인 瓦片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곧 北方으로부터 南下한 高句麗가 南쪽의 敵軍을 대적하기 위하여 構築한 山城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어 高句麗城으로 推定되며 望夷城에 관한 몇 가지의 記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四忠州牧)에 山川：望夷山 在州西九十一里 (烽燧) 望夷山 烽燧東應 陰城縣 迦葉山 南應 鎭川縣所乙山 西應 京畿 竹山縣 巾之山. 地圖書(忠淸道 中原)에 山川：望夷山 在縣西百十里 自京畿竹山來 烽燧：望夷城 烽燧在縣 西一百十里 東應陰城 迦葉山 南應 鎭川縣 所乙山 西應 京畿竹山縣：巾之山 別將一人 監官五人 軍人一白名. 大東地志(忠州)에 烽燧：望夷山 西一百十里. 世宗實錄地理志(忠淸道 淸州牧)에 “烽火望夷山 東准 陰城 迦葉山 西准 竹山 劔斷山…”

以上の 기록에서 볼 때 이곳은 그 후 조선시대에 竹山府의 烽燧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곳의 烽燧를 연결한 것이 아니고 영남에서 올라오는 문경 조령 충주방면의 烽燧는 물론이요 中部內陸의 진천 烽燧까지 받아서 王京으로 올리는 대동맥과도 같은 烽燧臺 遺蹟址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無限城



이 無限城은 山頂 고원지에 둥글게 쌓은 城으로서 이러한 山城의 형태는 古代에 많이 볼 수 있는 山城이다.

陽城郡邑誌에 따르면 無限城 南端 아래 古赤城이 있어 俗稱 옛 고을터가 완연하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형적도 없다. 이 城의 築城年代는 정확히 모르나 三國時代로 추정되며, 성의 길이는 460m로 추측하나 현재의 길이는 120m, 높이 2m, 넓이 1m 가 남아있다. 一說에 의하면 운수암을 보호하기 위하여 舞陽이라는 사람이 쌓았다고 하나 城 不段部의 石築의 규모로 보아 官의 힘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城은 양성면 방실리에 位置하고 있다. (考證 : 陽城郡邑誌, 1899年版)

瑞雲山城

임진란의 聖城 서운산성은 安城 중심부에서 南東으로 20餘里를 가면 東西로 길게 뻗은 큰 산이 바로 경기도의 끝 지점이며 충청도와의 경계점을 이루고 있는 서운산성이다.

이 城은 해발 549m의 서운산에 축성한 山城으로 城 주위는 약 600m 정도로 추정되나 현재 길이 300m, 높이 2m, 넓이 0.9~2m 정도 잔존하여 상단은 수목이 무성하고 성문은 남아있지 않으며 다만 남문과 서문 및 북문터로 추정되는 입구만 낮은 형태로 남아있다. 산성내에는 높이 2m, 폭 70cm 가량의 석벽이 있고 남문터 밑으로는 근래에 세운 사찰인 약천암 토굴암이 있고 산록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청룡사가 있다. 서운산성 정상에 오르면 멀리 평택



을 지나 아산만의 西海가 보이며 眺望이 一望無際라 가히 경관을 이루어 군사 요충으로도 적지이다.

임진왜란시 洪季男이 의병장이 되어 서운산 상봉에 성을 구축하여 左山城이라 하고 李德男은 덕봉리 앞산에 성을 구축하여 右山城이라 하여 안성 양성의 의병을 소집하여 철통같이 방어함으로써 적군이 성을 넘지 못하였다고 한다.

金光山城

安城市 金光面 金光리에 所在한 金光山城은 金光山(一名 白雲山) 정상에 총연장 2km, 높이 1~3m 폭 4m로 축조된 토석잡축의 원주형의 토성이다.

白雲山麓金光里(속칭떡뱅이) 142번지에 거주하는 金在英(69才)옹의 증언에 의하면 金光山城의 정상에 오르면 금광·마둔저수지가 눈아래 들어오고 동북방 3km 지점에 세종대왕의 부인인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의 묘소가 있고, 동남향 10km 지점에 서운산성, 서북방 5km 지점에 비봉산성이 있다.

금광산성은 이와 같이 서운·비봉의 두성과 犄角之勢를 이루면서 三南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漢城 방어의 전초기지로서 위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실증하는 역사적 사건은 영조 때의 이인좌 반란군을 도순무사로 관군을 지휘한 오명항이 이곳 금광산성에서 적을 크게 무찌른 것으로 전한다.

금광산성은 조선 인조14년(1636年) 병자호란 때 청군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는 설과 영조4년(1728年) 이인좌의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도순무사 오명항이 관군과 주민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는 양 說이 전해오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발굴 조사를 해 보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성은 山頂部 東南 방향 1,000m 부분은 능선에 따라 경사가 심한 곳은 석축으로 10m 가량 쌓았고 나머지는 흙으로 쌓았다.

飛鳳山城

봉황새가 날으는 형상을 했다고 해서 飛鳳山으로 名稱 안성의 鎭山, 비봉산은



해발 230m의 표고에 울창한 수림으로 山麓에는 克敵樓址, 南坡書院址 日基, 鳳德寺를 비롯하여 안성읍민의 생명수인 靈泉藥水터를 포용하고 있어 예로부터 詩人黑客이 즐겨 찾는 名山이다.

山頂에 오르면 東南으로 금북정맥이 京畿·忠淸의 경계를 가르며 병풍처럼 둘러 있고 동북으로 七賢山, 觀海峰, 國師峰, 寶蓋山의 연봉과 서북으로 瑪峰山, 天德山, 德美山이 비봉산을 감싸듯 屹立하였으며 서남으로는 西海에 연한 素沙平野가 眺望되어 天然의 城塞가 되었다. 여기서 安城川이 서쪽으로 흘러 안성들과 소사들의 젖줄이 되고 있으며 東海, 平澤, 서울을 잇는 38번국도가 비봉산의 허리를 돌아 동서로 관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천, 오산선의 地方道 역시 남북으로 연결되어 交通의 要地를 이루고 있으며 동북으로는 죽산면의 죽주산성과 서남방면의 서운산성, 금광산성이 비봉산의 외곽城堡를 형성하고 있어 飛鳳山城의 위치는 金城湯池의 형상을 갖춘 要塞處가 되고 있다.

비봉산의 山頂은 반월형의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九部陸線에 마치 허리띠를 두르듯 총길이 1.5km, 높이 1.3m, 폭 3m의 土石雜築의 토성이 축조되었고 산정에는 사직단터로 추측되는 주추와 瓦片이 흩어져 있고 장수바위에는 崇禎五癸酉年(1873) 가을에 음각된 謁欲存理 尊華攘夷 鳳飛千이란 金石文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비봉산의 토성을 飛鳳古城이라 기록되었고 안성기략에도 비봉산의 古城址 밑에 社稷壇, 城隍侍祠이 있었는데 舊韓末년에 築造되었다고 기술되었을 뿐 토성의 축조年代나 비봉산 토성과 관련된 史記가 전혀 없어 안성을 배경으로 치루어 졌던 紅巾賊의 난과 李麟佐의 반란토평 등, 역사의 古戰場으로서의 면모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비봉산의 토성과는 관련이 없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어 略記해둔다. 비봉산은 봉황의 형상이나 이곳에서 지호지척에 있는 도기동 탑산은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있어 풍수지리說로 볼 때 거북이가 봉황의 곁을 떠나 멀리 가면 옛적 안성읍민에게 재앙이 있다는 說에 따라 거북이가 멀리가지 못하도록 거북이



의 모형을 한 도기동 탑산의 거북이 모양의 땅에 돌탑을 세워 거북이의 움직임을 눌러 막음으로서 안성읍의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지금도 도기동 탑산에는 거북이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는 전설의 돌탑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안성시 도기동 마을은 渡龜頭 變稱된 것으로 渡龜 즉, 거북이가 안성천을 건넜다고 하여 도구머리라 불렸으며 비봉산정에는 옛날 장수가 앞서 흔적이 났다는 將軍巖이라 새겨진 장수바위가 있다.



기슬리 쌍미륵



안성의 미륵과 석불신앙에 대한 고찰*

1. 안성의 고대사와 불교의 전래

안성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삼국이전부터 부족국가 또는 씨족국가, 그 후 78국(마한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영토분쟁이 그칠 때가 없었던 곳이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함께 백제, 신라간의 치열한 영토싸움이 계속 되었다. 그로 인하여 안성은 삼한 시대부터 토성이 축성되기 시작하였고, 연원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토성들이 있고, 확인된 것만 해도, 칠현산성, 죽주산성, 금광산

* 이 글은 지난 2004년에 발간된 안성문화 17호에서 발췌·편집한 것임.



성, 산중리산성, 비봉산성, 서운산성, 공도산성, 하용두산성, 무한성, 망이산성 등이 있다.

안성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삼국이 접하여 각축이 치열했고, 군사적 요지이자 교통상 요지였던 만큼 비교적 일찍부터 안성에도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지만 칠장사가 신라 선덕여왕 연간 혹은 진덕여왕 2년(648년)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고, 석남사는 신라 문무왕 20년(680년)담화법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안성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최소한 7세기 이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강원도 영월에 있는 징효대사(836-900) 탐비의 기록에 징효대사가 백성군(안성의 신라시대 명칭)에 있는 '장곡사'에 있었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발굴성과에 의하면 죽산면의 봉업사터에는 신라하대(통일신라)의 '화차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륵당의 탐지석 명문을 통해서도 영태2년(766년)에 이미 탐을 건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안성지역에는 적어도 8세기에 불교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칠장사나 석남사의 창건연대가 맞다면 7세기에 이미 상당한 규모로 불교가 발전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2. 안성미륵 신앙의 연원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은 삼국시대에 전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7세기에 백제영역인 전북 익산에 건립한 사찰 미륵사는 동양에서 당시에는 제일 큰 사찰로 미륵신앙을 대표하는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미륵신앙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 미륵불상과 미륵보살상, 미륵마애불상 등을 남기게 된다.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 할 것이다.

안성에는 언제쯤 미륵신앙이 전래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불교 전래시기(7세기~8세기)에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이나 구전, 남아있는 미륵관련 유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안성의 미륵신앙은 아무래도 궁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하였고 그 아들들의 이름도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지었으며, 안성에는 <궁예미륵>으로 호칭되는 미륵불상이 남아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록 말고 안성의 칠장사에는 어린 시절의 궁예와 관련된 전설이 남아 있고, 그러한 인연으로 궁예가 장성하여 죽주(지금의 죽주산성으로 추정됨)에 오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신라 말 고려 초 죽산의 호족과 불교와의 연관성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매산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지석에는 당시 죽산지역의 호족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고려시대에 안성은 미륵신앙뿐만 아니라 불교도 더불어 융성하여 전성기를 연다는 점이다. <봉업사>터는 현재까지의 발굴결과로도 통일신라 시대의 전통을 이은 상당한 규모의 평지사찰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업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진전이 모셔져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한 <칠장사>가 크게 중창 혹은 창건 되는 시기 역시 고려초라 할 수 있다.

혜조국사에 의해 고려 현종 6(1014년)에 크게 중건(창건)되고 이후 칠장사는 크게 발전하여 한때(고려 우왕9년 1383년)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를 보관했을 정도로 융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룡사 역시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크게 중수 되는데 고려 원종 6년(1265년) 명본대사에 의해 대장암으로 창건된 후 공민왕 13년(1364년) 나옹화상에 의해 중수된다. 원곡에 있는 청원사는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지만 대웅전 삼존불에서 나온 사경을 통해 고려 충렬왕 1년(1275년)에 고려 국왕이 사경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운수암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 역시 원래는 서운산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죽산에는 전술한 봉업사를 중심으로 유허사찰로 장광사, 비봉사, 지통사, 장단사, 남산(미륵유허), 고려명종 소양산인 응석사(일죽면 방초리) 등이 있었으며 죽산리 미륵, 매산리 미륵, 선유암 마애4존불 등이 남아 있다. 현재 안성에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파악된 유물은 18개로 그 중 2개는 유허지다. 그 명칭을 나열하면, 죽산리 미륵, 매산리 미륵, 삼죽기솔리 쌍미륵, 3미륵(궁



예미륵), 아양미륵2기, 동촌리 미륵(2기), 대농리 미륵, 용화사 미륵, 서운면 북산리 미륵, 서운산 미륵, 죽리 미륵, 남산 미륵 유허지, 덕뱅이 미륵 유허지 등이다.

이러한 안성미륵의 특징은 ① 그 형태가 서민적이며 ② 거대불의 형상이고 ③ 토속신앙과 연계되어 이야기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성의 미륵 불상에 대해 연구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봉업사터에서 미륵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천년주인(千年主人)’ 명 기와가 발견되고, 칠장사가 당시에는 미륵을 주존불로 하는 법상종 계열이었다는 점이 고려되고 인근 이천, 용인, 장호원, 천안 등의 미륵불상과 연관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성미륵불과 안성의 미륵신앙

안성의 미륵불과 미륵신앙의 연원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안성의 미륵불과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 안성미륵신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안성의 미륵불상들은 조성시기가 대부분 고려시대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용화사 미륵처럼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 불상도 있지만 기슬리 쌍미륵이나 태평미륵, 대농리 미륵, 아양미륵 등 안성의 대표적인 미륵 불상들이 대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안성의 미륵이 나말려초의 미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궁예와 연관되어 독특한 안성의 미륵불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조선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토속신앙과 어우러지면서 많은 전설이 생기게 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그 조형 형태에 있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태평미륵의 경우 그 조성경위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최태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존재해온 미륵불이 조선시대에 다시 한번 조명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안성의 미륵불상들은 특히 민간에서 신성시되는데 대농리 미륵과 아양미륵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먼저 대농리 미륵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마을 사람들이 대농리 미륵의 위치를 옮기려고 미륵불상을 옮기려고 하니 오히려 미륵 불상이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아양미륵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안성 땅에 힘이 세고 큰 장수가 있었는데 실수로 아양미륵을 다치게 하여 전장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모든 미륵에 거의 공통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미륵부처님의 코를 갈아 마시면 득남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안성 미륵의 조성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안성의 미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형태가 소박하고 서민적이다. 거대불의 특징은 고려초기 불상의 일반적 특징이고 발이 땅에 묻혀있는 것이 미륵불상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가 소박하고 서민적인 것이 안성 미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궁예미륵’의 경우 비록 실패하였지만 한 나라를 건국한 인물인 “궁예”를 상징하는 미륵으로서는 소박하다 못해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궁예미륵’을 비롯한 안성 미륵불상들의 조성형태는 안성미륵이 갖는 서민적 성격과 민속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안성미륵신앙의 특징은 그것이 호국정신과 결합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태평미륵의 경우이다. 태평미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조성수법으로 보아 대략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에서는 이 태평미륵을 송문주 장군과 연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문주 장군은 1236년(고려 고종 23년) 몽고군이 침입하였을 때 죽주산성의 방호별감으로 있으면서 몽고군을 물리쳐 몽고군의 남진을 저지한 장군이다. 이러한 송문주 장군의 업적은 지역주민들에게 기억되고 태평미륵이 그러한 송문주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회자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표1〉 안성의 미륵불상

명 칭	전래 명칭	문 화 재	소 재 지
기솔리 미륵불상	기솔리쌍미륵(2기)	도 유형문화재 36호	삼죽면 기솔리 산 33-1
대농리 석불입상	대농리 미륵	도 문화재자료 46호	대덕면 대농리 산 91
죽리 석조여래입상	죽리 미륵	도 문화재자료 108호	대덕면 죽리 32-4
아양동 보살입상	아양 미륵(女)	향토유적 10호	아양동 364
아양동 석불입상	아양 미륵(男)	향토유적 15호	아양동 364
매산리 석불입상	태평미륵	도 유형문화재 37호	죽산면 매산리 366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리 미륵	도 유형문화재 97호	죽산면 죽산리 산 6-2
없음	서운산 미륵	미지정	서운산 청룡리 좌성사 뒤
기솔리 석조3존불상	궁예미륵(3기)	향토유적 42호	삼죽면 기솔리 33-1
북산리 석조여래입상	북산리 미륵	향토유적 43호	서운면 북산리 산 2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용화사 미륵	향토유적 45호	미양면 법전리 181
없음	동촌리 미륵(2기)	미지정	서운면 동촌리
없음	쌍미륵 앞 미륵	미지정	삼죽면 기솔리 산 33-1
유허지	남산미륵	미지정	죽산면 장원리 남산
유허지	떡뱅이 미륵	미지정	금광면 금광리

〈표2〉 안성의 불상

명 칭	문 화 재	소 재 지	비 고
기죽산 봉업사지 석불입상	보물 제983호	죽산면 칠장리 764	석불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도 유형문화재 109호	금광면 상중리 산 27	마애불
낙원동 공원석불여좌상	향토유적 제8호	낙원동 609-5	석불
굴암사 마애여래좌상	향토유적 제11호	대덕면 진현리 299	마애불
굴암사 아애선각불 입상	향토유적 제12호	대덕면 진현리 299	마애불
선유동마애사존불상	향토유적 제13호	일죽면 신흥리 산 78-1	마애불
운수암 비로자나불좌상	향토유적 제16호	양성면 방신리 85번지	석불
구장리 석조여래입상	향토유적 제39호	양성면 구장리 230-1	석불
두현리 석조삼존불상	향토유적 제40호	죽산면 두현리 53-10	석불
관음불	미지정	죽산면 죽산리	석부(반파)



안성공원 - 석불여래좌상



기슬리(基率里) 미륵불상(彌勒佛像)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호/소재지:안성시 삼죽면 기슬리 산 33-1번지



기슬리에 있는 두 미륵석불입상(彌勒石佛立像)은 각각 하나의 큰돌에다 상호(相好:얼굴)·손·어깨를 형식적으로 조각하였고, 얇은 자연석(自然石)을 둥글게 가공하여 그 중앙에 구멍을 뚫어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의 육계에 끼워 갖으로 표현하였으며, 사각

형의 비대한 얼굴에 둥근 눈썹과 가늘게 조각된 눈, 크고 짧은 코, 그리고 아래 입술은 두텁고 귀는 목 부분까지 길게 늘어져 있으며 목에는 변회·업·고통을 상징하는 삼도(三道)가 조각(彫刻)되었다. 법의(法衣)는 두 어깨를 가린 통견(通肩)으로 앞가슴에서 둥글게 파였으며 발끝까지 원통형 문양으로 조각하였고, 손 모양(수인:手印)은 중생의 모든 불안을 없애 주고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하고 있는데, 왼손은 왼쪽 가슴까지 올려져 있고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놓아 사실적인 미적 감각을 찾을 수 없어 약간 어색하며 몸의 굴곡도 마찬가지로 두 미륵석불입상 중에 동쪽으로 향한 북쪽에 불상은 체구가 굵고 약간 큰 미륵을 남미륵(男彌勒)이라 부르는데 높이는 5.4m, 둘레가 4m이며 남쪽에 있는 날씬한 미륵을 여미륵(女彌勒)이라 부르는 것은 높이가 5m, 둘레가 3m로 된 화강암(花崗巖) 미륵석불(彌勒石佛)이다. 이 미륵석불은 고려시대에 건립(建立)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산리(梅山里) 석불입상(石佛立像)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소재지 :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66번지

매산리 미륵석불입상은 미륵당이라 부르는 높은 누각 안에 모셔진 높이

3.9m의 석조보살상(石造菩薩像)으로 고려 초에 건립한 것이라 전한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다음으로 부처가 될 것으로 정해져 미륵과 부처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모습 또한 보살상과 불상의 형태로 원만한 상호(相好:얼굴)에 긴 눈과 낮은 코와 작은 입과 불에 납작하게 붙은 귀는 목 부분까지 늘어져 있고, 목에는 번뇌·업·고통을 상징하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으며, 얼굴에 비해서 체구는 다소 작은 편이고 좁은 어깨는 약간 처진 편이며, 두 손은 신체에 비해 매우 큼직한 편이고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이게 하였으며, 손가락을 구부려 멧을 담고 있다.

법의(法衣)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발까지 흘러 내려오면서 U자형의 4개 옷 주름(의문:衣紋)이 조각되어 있으며, 손 모양(수인:手印)은 주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있는데 오른 손은 가슴에서 밖으로 보이고(외장:外裝) 있으며, 왼손은 배꼽 앞(제전:臍前)에서 손을 안으로 싸고 있다. (내장:內裝)높이 3.9m의 커다란 규모이나 미술적 가치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죽산리 석불입상(竹山里 石佛立像)

● 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97호 / 소재지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 6-2번지

죽산리 석불 입상은 연꽃 문양의 대좌 위에 놓여 있는 높이 3.36m의 석조여래입상으로 봉업사터 당간지주와 3층 석탑과 불상이 대각선으로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고, 석불은 가장 위쪽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있으며, 죽주산성(竹州山城)의 야산에 쓰러져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에 세워 두부(頭部)와 신부(身部)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잘 맞추어 세운 것으로, 민머리(소발:素髮) 위에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의 육계에 끼워 갖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체에 비해 사각형의 비대한 얼굴에 둥근 눈썹과 가늘게 조각된 눈과 크고 짧은 코, 그리고 아랫입술은 두텁고 굳게 다물어 온화한 인상을 주며 두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아있으며 법의(法衣)는 두 어깨를 가린 통견으로 두 어깨로부터 이르기까지 가볍게 내렸고(외장:外裝)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려 허벅지에 대고 있으며(내장:內裝), 아래쪽에는 꽃부리가 아래로 향한 복련(覆蓮)이 조각된 원형 대좌가 있고 몸 전체에 비해 머리와 얼굴, 두손을 크게 표현해 다소 경직되어 보인다.



고려 초기에 유행한 지방 불교 양식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대농리 석불입상(石佛立像)

미륵불은 석가모니 다음으로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살과 부처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모습 또한 보살상과 불상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는데,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石佛立像)은 불상으로 만들어졌다.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石佛立像)은 고려시대(高麗時代) 조성된 것으로 동리에서는 미륵부처라고 칭한다. 재질은 화강암(花崗巖)으로 높이 220cm이며, 소발(素髮)의 머리에는 중절모자 형식의 보개가 얹혀져 있고, 보개(寶蓋) 위에는 유두(乳頭) 형태의 돌기(규모:지름 10cm, 높이 6cm)가 4개가 있다.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8호/소재지 : 안성시 대덕면 죽리 32-4번지

대덕면 죽리 외평 마을 입구 당산나무와 함께 있는 석조여래입상은 화강암 석불로 마을 주민의 말에 의하면 고려 중기 큰 장마나 전염병 등 마을에 우환을 방멸키 위해 조성된 것으로 화강암 전면에 저부조로 여래형(如來型)의 입상을 깎 차게 조각하였고, 석불 복부(腹部)에서 양손을 선정인(禪定印)처럼 가지런히 맞잡아 내부에 Y자로 홈이 나있는 연봉우리 같은 지물을 받치고 있다.

방형의 얼굴에 높은 육계와 정상 계주(繫柱)를 지니고, 코와 입에 비하여 큰 눈을 가지고 있다.

귀는 얼굴 세부 처리와 달리 외곽선을 안쪽으로 파내어 면(面)으로 처리되었으며, 짧은 목에 도식적인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양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은 반원형의 규칙적인 주름이 오른쪽 어깨에 접혀있으며, 상반신에 수직으로 내려오던 옷깃은 왼쪽 가슴에서 약간 외반(外反)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안에 입은 군의(裙衣)를 가하지 않았으며, 석불은 고려시대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 표현에서 중국 원명시대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조선전기(朝鮮前期)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양동(峨洋洞) 보살입상(菩薩立像)

● 향토요적 제10호/소재지 : 안성시 아양동 364번지

아양동 석불 여래입상과 나란히 서 있는 거대한 보살 입상은 아양동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미륵부처로 존숭(尊崇)해 오고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품으로 화강암 석재로 원래의 위치는 현 위치에서 3m 앞에 있었다고 하며 일제 때 수해로 목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꿈에 현몽(現夢)하여 마을 주민들이 두레를 만들어 쌀을 거둬 복구했다고 하며, 전설(傳說)에 충각이 기도를 드려 소원을 성취하였다고 하며, 머슴 살던 사람이 장사하여 모은 동전을 계단 앞에 묻고 기원하였더니 소원대로 혼인해서 잘 살았다고 한다.

보살(菩薩)의 머리 부위에는 화곤과 화관이 새겨져 있고, 하단 복발이 있으며 얼굴 정제되고 양 귀는 가늘고 길며, 보강한 목 부위에는 삼도(三道)의 흔적이 엿보이고 밑으로 내린 왼 손과 허리 부분의 하부 이하는 매몰되어 있다.

가슴 앞에 영락(瓔珞)의 문양이 보이고, 어깨와 팔 부분에도 화문(花紋)이 보이며 조법에 고졸(古拙)한 풍이 있어 토속화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전신(全身)의 모습을 보았다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본래의 높이는 약 380cm이라 하는데 현재의 총 높이는 337cm이고 어깨 폭은 118cm의 규모이다.

아양동(峨洋洞) 석불입상(石佛立像)

● 향토 유적 제 15호 / 소재지 : 안성시 아양동 364번지

고려시대(高麗時代) 조성된 아양동 보살 입상과 하나의 배우를 이루어 마을 사람들이 미륵 부처로 믿어오고 있는 화강암 1석으로 조각 수법이 고졸(古拙)한 풍이 담겨있는 토속화 경향을 지닌 석불로 전체적인 규모는 보살 입상보다 작은 느낌을 주고 얼굴 인상도 엄숙한 위엄이 깃들여 있다.

머리 부위에는 관모(冠帽)처럼 두정(頭頂)에 표식이 있고, 양미안(兩眉眼), 비량(鼻梁), 구순(口脣)이 정제(整齊)되었으며 귀는 짧고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없이 의문(儀文)으로 보이는 넓은 띠가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 양팔에 걸쳤는데 좌우에 늘어진 소매 자락에는 각각 3개의 의문(衣文)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무릎 부위 하단부 부터 매몰되었고 높이



는 250cm이며, 어깨폭은 79cm의 규모이다. 석불(石佛) 앞 시멘트로 조성(造成)한 제단석(祭壇石)에는 을사년 정월 십일 아양동 일동(乙巳年 正月 十日 峨洋洞 一同)이라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1965년 1월 보수 할 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슬리 국사암 석조삼존불상

- 안성시 향토유적 제 42호 / 소재지 : 안성시 삼죽면 기슬리 33-1번지



삼죽 기슬리에 있는 국사암(國師庵)은 법상종(法相宗)의 사찰로 쌍미륵사에서 국사봉쪽으로 2km 정도 오르면 암자에 당도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약 500년쯤 전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현재 암자에서는 당시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고 사역(寺域)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 미륵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현재의 국사암과 요사채는 7,8년 전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조선시대에 폐사(弊社) 되었던 쌍미륵사지에 활석(滑石)으로 조성된 오백나한(五百羅漢)이 있었다고 하나 주변 무속인이 모두 가져가 현지에 유존한 것은 없다.

세 미륵(彌勒)은 궁예미륵(弓裔彌勒)이라고도 하는데 사역의 제일 상단에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불상은 세 구(具) 모두 전면에만 조각하였고 미륵 불상이라기보다는 문인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 미륵은 삼존불의 구도를 지니고 있는데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산리 석조여래입상

- 안성시 향토유적 제43호 / 소재지 :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 산 2번지

용화사(龍華寺)는 지소현 스님이 불교 포교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던 중에 용이 하늘로 오르며 자신이 솟아난 땅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 후 그곳에 사찰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오며, 용화전(龍華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12평 짜리 팔각지붕으로 법당 내 오른쪽에 석조여래입상과 작은 바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불상과 바위에 관해서는 남녀 미륵불이 땅속에서 솟아날 때 지나가는 행인이 여미륵 위에 소변을 누는 바람에 미륵불이 못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임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처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석조여래입상은 백색 수성페인트로 전체를 칠하고, 이목구비(耳目口鼻)를 흑색으로 칠해 있으며 지상에 보이는 석불의 총 높이는 260cm이고, 머리 부분 높이는 70cm이며, 머리 부분 폭은 30cm이고, 어깨부분 폭은 90cm이며, 석불(石佛)의 형상은 머리에 높은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繼走)와 이마에 타원형의 중앙계주(中央繫柱)를 가지고 두툼한 귀는 어깨까지 늘어져 있으며, 기다란 얼굴에 지그시 감은 눈, 이마 중앙에 백호(白蒿), 삼각형의 오뚝한 코와 굳게 다문 입술은 긴편이며, 입술과 턱 사이에 수염을 그려 놓았고 목에도 삼도(三道)가 있으며, 통견의 법의는 양어깨와 팔에 감싸 있고 가슴은 사선으로 속옷이 보이며, 왼손은 옷자락을 살짝 잡고 오른손은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을 위로 한 자세를 하고 있어 조선후기에 유행한 미륵불의 영향을 받아 용화사 창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무릎 이하가 땅에 매몰되어 있어 실제의 전체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당이 3단의 축대 위에서 있기 때문에 대략 3m 이상의 크기로 추정된다.



여 백



글

傳統禮節



安城文化院 監事
成均館典學 李秀峰
하나원 禮節講師

◎ 傳統禮節 ◎

- | | | | |
|---------|---------|---------|---------|
| 1. 社會禮節 | 2. 生活禮節 | 3. 學校禮節 | 4. 家庭禮節 |
| 5. 個人禮節 | 6. 慶弔禮節 | 7. 祭儀禮 | 8. 天祭 |

▶ 우리는(東方禮義之國) 吾等은(우리들은)

- ㉠ 天地之間萬物之中에 唯人李 最存貴하다.(귀한존재다)
- ㉡ 천 = 不生祿之人也 하늘은 일 없는 사람을 내지않고
天高日月明, 地厚草木生
- ㉢ 지 = 不生名止草也 땅은 이름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
- ㉣ 人(我)=萬物の 영장(만물의 지배자)
① 사람다운 사람 ② 존재이유 ③ 존재가치

▶ 人間의 基本德目(根本)心理

四端 = 仁, 義, 禮, 智
七情 = 喜, 怒, 哀, 樂, 愛, 惡, 欲

- 仁 : 측은지심 - 어진마음, 사랑하는 자세
- 義 : 수오지심 - 자기반성, 의리로 대하는 자세
- 禮 : 사양지심 - 양보하는 마음, 예를 지키는 자세
- 智 : 시비지심 -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



仁, 義, 禮, 智, 信
 愛-人 理-氣 法-道 慧-心 用-禮

道 + 禮 = 사람마다 지켜야 할 규범

四大 = 地, 水, 火, 風
 五常 = 仁, 義, 禮, 智, 信

㉑ 禮의 基本原理

- 상대방을 편하게 - 나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 언해를 정중하게 - 뒷모습이 아름답게

- ㉒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非禮勿視)
 禮가 아니면 듣지 말고(非禮勿聽)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非禮勿言)

㉓ 四覽

- 1. 父母 2. 兄弟
- 3. 妻子, 外家 4. 親友, 이웃, 親舊

- ㉔ 사람은 =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창조적 교육이 필요하다.
 禮란 = 天理에 맞게 聖人이 제작하여(한것ियो)
 禮節이란 = 禮의 절차순서다.

▶ 나의 모습

- ㉑ 선배에게 신뢰를 ㉒ 후배에게 존경을 ㉓ 친구에게 믿음을
- ㉔ 연인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자랑스런)

君子三樂

- ㉑ 부모형제 두루 평온하고 ㉒ 하늘보아 한 점 부끄럼없고
- ㉓ 내가 가르친 후학 나를 따르고

孔자의 正名主義

- ㉑ 君君 : 임금은 임금답게 ㉒ 臣臣 : 신하는 신하답게
- ㉓ 父父 :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㉔ 子子 : 자식은 자식답게
- ㉕ 老老 : 노인은 노인답게

▶ 어린이 훈육법

칭찬을 먼저하고 꾸짖어라.

三綱五倫

三綱 =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라.

五倫

父子有親 :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천륜)

君臣有義 : 임금과 신하는(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상하조직)

夫婦有別 :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자기노릇)

長幼有序 :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예의)

朋友有信 : 벗과 벗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고(믿음)

▶ 나의 할 일

1. 나는 인도자다. 2. 나는 지도자다. 3. 나는 관리자다. 4. 나는 모든 이에게 구도자다.

〈어떤 방법〉

1. 나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2. 절대적 믿음자야 한다. 3. 선과 악은 내 마음속에 있다.
4. 나 자신을 먼저 구하자.

(親親愛民)

◎ 이유. 1

1.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위해서 2. 낯선 곳에서 다시 만남을 위해서

◎ 이유. 2

1. 인간은 그때마다(상황따라) 자기반성(윤리적) 즉, 정신적(이성적)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제어(선, 악)한다.(옳고 그름)
2. 참다운 인간관계 = 서로 믿음, 사랑
3. 만남의 조건 : ㉠ 서로 필요조건 성립 ㉡ 욕구충족

◎ 이유 3.

1. 晴杯常必滿 : 술잔은 항상 가득차야 하고
2. 寤女常時愛 : 저녁 여인은 항상 사랑스럽다.



◎ 이유 4.

1. 教人不教면 反其智 : 가르쳐도 모르면 나의 지혜를 반성하라.
2. 禮人不答이면 反其敬 : 예를 갖추었으나 응답이 없으니 나 자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반성하라(하자)
3. 禮別尊卑 : 예는 높고 낮음이 없다.

▶ 삶에 방법

1. 윤리적 삶 =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생활하는 것
2. 도덕적 삶 = 신의, 성실, 예의와 믿음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것

(我) 君子之行

1. 칭찬에 동요치 말고 2. 비난에 동요치 말고 3.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4. 本心一念으로 행하자 5. 君子初志一貫

▶ 칭찬과 격려의 힘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서툴고 애정표현에 인색하다.
2.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믿어주고 알아주는(사랑) 사람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3. 잘한다, 좋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4. 넌 할 수 있어, 너는 된다라는 격려와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되자.
5. 그 말 한 마디가 사랑과 믿음이 더욱 두터워진다.

▶ 孝

1. 子欲養而親不待 : 자식이 봉양하고자 해도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
2. 妻賢夫過少. 子孝夫心寬
3.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4. 郊天禮廟非酒不亨, 君臣朋友非酒不義, 鬪爭相和非酒不勸, 故로 酒有成敗而不可汲飲之니라
5. 酒食兄弟千价有, 急難之朋一价無, 不結子花休要種, 無義之朋不可交

▶ 人間의 一生

1. 生老病死 2. 生死有名, 富貴在天 3. 五福
- ㉠ 壽 ㉡ 富 ㉢ 康寧 ㉣ 有好德 ㉤ 古終

문화원 회원

글

태국 문화유적 탐방



한경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홍 완 표



안성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해외 문화 유적을 탐방하여 견문을 넓히고 또한 우리문화에 대한 더 많은 사랑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이 문화원의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매년 관심깊게 참여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25명의 남녀문화가족이 불교가 국교인 태국을 3박 5일 동안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 금년 태국 여행 일정은 10/23~10/27일로 3박 5

일 (기내1박) 일정인 바,방콕 1박, 파타야 2박으로 되어 있어 연세드신 분들은 조금은 피로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 했다. 인천 국제 공항에서 방콕의 수완나폼 국제공항까지는 약 5시간 30분의 비교적 긴 시간이라 조금은 지루함을 느끼게 했다.

하나투어(Hana Tour)의 패키지 여행이라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 많은 역사 유물과 불교계통의 유적을 관람할 수 있어 좋은 면도 많이 있었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인 분들도 몇분 계셨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도 하였으나 연세드신 어른들이 더 열심히 잘 걸으시며 다니시는 모습이 참으로 고마웠다. 태국수도 방콕에 첫날(10/23일) 도착 하자마자 하나투어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태국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레이라는 멋진 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환영해 주어 모두들 기분이 좋았다. 숙소는 4성급(四星級) 호텔인 Pullman Bangkok Hotel로 새로 지은 비교적 깨끗한 호텔이었다(2인실).

둘째날(10/24일)은 동물쇼(호랑이, 돼지 달리기, 코끼리 트레킹)를 관람하고 Mini Siam 관광을 했는데 뜻 깊었다. Mini Siam 관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미니어쳐로 축소하여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리의 에펠탑,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로렐라이 언덕의 인어상(人魚像) 등 많은 세계적 명물들을 한곳에 전시하고 있어으며 이러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태국 관광의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다음은 해변의 휴양지 파타야(PATAYA)로 이동하여 4성급 호텔 Garden Cliff Resort Hotel & Spa에서 여장을 풀었다.

셋째날 (10/25일)은 아름답고 깨끗한 파란색 바다와 넓게 펼쳐진 은빛 모래의 세계적 휴양지 파타야 해변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푸른바다. 출렁이는



과도와 은빛 모래사장의 아름다운 조화가 과연 세계적 해변휴양지로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게 했다. 넘실대는 푸른 과도를 바라보면 시퍼런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먹어보는 열대과일 야자수의 차고 시원한 맛은 일품이었으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었다. 옵션으로 몇 분들은 잠수함을 타고 산호섬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괜히 갔다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별로 볼거리가 없었다고 함).

여유있게 파타야 해변을 관광하고 중식 후에 200만평의 대지 위에 20여년간 가꾸어진 동·식물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열대 자연테마파크 농녹빌리지를 관광했다. 농녹빌리지는 국영이 아닌 개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자연농원과 비슷한 농장으로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많은 동식물을 모두 수집하여 정성껏 아름답게 꾸며 놓았을까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많은 열대식물들과 아름답게 꾸며 놓은 정원들은 정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정도였으며 수많은 관광버스는 모두 한국 관광객들로 붐볐다. 한국돈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모든 안내방송과 동물쇼의 진행방송도 한국말로 하고 있어 관광한국을 실감케 했다.

넷째날(10/26일)엔 이번 태국역사문화탐방의 하이라이트인 왕궁(王宮)방문이 있었다. 방궁의 왕궁은 태국민들이 가장 자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 1782년 라마 1세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이를 계기로 태국의 수도도 방콕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왕궁은 웅장하며 장엄한 모습에 화려한 금빛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어 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지금도 태국은 왕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왕을 신(神)처럼 존경하며 모시고 있다. 그래서 왕궁을 방문할 때는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슬리퍼 등의 차림으로는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에 찾아가 본 곳이 에메랄드(EMERALD) 사원인데 이 사원은 태국 내의 1900여개의 사원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는 사원이다. 왓트 프라깨오, 또는 사원을 온통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간단히 줄여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왓(WAT)은 태국어로 사원(절, Temple)을 의미한다. 이웃나라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앙코르왓트도 앙코르 사원이라는 뜻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새벽사원인데 이 사원은 높이가 104m나 되는 높은 사원으로 모든 외부건축이 도자기 조각을 붙여 만들어져 있어 아침 일찍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거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더하고 야간에는 인공조명을 받아 다양한 색채로 변모하여 새벽사원이란 닉네임(별칭)을 쓰고 있다. 다음에는 수상시장에 갔는데 황토빛 강위로 여기저기 물 위에 나무로 지어진 판자촌 모양의 목조 주택과 조각배를 타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국 돈 사용)의 모습도 이국적인 풍경이다.

깨끗하지 못한 물 위에서 모든 일상생활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다고 느껴지기 보다는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불교의 나라 태국의 여러 전통문화유적을 감명 깊게 탐방하고 1박은 야간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반 동안 꿈나라에서 꿈을 꾸며 오다가 깨어보니 어느덧 그 다음날인 27일 아침 8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태국은 항상 한국의 여름처럼 더운 상하(常夏)의 나라이기 때문에 농작물도 일년에 2~3모작이 가능하고 먹을거리 과일들도 풍부하다고 하지만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더없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글

새해맞이 시민축제 자원봉사

연년히 시행하는 새해맞이 행사가 한 해 한 해 흘러 벌써 9년째 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새해맞이를 시작으로 비봉 정상에서 손과 귀를 부비며 단원들과 고락을 함께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코앞에 와있다

12월 31일 정오에 채화식을 시작으로 천제를 지내고 나면 봉사단원들은 새해맞이 준비로

눈 코 뜰 새 없이 손과 발이 바쁘게 돌아간다. 눈 쌓인 등대로에 모래와 흙을 뿌리고 행사 물품을 조심조심 나르고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천막을 치고, 떡국을 끓일 솥을 걸고, 어둠을 환히 밝힐 조명을 설치한다.

해맞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갈 때 벌써 겨울 해는 서산마루턱을 붉은 노을과 함께 누엿누엿 고개를 떨 구고 있을 때 봉사단은 한층 더 빠빠 움직여진다.

만복식당에서 준비한 저녁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 둘 봉사단원들이 비봉 정상에 모여 새해맞이 축제를 맞이하기 위하여 천막에 의지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만물을 깨우는 약수사 범종소리가 울리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시민들의 발소리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봉사단원들의 활동은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간다.

떡국을 끓이는 단원, 시민을 안내하는 단원, 풍선을 나누어 주고 소원지를 돌리고, 잔계란과 귀밝이술, 커피, 녹차 등을 시민들의 취향에 따라 드실 수가 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비봉산 정상을 꼭 매운 시민들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와도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옛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룰 때 남사당 보존회에서 지신밟기 농악을 울리고 비봉 정상 팔각정에서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함성이 새벽하늘, 새벽하늘을 가를 때 비로써 올해에도 해가 뜨는 구나 느낌으로 알 수 있을 뿐 봉사단원들은 10여년의 새해맞이 행사에서 해가 뜨는 장관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밀물같이 모였던 시민들이 하나, 둘 썰물처럼 떠나고 나면 등줄기에서 흐른 땀이 식어가는 축축함을 느낀다. 썰렁한 광장에서 쏟아지는 줄음이 아련하게 밀려올 때 뒷정리를 마치고 하산하게 되면 이것으로 새해맞이 행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떡국이 맛있다고, 추운데 고생 많았다는 시민들의 아낌없는 찬사의 격려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며 내년을 또 기약하게 된다. 이제 깊은 잠을 자야겠다.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꿈을 꾸면서...

문화원, 우체국 봉사단 여러분 파이팅!

안성문화원 자원봉사단장 오종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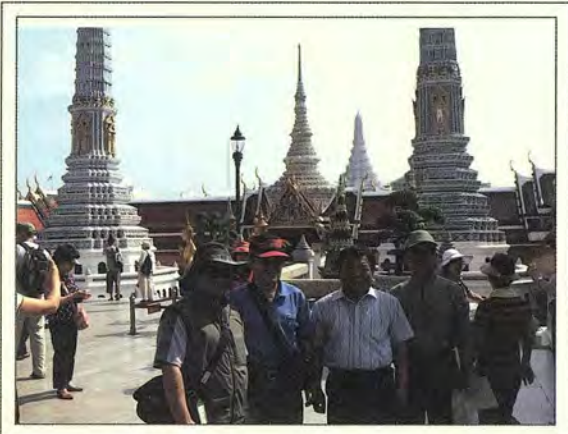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본 2007년 안성문화원



▲ 바우덕이 추모제



▲ 안성 문화원장 4대정신교육



▲ 해외문화유적탐방(태국)



▲ 해외문화유적탐방(태국)



▲ 해외문화유적탐방(태국)



▲ 해외문화유적탐방(태국)



▲ 해외문화유적탐방(태국)



▲ 바우덕이 축제중 여성부 씨름대회



▲ 답사반 석남사 문화유적 탐방



▲ 답사반 죽주산성 탐방



▲ 이경순 소리박물관 최원석 동아방송대 이사장 방문



▲ 안성향교 추계 석존대제

안성문화원 제공



▲ 안성 극적루와 전통 가무악 공연



▲ 외암리 민속마을 선진지 견학



▲ 제36회 문화의날 기념식



▲ 제36회 문화의날 풍물경연대회 모습



안성시 문화재-지정문화재별 목록

1. 국가지정문화재

번호	지정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지정일
1	국보 29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죽산면 칠장리 764	1628년	'97.09.22
2	보물 435호	안성죽산리오층석탑	죽산면 죽산리 148-5	고려	'66.02.28
3	보물 488호	칠장사혜소국사비	죽산면 칠장리 762	1060년	'68.12.19
4	보물 715호	김중만장군영정	대덕면 토현리 128	조선	'81.03.18
5	보물 823호	석남사영산전	금광면 상중리 508	조선	'85.01.08
6	보물 824호	청룡사대웅전	서운면 청룡리 28	조선	'85.01.08
7	보물 983호	안성봉업사석불입상	죽산면 칠장리 764	고려	'89.04.10
8	보물 1256호	칠장사삼불회괘불탱	죽산면 칠장리 764	1710년	'97.08.08
9	보물 1257호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서운면 청룡리 28	1658년	'97.08.08
10	유형문화재129호	조영복선생 영정	원:고삼면 가유리 650 현:경기도 박물관	조선	'99.12
11	보물 11-4호	청룡사동종	서운면 청룡리 28	1674년	'00.02.15
12	보물 1302호	청룡사감로탱	서운면 청룡리 28	1692년	'00.10.16
13	중요무형문화재77	유기장	안성시 봉남동 7-3	조선	'83.06.01
14	중요무형문화재92	태평무	안성시 사곡동 31	조선	'88.12.01
15	중요무형문화재58	줄타기	죽산면 매산리 570-10	조선	'00.07.22

2. 경기도지정문화재

번호	지정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지정일
1	유형문화재 8호	덕봉서원	양성면 덕봉리 109	조선	'72.05.04
2	유형문화재 34호	인목대비친필족자	죽산면 칠장리 764	"	'73.07.10
3	유형문화재 36호	기솔리석불입상	삼죽면 기솔리 33-1	고려	'73.07.10
4	유형문화재 37호	매산리석불입상	죽산면 매산리 366	"	'73.07.10
5	유형문화재 39호	칠장사 당간	죽산면 칠장리 801-1	"	'73.07.10
6	유형문화재 71호	홍계남장군고루비	미양면 구수리 산87-1	조선	'77.10.13
7	유형문화재 78호	안성죽산리삼층석탑	죽산면 죽산리 240-2	고려	'78.10.10
8	유형문화재 79호	오명향선생토적송공비	안성시 낙원동 609-5	1744년	'78.10.10
9	유형문화재 89호	안성죽산당간지주	죽산면 죽산리 728-8		'79.09.03
10	유형문화재 97호	안성죽산리석불입상	죽산면 죽산리 산6-1		'80.06.02
11	유형문화재 108호	석남사대웅전	금광면 상중리 508		'81.07.16
12	유형문화재 109호	석남사마애여래입상	금광면 상중리 산22		'81.07.16
13	유형문화재 110호	김중만장군공신록밧교지	대덕면 토현리 133		



14	유형문화재 114호	칠장사대웅전	죽산면 칠장리 764		'83.09.19
15	유형문화재 115호	칠장사소조사천왕상	죽산면 칠장리 764		'83.09.19
16	유형문화재 116호	청원사칠층석탑	원곡면 성은리 397		'83.09.19
17	유형문화재 124호	청룡사사적비	서운면 청룡리 66-3		'85.06.28
18	유형문화재 129호	조영복선생영정	고삼면 가유리 650		'85.06.28
19	유형문화재 130호	신창리삼층석탑	고삼면 신창리 293-6		'86.05.07
20	유형문화재 134호	연행일기, 연행별장외명현간찰	고삼면 가유리 650		'88.12.02
21	유형문화재 154호	안성객사	보개면 양복리 238-1		'95.08.07
22	유형문화재 170호	안성청룡사금동관음보살좌상	서운면 청룡리 28		'00.04.17
23	유형문화재 174호	안성청원사대웅전	원곡면 성은리 397		'00.04.17
24	유형문화재 175호	안성정무공오정방고택	양성면 덕봉리 246		'00.04.17
25	유형문화재 179호	안성죽림리삼층석탑	죽산면 칠장리 764		'01.12.27
26	기념물 26호	이덕남장군묘	미양면 구수리 산85-1		'75.09.05
27	기념물 69호	죽주산성	죽산면 매산리 산106		'73.07.10
28	기념물 75호	영창대군묘	일죽면 고은리 산24-5		'83.09.19
29	기념물 77호	서홍김씨삼강정문	고삼면 월향리 산84-2		'84.09.12
30	기념물 81호	서운산성	서운면 청룡리 산2		'85.06.28
31	기념물 82호	안성구포동성당	안성시 구포동 80-1		'85.06.28
32	기념물 117호	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	보개면 북좌리 산8-2		'89.12.29
33	기념물 138호	망이산성	일죽면 금산리 산48		'93.06.03
34	기념물 189호	안성봉업사지	죽산면 죽산리 145외 41필지		'02.04.21
35	문화재자료 24호	칠장사	죽산면 칠장리 764		'83.09.19
36	문화재자료 25호	운수암	양성면 방신리 85		'83.09.19
37	문화재자료 26호	죽산향교	죽산면 죽산리 314		'83.09.19
38	문화재자료 27호	안성향교	안성시 명륜동 118		'83.09.19
39	문화재자료 28호	양성향교	양성면 동향리 114		'83.09.19
40	문화재자료 45호	안성유명진묘갈	고삼면 삼은리 산2-1		'83.09.19
41	문화재자료 46호	안성대농리석불입상	대덕면 대농리 91		'83.09.19
42	문화재자료 59호	청룡사삼층석탑	서운면 청룡리 28		'85.06.28
43	문화재자료 73호	이해룡고가	서운면 청룡리 78-1		'86.05.07
44	문화재자료 76호	안성도기동삼층석탑	안성시 도기동 184		'89.06.01
45	문화재자료 108호	안성죽리석조여래입상	대덕면 죽리 17		'01.12.27
46	문화재자료 131호	안성법계사신중도	안성시 명륜동 158-3		'04.08.19
47	문화재자료 132호	안성법계사 화장찰해도	안성시 명륜동 158-3		'04.08.19
48	무형문화재 7호	백동연죽장	안성시 봉산동 392		'89.12.29
49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	보개면 기좌리 257		'97.09.30
50	무형문화재 21호	안성남사당풍물놀이	안성시 보개면 북평리 34-3		'97.09.30
51	무형문화재 34호	안성향당무	미양면 개정리 467		'00.08.21
52	무형문화재 45호	주물장	안성시 계동 91-2		'06.01.20



3. 시지정향토유적

번호	지정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지정일	비고
1	향토유적 1호	금광산성	금광면 금광리 산64	삼국~조선	'86.05.22	성곽
2	향토유적 2호	무양성(무한성)	양성면 방신리 산40	삼국	'86.05.22	"
3	향토유적 4호	만둔사지	금광면 오산리 산41-1	조선	'86.05.22	사당
4	향토유적 5호	부조묘	대덕면 대농리 산24	"	'86.05.22	"
5	향토유적 6호	최규서어서각	원곡면 지문리 219-2	"	'86.05.22	"
6	향토유적 36호	경양사	양성면 덕봉리 산47-1	"	'86.05.22	"
7	향토유적 44호	서운동촌리 효우당 이종집 정려문	서운면 동촌리 128-1	1804년	'86.05.22	"
8	향토유적 8호	안성공원석불좌상	안성시 낙원동 609-5	고려	'86.05.22	불상
9	향토유적 9호	안성공원석조광배	안성시 낙원동 609-5	"	'86.05.22	"
10	향토유적 10호	아양동보살입상	안성시 아양동 364	"	'86.05.22	"
11	향토유적 11호	굴암사마애여래좌상	대덕면 진현리 산26	조선	'86.05.22	"
12	향토유적 12호	굴암사마애선각좌불상	대덕면 진현리 산26	고려	'86.05.22	"
13	향토유적 13호	선유동마애불사존불상	일죽면 신흥리 산59-1	"	'86.05.22	"
14	향토유적 15호	아양동석불입상	안성시 아양동 364	"	'86.05.22	"
15	향토유적 16호	운수암비로자나불좌상	양성면 방신리 산42-1	"	'86.05.22	"
16	향토유적 39호	양성석조여래입상	양성면 구장리 230-1	조선	'01.09.07	"
17	향토유적 40호	죽산 두현리 석조삼존불상	죽산면 두현리 산33-3	통일신라	'02.02.19	"
18	향토유적 42호	삼죽기슬리 국새암 석조여래입상	삼죽면 기슬리 기동 산2-2	고려	'02.02.19	"
19	향토유적 43호	서운 북산리 석조여래입상	서운면 북산리 산2	"	'02.02.19	"
20	향토유적 45호	용화사석조여래입상	미양면 법전리 181	"	'02.10.10	"
21	향토유적 18호	안성공원삼층석탑	안성시 낙원동 609-5	"	'86.05.22	석탑
22	향토유적 19호	석남사석탑	금광면 상중리 508	조선	'86.05.22	"
23	향토유적 20호	미륵당오층석탑	죽산면 매산리 366	고려	'86.05.22	"
24	향토유적 41호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일죽면 죽림리 460	"	'02.02.19	"
25	향토유적 21호	유언호선생묘및신도비	대덕면 건지리 산17-29	조선	'86.05.22	비
26	향토유적 22호	오정방선생신도비	양성면 덕봉리 산47-1	조선	'86.05.22	"
27	향토유적 23호	오두인선생묘및신도비	양성면 덕봉리 산47-1	조선	'86.05.22	"
28	향토유적 24호	칠장사사적비	죽산면 칠장리 801	1671년	'86.05.22	"
29	향토유적 37호	운암산신도비	보개면 남풍리 산152	조선	'89.01.27	"
30	향토유적 25호	칠장사동종	죽산면 칠장리 764	1782년	'86.05.22	종
31	향토유적 27호	청룡사부도군	서운면 청룡리 산1-4	조선	'86.05.22	부도
32	향토유적 28호	석남사부도	금광면 상중리 산32-1	"	'86.05.22	"
33	향토유적 29호	칠장사부도군	죽산면 칠장리 산77	"	'86.05.22	"
34	향토유적 30호	삼한국대부인순흥안씨묘	금광면 오흥리 산32-1	"	'86.05.22	묘
35	향토유적 31호	의병장홍자수묘	미양면 갈전리 산18-10	"	'86.05.22	"
36	향토유적 32호	최만리선생묘및신도비	원곡면 지문리 산3	"	'86.05.22	"
37	향토유적 33호	홍명호선생묘	일죽면 가리 산32-50	"	'86.05.22	"
38	향토유적 34호	최용소선생묘	일죽면 신흥리 산96	"	'86.05.22	"

39	향토유적 35호	유양식선생묘	고삼면 월향리 산26	조선	'86.05.22	묘
40	향토유적 38호	바우덕이(김암덕)묘	서운면 청룡리 산1-1	"	'01.09.07	"
41	향토유적 46호	이세영묘역	양성면 장서리 산61	"	'03.03.05	"

4. 효행기념물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지정일	비고
1	유해옥 효자비	보개면 동신리 478-4	1934		비 각
2	오두웅 효자정문	양성면 덕봉리 산55	1673(현종4년)		
3	봉한정 효자비	양성면 방신리 277	1710		
4	김준식 효자비	공도읍 승두리 45	1879(고종16년)		
5	여양진씨 효부정문	일죽면 장암리 산16	1871(고종8년)		
6	김유희 효자정문	일죽면 장암리 산16	1885(고종22년)		
7	임월홍 장효비	금광면 현곡리 산18	1949.04		비
8	경주최씨 효행비	금광면 현곡리 산18	1946		
9	장기오 효자비	서운면 송정리 18-3	1933.03.30		
10	이정옥 효자비	미양면 개정리 산80	1945		
11	전주이씨 정절기념비	대덕면 대농리 산31-2	1967		
12	윤성순 효자비	공도읍 마정리 52	1923		
13	한동수 효자비	고삼면 월향리 산23	1929.04.01		
14	최재문 효자비	고삼면 쌍지리 454	1958		
15	김해김씨 열녀정문	금광면 상중리 42-1	1592		각
16	전주이씨 정려문	금광면 내우리 산28	1626.01.24(인조4년)		
17	한여기 효자정문	미양면 양면리 산17	1717(숙종17년)		
18	전주유씨 열녀정문	양성면 난실리 329-4	1675(현종6년)		
19	이승인 효자정문	일죽면 화곡리 산47-1	1624(인조2년)		
20	박성항 정문	죽산면 장능리 산91	1834(순조34년)		
21	강일선 효자정문	삼죽면 마전리 산16-2	1904(고종41년)		
22	최현 효자정문	보개면 동평리 368	1892		
23	경주최씨 정려문	원곡면 내가천리 23-2	고종29년		
24	심기조 효자정문	서운면 산평리 218	1860		기 타



문화원 임직원 소개

2008년 1월 현재

순번	직위	성명	주소	전·현직
1	원장	김태원		현) 국사편찬자료조사원
2	부원장	박해승		현) 낙원주류대표
3	부원장	한도섭		전) 안성시의회부위원장
4	이사	황은수		현) 사진작가
5	이사	김영기		전) 청소년회의소소장
6	이사	권오승		전) 안성부동산협회회장
7	이사	최재혁		현) 법무사
8	이사	이한성		현) 장학새마을금고이사장
9	이사	허필홍		전) 농협장
10	이사	이주한		현) 성요셉병원장
11	이사	최은수		전) 여성소방대장
12	이사	박정자		전) 한국부인회 회장
13	이사	임경호		전) 안성라이온스클럽회장
14	이사	이종수		현) 비철금속대표
15	이사	김추연		현) 시인
16	이사	오재근		현) 시의원
17	이사	이기열		현) 모드의료기 대표
18	이사	심명옥		전) 새마을부녀회 회장
19	이사	박종대		현) 산업관리공단 전무
20	이사	김종열		현) 안일옥 대표
21	이사	이광수		현) 서예학원장
22	이사	김선중		현) 주) 화인택
23	이사	오중환		현) 문화원봉사단장
24	이사	김진석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5	이사	최동기		전) 공도읍장
26	감사	이수봉		현) 안성향교
27	감사	김수영		전) 시공무원
28	사무국장	임상철		
29	총무과장	최홍렬		
30	간사	김미자		

□



향토사 연구소 명단

2008년 1월 현재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안 성 문 화 원 향 토 사 연구위원	고 문	김태원		안성문화원장
	고 문	임효재		
	위원장	성낙구		향토사학자
	위 원	홍완표		한경대학교 교수
	"	이진한		
	"	백승명		안성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이한성		장학새마을문고 이사장
	"	윤민용		안성시 문화유산 해설사

안성문화원 분과 위원장 명단

2008년 1월 현재

구 분	성 명	주 소	비 고
민속분과	오 함 현 외15인		안성남사당일로
사진분과	김 현 순 외15인		안성사진예술창작회
승 단 회	강 남 규 외20인		경신회
봉 사 단	오 중 환 외20인		봉사단장



안 / 성 / 문 / 화 / 원 / 회 / 원 / 모 / 집

- ▶ 안성문화원에서 문화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 ▶ 안성문화원은 지난 1965년 설립된 지역문화의 발전과 계몽을 그 목적으로 한 문화관광부 산하 특별법인입니다.
- ▶ 문화의 중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 우리 안성은 오랜 역사와 소중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문화의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안성문화원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합니다.
- ▶ 안성문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는 안성시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 ▶ 안성문화원 회원은 특별한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안성을 사랑하는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안성시민 누구나

| 일 시 : 연중 접수

| 문 의 : 안성문화원(031-673-2625)

| 회 비 : 월 5,000원

| 회원 특전 : <서예반> · <풍물반> · <이주외국인 문화학교> 무료참가,
 <문화유적 답사반> 우선참가, <안성문화> 투고,
 문화원 산하 각종기구(연구회, 봉사단 등) 참여 외 신규단체
 조직 · 지원, 우수회원 문화의 날 표창,
 문화사업에 관한 의견 개진과 참여 등

- 문 의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북리 238-1 안성문화원
- 전 화 : 031-673-2625
- 팩 스 : 031-672-6815
- 메 일 : cc456as@hanmail.net



안 / 성 / 문 / 화 / 21 / 호 / 원 / 고 / 모 / 집



〈안성문화〉는 지난 85년 창간호를 발행하여
2007년 통권 20호를 발행한 안성문화원의 문화지입니다.

〈안성문화〉는 안성시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안성시민의 문화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검토 후 채택하여 안성문화지에 실어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안성문화〉지를 보내드립니다.

- ◆ 원고마감 : 2008년 11월 30일
- ◆ 분 야 : 제한없음

보내주실곳

- 주 소 :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1 안성문화원 (우편번호:456-872)
- 메 일 : cc456as@hanmail.net
- 문 의 : 전화) 031-673-2625
팩스) 031-672-6815

편 집 후 기

〈안성문화〉는 지난 198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이번 20호에 이르기까지 살아 뛰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안성의 문화를 대변하는 종합문화지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번 20호는 그 동안 발간된 〈안성문화〉 각 호에서 주옥같은 내용들을 모아 채워 보았습니다.

부디 이번호가 시민 여러분들께 안성의 이해를 높이고 깊은 애정을 갖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성을 사랑하고, 안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성을 기울이시는 시민 여러분의 애정을 먹고 사는 〈안성문화〉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애정속에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하며 더 나은 〈안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안성문화 제20호
.....

- 발행일 : 2007년 12월 31일
- 발행인 : 김 태 원
- 편집인 : 임 상 철
- 발행처 : 안성문화원
- 디자인 : 에이스애드

靈秀辭山別洞天

望信云載

力見非凡

存此山水

真自得去

令天象万千

心咫尺道遙

融現代優雅

林心隨意吳心

何選擇的時候

是享受

外政盡地

色望月天

來八方間

是

琴生活樂曲

사무실 : 우)456-872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북리 238-1 (안성문화회관 2층)

TEL : 031)673-2625 FAX : 031)672-6815

